

연구보고 17-R1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책임연구원 양계민

공동연구원 강경균

NYPI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V : 총괄보고서

- ▶ 책임연구원 :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강경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둘째, 이를 기초로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셋째,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2011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다문화청소년집단을 2016년까지 종단추적을 하였고, 2017년도 역시 7년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2017년도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간 수행된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연구 과정 및 결과를 총정리하고, 둘째, 6년간 축적된 자료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셋째, 패널 학술대회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연구물을 도출하고, 넷째, 그 간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기존의 각 부처별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도출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속적 연구를 위해 2017년도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것도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단자료 분석에 따르면 첫째, 패널자료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변화궤적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부모의 학력, 월평균수준 등이 도출되었다. 셋째, 정책지원의 영향과 관련하여 학습지원경험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문화지원경험과 물적지원경험이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분석에서는 국가의 법령, 기본계획, 부처별 정책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한국다문화청소년정책의 SWOT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들의 추진여부를 분석한 후, 이들에 근거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추진전략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 지지집단 역량강화, 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추진체계 확립이라는 총 4가지 추진전략을 제안하였고, 각 전략에 따른 총 11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으며, 각 추진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전체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 및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다문화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

2017년도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연구 과정 및 결과 총정리
- 6년간 축적된 종단패널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지원의 객관적 근거 마련
- 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물 산출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기존의 각 부처별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도출
- 2017년도 패널자료를 구축

2. 연구방법 및 내용

- 패널 설문조사

2017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한 7차 패널구축을 위하여 1,332가구의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CAPI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면접조사

2017년도 설문지 수정을 위하여 패널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7명과 그들의 어머니 7명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지와 설문과정에 대한 FGI를 실시함.

○ 종단자료 분석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종단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지원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콜로키움

‘다문화가정자녀의 통합적·맞춤형 지원방안모색에 대한 사례관리 실천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함.

○ 정책분석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유엔아동권리협약), 각종 기본계획(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제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부처별 다문화청소년정책(교육부, 여성가족부)을 분석함.

○ 전문가 자문회의

2017년도 설문조사지 변경과 정책제언의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학계전문가, 공무원, 현장전문가 등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 정책협의회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다문화지원팀 공무원과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함.

○ 패널 학술대회

2017년 9월 1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세션 29편, 대학원생 우수논문 3편 등 총 32편의 논문이 발표됨.

3. 연구결과

1) 6년간 종단변화 추이

2011년~2016년까지의 6년간 종단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1)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에 대한 기초 분석결과

학교생활적응	■ 학업관련 요인(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학습활동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교우관계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심리적응	■ 초등학교시기에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응	■ 진로인식은 별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는 반면, 비행경험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적응	■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한국인정체성은 초등학교시기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등학교시기에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시기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수용성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증가 속도는 점차 감소함.
신체 만족도	■ 신체 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도 증가하는 경향은 있으나 증가 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발달추이 비교 분석 결과

학습활동	■ 학습활동의 경우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변화 모형이 상이함. ■ 다문화청소년은 중학교시기에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반청소년의 경우 U자 형태로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교우관계	■ 교우관계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변화 궤적에 차이가 없음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의 경우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변화 모형은 동일하였으나, 다문화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중학교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수용성	■ 다문화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증가폭이 감소하는 이차곡선의 형태 ■ 일반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시기에 감소하다 중학교시기에 증가
주관적 건강상태	■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증가하다가 증가속도가 줄어드는 역 U자 형태를 보임 ■ 일반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는 증가하다가 중학교에 감소하는 형태를 보임

(3)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개인배경의 영향

성별	■ 성별은 학습활동, 교우관계, 성적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비행 경험 등 다양한 발달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인 부모학력	■ 한국인 부모학력은 초기 학업 관련 요인들에 영향을 주었으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변화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임.
월평균 소득수준	■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우관계, 학교성적수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도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음.

○ 정책지원경험의 영향

학습활동	■ 학습활동의 경우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변화 모형이 상이하였으며, 조사시점에 따라 학습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특정 집단의 우위를 논의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정책지원경험	■ 학습지원경험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음. ■ 문화지원경험은 성적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물질지원경험은 학습활동, 학교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 패널 학술대회

○ 논문접수: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57개 팀(87명), 일반세션 56개 팀(99명)

○ 논문제출: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38편, 일반세션 31편

○ 학술대회 발표: 일반세션 29편, 대학원생 우수논문 3편

○ 대학원생 우수논문 3편(최우수논문 1편, 우수논문 2편) 선정 및 포상

■ 최우수논문: 정부 지원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우수논문 1: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 우수논문 2: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초·중학생들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영향요인 검증

3) 정책분석

- 국내외 법령, 각종기본계획, 부처별 다문화청소년정책 분석
-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SWOT분석 및 전략도출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s)
▶ 정부주도로 강력한 정책추진 ▶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기반 마련 ▶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시스템 구축 ▶ 다문화청소년정책사업의 양적 확대 ▶ 다문화청소년의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추진 ▶ 교원의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속 확대	▶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원칙 및 기본 방향 부재 ▶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중심추진체계의 부재 ▶ 부처별 연계 부족 ▶ 다문화청소년정책사업 성과의 축적 부족 ▶ 정부주도의 결과 중앙부처와 현장과의 괴리 ▶ 다문화청소년의 결핍에 초점을 둔 지원 사업의 결과 낙인효과발생 ▶ 다문화청소년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부족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친다문화적 가치의 확산 및 다문화수용성 수준의 증가 ▶ 다문화교육관련 자료 및 연수의 양적 확대 ▶ 부모, 교사 등 지지집단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사회전반의 경기침체 ▶ 노동시장의 위축 ▶ 반(反)다문화정서 및 역차별 논란 ▶ 외국인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청소년의 증가 ▶ 다문화가정의 낮은 소득수준 ▶ 다문화배경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진로, 및 직업에서의 불리함

4. 정책제언

- 아래와 같은 정책제언과 로드맵을 제시함.

추진전략	추진과제
1.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	1-1.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1-2. 심리상담시스템 구축 및 강화 1-3. 이중언어교육의 체계화
2. 지지집단 역량강화	2-1. 부모 역량강화 2-2. 교사 역량강화 2-3.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3. 친다문화적 환경조성	3-1. 청소년다문화이해교육 내실화 3-2. 다문화친화적 지역사회환경조성 시스템 구축
4. 다문화청소년지원 정책 추진체계 확립	4-1. 지역사회 중심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모형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4-2.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률검토 및 개정 4-3. 다문화청소년정책 관련 기초통계자료 구축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 경과	7
3. 연구추진 체계	9
4. 연구내용 및 방법	10
5. 연구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내용	17
II. 이론적 배경	19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21
2. 다문화청소년 현황	22
3.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5
4. 요약 및 소결	62
III. 패널조사	65
1. 패널조사의 개요	67
2.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69
3. 설문구성과 조사내용	75
4. 조사방법	113
5. 패널관리	120
6. 데이터 구축 현황	128
IV.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35
1.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개요	137
2.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시사점	141

V. 결론	155
1. 연구의 성과 및 기여도	157
2. 연구의 한계	159
3. 향후 추진방안	160
참고문헌	163

표 목차

〈표 Ⅰ-1〉 다문화종단연구의 단계별 연구목적	5
〈표 Ⅰ-2〉 전문가 자문의 내용 및 일시	11
〈표 Ⅰ-3〉 설문조사의 내용	12
〈표 Ⅰ-4〉 대상별 설문지의 종류	12
〈표 Ⅰ-5〉 2017년 연구의 패널분석 영역 및 도출내용	13
〈표 Ⅰ-6〉 정책전문가 자문단 명단	14
〈표 Ⅰ-7〉 정책실무협의회 주요내용 및 대상	15
〈표 Ⅰ-8〉 콜로키움 주요내용	15
〈표 Ⅱ-1〉 분석에 활용된 선행연구의 영역별 논문 수	26
〈표 Ⅱ-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29
〈표 Ⅱ-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42
〈표 Ⅱ-4〉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	48
〈표 Ⅱ-5〉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선행연구	51
〈표 Ⅱ-6〉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55
〈표 Ⅱ-7〉 다문화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선행연구	58
〈표 Ⅱ-8〉 다문화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60
〈표 Ⅲ-1〉 전국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학생의 수와 지역별 구성 비 (2011년 기준)	70
〈표 Ⅲ-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표본설계 내역	71
〈표 Ⅲ-3〉 시/도별 표본 배분 결과	73
〈표 Ⅲ-4〉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설문구성의 영역별 변인	75
〈표 Ⅲ-5〉 청소년용 설문지 구성내용의 변화(2011년~2017년)	77
〈표 Ⅲ-6〉 청소년용 설문지 변경내역(2011년~2016년)	79
〈표 Ⅲ-7〉 학부모용 설문지 구성내용의 변화(2011년~2017년)	87
〈표 Ⅲ-8〉 학부모용 설문지 변경내역(2011년~2016년, 외국인학부모용 기준) ...	89
〈표 Ⅲ-9〉 2017년 설문변경 내용 예비조사관련 면접조사 대상자	97

〈표 Ⅲ-10〉 2017년 청소년용 설문지 변경내용	98
〈표 Ⅲ-11〉 2017년 외국인학부모용 설문지의 변경내용	107
〈표 Ⅲ-12〉 조사원 교육 일시 및 장소	115
〈표 Ⅲ-13〉 조사원 교육 내용	116
〈표 Ⅲ-14〉 연도별 조사기간	118
〈표 Ⅲ-15〉 연도별 설문응답 소요시간	118
〈표 Ⅲ-16〉 연구진의 연구윤리교육 참여 현황	119
〈표 Ⅲ-1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내용	120
〈표 Ⅲ-18〉 패널관리를 위한 방법과 내용	121
〈표 Ⅲ-19〉 연구진의 통계품질진단 교육 참석 현황	122
〈표 Ⅲ-20〉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활용경험 여부	123
〈표 Ⅲ-21〉 이용자 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의 소속기관현황	123
〈표 Ⅲ-22〉 이용자 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의 직위현황	123
〈표 Ⅲ-23〉 이용자 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의 학위현황	124
〈표 Ⅲ-24〉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에 대해 알게 된 경위	124
〈표 Ⅲ-25〉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활용목적	124
〈표 Ⅲ-26〉 향후 원하는 워크숍 내용	125
〈표 Ⅲ-27〉 패널 데이터에 대한 요구도	127
〈표 Ⅲ-28〉 주요 문항별 문항변동계수	128
〈표 Ⅲ-29〉 2011년~2016년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별 지역별 분포	129
〈표 Ⅲ-30〉 2011년~2016년 어머니의 출신국 분포	130
〈표 Ⅲ-31〉 2011년~2016년 아버지의 출신국 분포	131
〈표 Ⅲ-32〉 2011년~2016년 패널이탈 현황	132
〈표 Ⅲ-33〉 2011년~2016년 이탈사유	133
〈표 Ⅲ-34〉 로지스틱회귀분석의 독립변인	133
〈표 Ⅲ-35〉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요약	134

〈표 IV-1〉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공동주최 학회	139
〈표 IV-2〉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설명회 진행 일정	140
〈표 IV-3〉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연구주제 분류	141
〈표 IV-4〉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주제별 발표 논문	143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차별 연구의 대상 및 핵심주제(2010~2017)	7
【그림 Ⅰ-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연구의 연차별 주요내용	8
【그림 Ⅰ-3】 2017년 연구추진체계	9
【그림 Ⅰ-4】 연구의 흐름도	16
【그림 Ⅱ-1】 행정자치부 기준 외국인주민 자녀의 범주 및 정의	21
【그림 Ⅱ-2】 교육부 기준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정의	22
【그림 Ⅱ-3】 연도별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	23
【그림 Ⅱ-4】 연도별 다문화학생 수	24
【그림 Ⅱ-5】 다문화학생 유형별 분포	24
【그림 Ⅲ-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조사 연혁	68
【그림 Ⅲ-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유지 현황	69
【그림 Ⅲ-3】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조사설계	74
【그림 Ⅲ-4】 설문조사 진행과정	114
【그림 Ⅲ-5】 조사원 모니터링 결과	117
【그림 Ⅳ-1】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추진 과정	138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 경과
3. 연구추진 체계
4. 연구내용 및 방법
5. 연구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내용

제 I 장
서론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에 이주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입국하고 거주하게 되어 가시적인 사회적 집단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서구 유럽이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외국인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였고(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p. 11), 초기 한국사회 다문화현상의 주요 집단은 한국사회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들이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 현재까지도 한국사회 이주배경집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외국인주민 1,711,013명 중 33.5%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6, p. 7). 그러나 이들은 단기체류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돌아갈 것을 전제로 일시 거주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한국사회의 주요 관심대상은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특히 자녀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통합의 문제는 각 정부부처별 정책의 주요 이슈로 포함되어 있다. 한국사회가 이주배경을 지닌 집단 중 결혼이주자와 자녀세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단기체류의 목적을 지닌 여타 집단과 달리 이주배경집단의 자녀세대는 대부분 한국의 국민이고, 향후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미래 한국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라 불리는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핵심은 원주민 자녀들과의 격차해소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이주민을 경험한 서구 사회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이주배경집단 자녀와 원주민 자녀의 교육격차는 단순히 교육격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로격차, 직업격차

1) 1장은 양계민이 집필함.

로 이어져 결국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특정한 사회적 계층을 형성하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서구사회에서 나타난 갈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피하겠다는 의지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함으로써 원주민 가정 자녀들과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도와는 달리 한국에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수행된 다수의 연구들, 특히 초기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 및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이고 결국 ‘사회적 부담’이라는 의식적 무의식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정 집단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는 경향이 있어서 지원정책의 추진 단계에서 매우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초기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은 그러한 측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부족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분류되는 집단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 및 이주의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한 채 다문화집단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고정관념화 하여 정책이 이루어진 결과, 다문화집단은 사회적 부담이 되는 소외계층이라는 의식적 무의식적 낙인이 형성되었다. 그러한 사회적 낙인은 다문화청소년들의 개인적 측면에서는 건전한 성장을 억압하는 요소로, 사회적으로는 특정한 집단 전체를 소외계층으로 인식하게 하여 결국 사회통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대한 종단추적을 하고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격차를 비교함으로써 실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양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축적하고, 발달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어 왔다. 실제 과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보면,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의 발달격차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양계민 외, 2012), 다문화청소년집단 내에서도 발달의 양상은 다양하였다(양계민 외, 2013).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집단이 정책의 대상이 되어 사회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지원의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은 사회적으로 다문화청소년집단 전체를 취약계층이라고 인식하는 현상을 고착화시킬 수 있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대한 객관적 상태를 분석하고, 그간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의 연구과정을 밟았고, 각 단계별로 크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으며, 매년 세부주제 및 세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표 1-1 다문화중단연구의 단계별 연구목적

단계	연도	단계별 연구의 목적
1단계	2010년 ~ 2012년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보이는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 - 다문화청소년들이 발달 및 성장과정에서 일반가정 청소년과 보이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함.
2단계	2013년 ~ 2017년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 - 발달의 변화양상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여 그 유형의 특성 및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함. -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함.

※ 출처 : 양계민, 박주희 (2013, p. 7)

그 중 2017년도는 2단계 사업의 마지막 해로 지금까지 구축된 자료와 정책분석을 근거로 최근까지 이슈가 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결론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7년도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된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총 정리한다.

둘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축적된 중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의 근거를 도출한다.

셋째, 2011년부터 도출된 결과와 기존의 각 부처별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기존 정책에 대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도출한다.

넷째, 2017년도 패널을 구축한다.

다섯째, 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7년도 연구의 목적

첫째,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연구 과정 및 결과 총정리

둘째, 6년간 축적된 중단패널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지원의 객관적 근거 마련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기존의 각 부처별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도출

넷째, 2017년도 패널자료 구축

다섯째, 패널 학술대회 개최

3)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두 가지 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다른 패널 연구와의 차별성이고 다른 하나는 연도별로 수행된 본 연구들 간의 차별성이다. 우선 첫째로 다른 패널 연구와의 차별성은 2016년도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문화배경을 지닌 청소년을 대규모로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해년도 조사부터 마지막 해까지 80% 이상의 유지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패널조사 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분석하고, 매년 주제별로 정책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양계민 외, 2016, p. 6-7).

둘째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수행된 각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들 수 있다. 그 간의 연구들이 매년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2017년도에는 이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경우 2010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에서 2012년의 연구에서는 비(非)다문화가정청소년들과의 비교에 초점을 두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각 주제별로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자아정체감, 진로의식 등 각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간의 연구보고서는 각 연차별 발달의 변화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본격적인 중단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7년도의 연구는 그간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문화청소년 발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며, 이를 근거로 다문화청소년

년에 대한 현재의 지원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추진 경과

본 연구는 1단계에서 2010년 예비조사, 그리고 2011년과 2012년까지 3년간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년간 2단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I」라는 명칭으로 총 3년간 연구가 수행되었고, 2단계에서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V」라는 명칭으로 총 5년간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7년도의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시리즈 연구 2단계의 마지막 해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의 방향과 원칙, 집행방식 등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연차별 연구의 대상 및 핵심주제(201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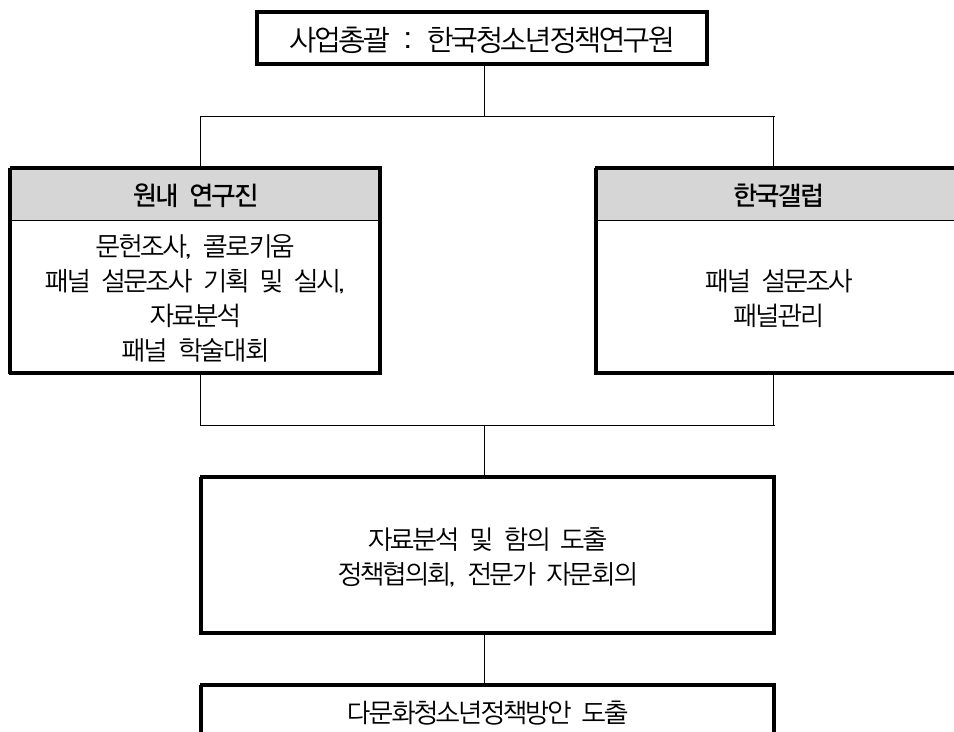
WAVE	연도	연도별 연구의 내용	핵심주제
예비조사	2010년	· 예비설문구성 - 이론적, 경험적 타당성 마련 · 패널 구축 타당화 방안 연구 - PAPI, CAPI 비교 · 예비설문조사 실시	예비조사
WAVE 1	2011년	· 본조사 설문 문항 최종 선정 · 본조사 연구방법 최종 결정 · 2011년도 1차 종단연구 패널 구축 (초4)	· 취약계층 청소년과의 비교
WAVE 2	2012년	· 패널 설문조사(2차년도 추적조사 - 초5) · 패널 질적조사(1차) · 심리적 변인 중심 ·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분석	· 일반가정 청소년과의 비교
WAVE 3	2013년	· 패널 설문조사(3차년도 추적조사 - 초6) · 패널 질적조사(2차) · 통계승인(승인번호: 제 40203 호) · 학업 및 학교생활적응 중심 분석 ·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방향성 및 학업관련 정책제언	· 학업 및 학교생활
WAVE 4	2014년	· 패널 설문조사(4차년도 추적조사 - 중1) · 학업중단 청소년용 조사 시작 · 통계품질진단 · 패널 질적조사(3차) · 심리, 정서, 사회적응 중심 분석 · 심리, 정서,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심리, 정서, 사회적응, 문제행동
WAVE 5	2015년	· 패널 설문조사(5차년도 추적조사 - 중2) · 패널 질적조사(4차) · 한국인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 중심 분석 · 한국인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 중심 정책방안 제시	· 자아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
WAVE 6	2016년	· 패널 설문조사(6차년도 추적조사 - 중3) · 진로의식 및 진로방안 중심 분석 · 진로지원정책방안 제시	· 진로의식 및 태도
WAVE 7	2017년	· 패널 설문조사(7차년도 추적조사 - 고1) · 종합 종단분석 · 다문화패널 학술대회 · 다문화청소년정책 전반의 분석 및 방안 제시	· 전체 총괄정리

【그림 1-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연구의 연차별 주요내용

(※ 출처 : 양계민, 박주희, 2013, p. 10; 양계민 외, 2014, p. 13 의 수정)

3. 연구추진 체계

본 연구는 기존의 타 패널 연구와 달리 패널조사 이외에 정책연구를 동시에 진행해왔다. 패널 구축 자체가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패널자료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사업을 총괄하되, 원내 연구진은 문헌조사, 패널 설문조사 기획 및 실시, 질적조사, 자료분석, 패널 학술대회 등을 담당하고, 한국갤럽에서는 패널 설문조사 및 패널관리를 담당해왔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며, 도출된 과제에 대해 정부의 관련부처와 정책협의회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타당하고 요구부합적이며 효율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1-3】 2017년 연구추진체계

(※ 출처 : 양계민 외, 2016, p. 11의 수정)

4. 연구내용 및 방법

2017년도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문헌분석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의 2단계 연구가 종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여 년 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을 총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기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최근에 산출된 최신연구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대한 연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2) 전문가 자문

2017년도 연구에서는 총 5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2017년도 개최한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의 마이크로데이터 공개를 위한 절차마련 및 패널관리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설문지 조사문항을 고등학생 연령에 맞게 축소 및 수정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2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정책과 관련하여 2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는데, 1차에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마련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고, 2차에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원정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도출된 정책의 타당 및 현실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1-2 전문가 자문의 내용 및 일시

영역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날짜 및 일시
1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 및 학술회의 방안	학계전문가, 공무원	2017. 3. 15
2	조사문항 수정(1차)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2017. 4. 6
3	조사문항 수정(2차)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2017. 5. 19
4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및 대안	학계전문가	2017. 7. 27
5	지원정책대안의 타당성 검토	공무원,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2017. 10. 25.

3) 패널 설문조사

2017년도의 연구목표는 그 간의 연구결과를 총정리하여 일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7차 패널조사로 2016년도 최종적으로 패널에 참여한 1,322가구의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위하여 본 패널에 참여한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고등학교 발달단계의 특성에 적합한 설문으로 교체하거나 추가, 또는 불필요한 문항의 삭제 등 설문수정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의무교육과정이 종료됨에 따라 학업중단자의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들의 학업중단 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 및 수정하는 작업도 수행되었다. 고등학교 시기는 교사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교사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CAPI를 활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 결과를 총정리하고, 2017년도 설문조사 결과는 2018년도 보고서에 분석 및 제시할 것이다.

표 1-3 설문조사의 내용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 2011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현재 고등학교 1학년)
표집틀	•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표본수	• 다문화중단연구 6차 년도에 포함된 청소년 1,322명과 그들의 학부모
표집방법	• 기 구축된 패널 전수를 대상으로 6차년도 조사 실시
조사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자료수집방법	• 컴퓨터를 통한 구조화된 조사표(CAPI)
조사시기	• 2017년 7월~10월

본 연구의 경우 원표본은 다문화청소년이나, 학부모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학부모 설문을 함께 수집하였다. 이 때 학부모가 없는 경우는 대체 양육자가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표 1-4 대상별 설문지의 종류

범주	일반가구	학업중단청소년가구	재참여가구
설문 종류	■ 학생용 설문지 ■ 부모용 설문지 • 외국인부모용 설문지 • 한국인부모용 설문지 • 대체양육자용 설문지	■ 학생용 설문지 ■ 부모용 설문지 • 외국인부모용 설문지 • 한국인부모용 설문지 • 대체양육자용 설문지	■ 학생용 설문지 ■ 부모용 설문지 • 외국인부모용 설문지 • 한국인부모용 설문지 • 대체양육자용 설문지
비고	※ 외국인부모용 설문지의 경우는 9개 국어로 번역된 번역본이 함께 제시됨: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대만어, 필리핀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 대체양육자 설문지는 현재 어머니가 주양육자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맡고 있는 어른이 작성함.		

※ 출처 : 양계민 외 (2016), p. 13의 수정

4) 면접조사

2017년도 설문지 수정을 위하여 2017년 6월 7일(수) 다문화청소년 패널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7명과 그들의 학부모 7명을 대상으로 변경된 설문조사지(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5) 패널자료 분석

패널자료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패널이탈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 집단 패널이탈의 원인과 패널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둘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종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대한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는 종단자료를 통해 분석한 다문화청소년의 결과가 일반 한국가정청소년의 발달특성과 다른지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지원의 경험현황과 지원받은 경험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1-5 2017년 연구의 패널분석 영역 및 도출내용

분석영역	도출내용
■ 이탈패널 분석	• 다문화청소년 패널이탈의 원인 및 패널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종단자료 분석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에 대한 분석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정책지원이 미치는 효과 분석

6)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및 분야별 정책 도출

- 국내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법률 등 분석
- 부처별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과 한계 분석
- 그 간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제언에 관한 총괄적 분석
- 향후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위한 방향과 과제 도출

7)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총괄하고 연구결과에 근거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다문화청소년 전문가를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 및 운영하였다. 문헌연구와 정책연구 및 패널조사 결과분석을 통하여 일차적인 영역별 정책방안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방안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정부 관련부처 공무원,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검토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분야별 정책의 최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자문단은 아래와 같다.

표 1-6 정책전문가 자문단 명단

번호	이름	분야	소속
1	전경숙	교수	평택대학교
2	조혜영	교수	공주교육대학교
3	강은이	현장전문가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4	신현옥	여성가족부 정책전문가	중앙여성새일지원본부(전, 무지개청소년센터 소장)
5	김재우	교육부 정책전문가	공존플랜(전,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팀장)
6	허수경	현장전문가	무지개청소년센터

8) 패널 학술대회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다문화청소년의 조사 자료 및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 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패널 학술대회는 2017년 9월 15일(금)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는데, 대학원 논문경진대회에 57개팀의 총 87명, 일반연구자 세션에 56개팀의 총 99명이 지원을 하여 전체적으로 113개팀의 186명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중 최종적으로 대학원 논문경진대회에 38편, 일반연구자 세션에 31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총 69편의 논문이 학술회의를 통해 발표되었다.

9) 기타

(1) 정책실무협의회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대안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표 1-7 정책실무협의회 주요내용 및 대상

주요내용	대상	개최시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 정부부처의 요구파악	교육부	201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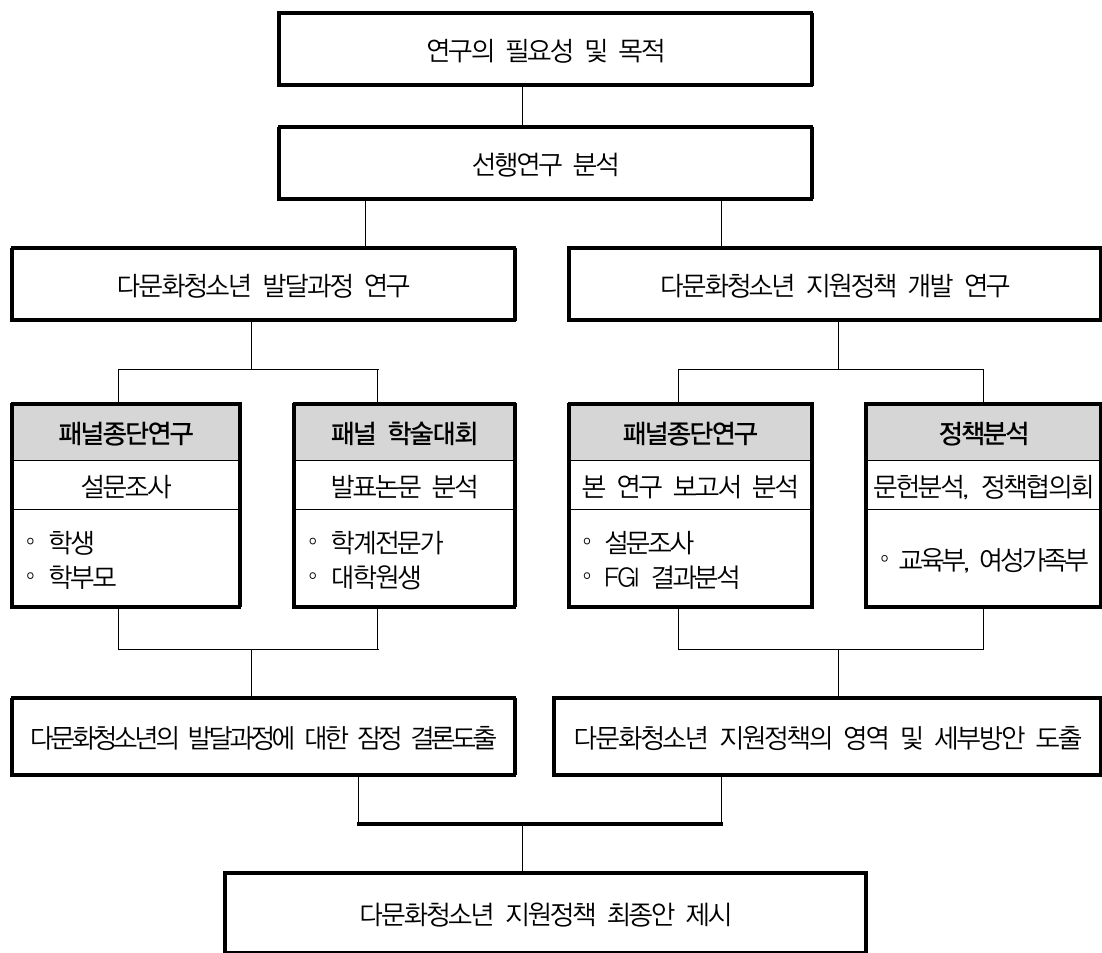
(2) 콜로키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1차로 '다문화가정의 통합적·맞춤형 지원방안모색: 사례관리 실천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표 1-8 콜로키움 주요내용

주요내용	개최시기
다문화가정자녀의 통합적맞춤형 지원방안모색: 사례관리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2017. 9. 22

지금까지 기술한 2017년도의 연구내용 및 연구의 흐름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다문화청소년 패널 구축 및 분석을 수행하는 패널연구이고, 둘째는 패널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제언하는 정책연구이다. 특히 올해는 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마이크로데이터 공개를 위한 사전절차를 수행하였고, 다문화청소년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에 근거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제언하였다.



【그림 1-4】 연구의 흐름도

(※ 출처 : 양계민, 박주희, 2013, p. 16의 수정)

5. 연구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내용

본 연구를 통해 총 3권의 보고서가 구성되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총괄보고서로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시리즈의 연구배경과 연구추진과정, 연구결과 등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다. 두 번째 보고서는 종단분석보고서로, 6년 동안의 축적된 자료의 종단적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 보고서는 정책제언보고서로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과 법등을 분석하고, 동시에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대안들을 영역별로 종합 분석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방향과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각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보고서명	주요내용
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V: 총괄보고서	■ 2011년~2016년 연구 과정 총정리 ■ 다문화청소년 관련 선행연구의 추이 분석 ■ 2017년 패널조사 ■ 패널관리 및 이탈패널 분석 ■ 패널 학술대회 결과보고
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V: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 분석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 분석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 비교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정책지원이 미치는 효과 분석
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V: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제언의 추진현황 분석 ■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분석 ■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 분석 ■ 국내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률 분석 ■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SWOT 분석 ■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비전, 목적, 목표 및 과제 제안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2. 다문화청소년 현황
3.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4. 요약 및 소결

제 II 장 이론적 배경²⁾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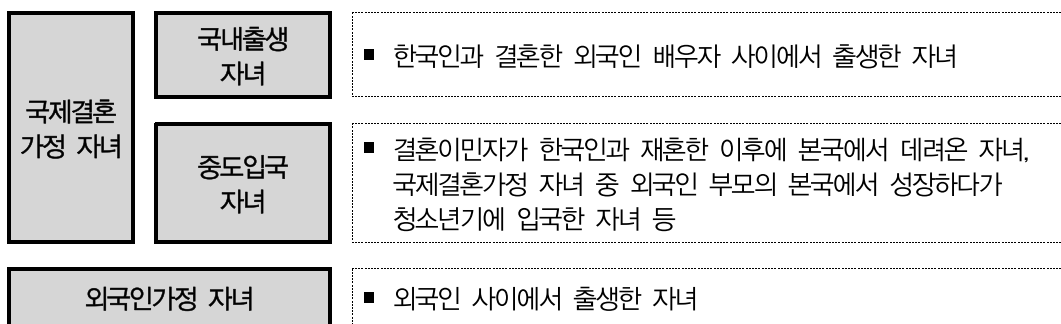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본인 또는 가족이 이주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기 연령(청소년 기본법 기준: 9세~24세)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을 제외한 집단을 의미하는데, 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근거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용어는 각 부처의 정책목표와 방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외국인주민 자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와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로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의미하고, 외국인주민 자녀의 범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외국인부모(부모가 모두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가정), 외국인-한국인 부모(부모 중 한쪽이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한국인부모(출생시부터 한국인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자와 재혼한 경우)로 구분된다.

외국인-한국인부모	■ 부모 중 한쪽이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외국인부모	■ 부모가 모두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가정
한국인부모	■ 출생시에는 한국인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자와 재혼한 경우

【그림 II-1】 행정자치부 기준 외국인주민 자녀의 범주 및 정의

2) 2장은 양계민이 집필함.

이에 비해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책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문화학생은 크게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되는데,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은 한국인인 청소년이고,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사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이 중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다시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로 구분된다, 국내출생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자녀들을 말하고, 중도입국 자녀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외국출신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한 후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경우를 말한다.



【그림 II-2】 교육부 기준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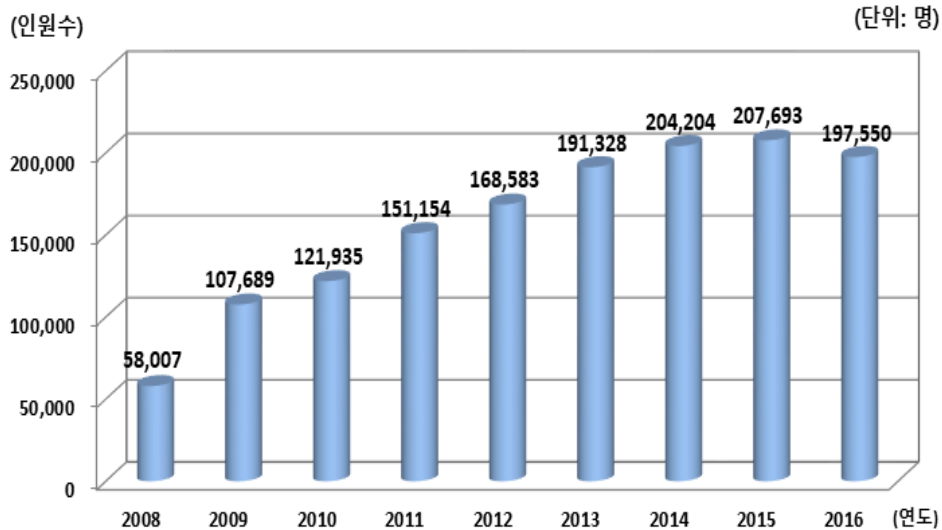
(※ 출처 : 교육부, 2016)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다문화청소년’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다문화청소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조사 표본설계 시 학교를 모집단으로 표집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이 그 대상이 되었기에 실제로는 대부분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2. 다문화청소년 현황

다문화청소년의 현황은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 자녀의 통계와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통계의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2015년 11월 현재 국내 외국인주민 자녀는 197,550명으로

그 중 초등학생 연령(만 7세~12세)이 61,625명으로 31.2%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생 연령(만 13세~15세)이 12,567명으로 6.3%이며, 고등학생 연령(만 16세~18세)이 7,290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학령기 이전의 영유아로 볼 수 있다(행정자치부, 2016). 이는 약 60%에 달하는 외국인주민 자녀가 아직 학령기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곧 청소년기 연령에 도달할 것이고 한국사회의 다문화청소년 수는 더욱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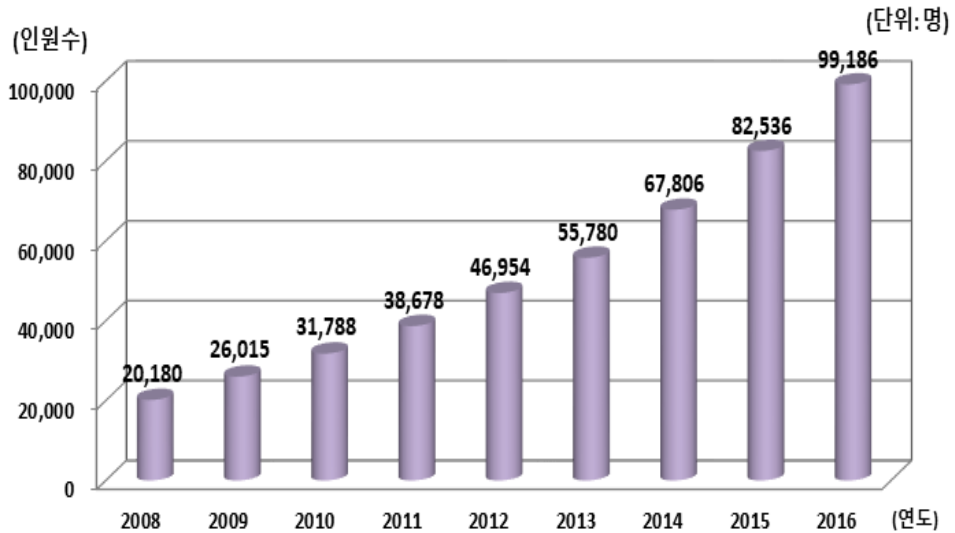


【그림 II-3】 연도별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

(※출처 : 행정자치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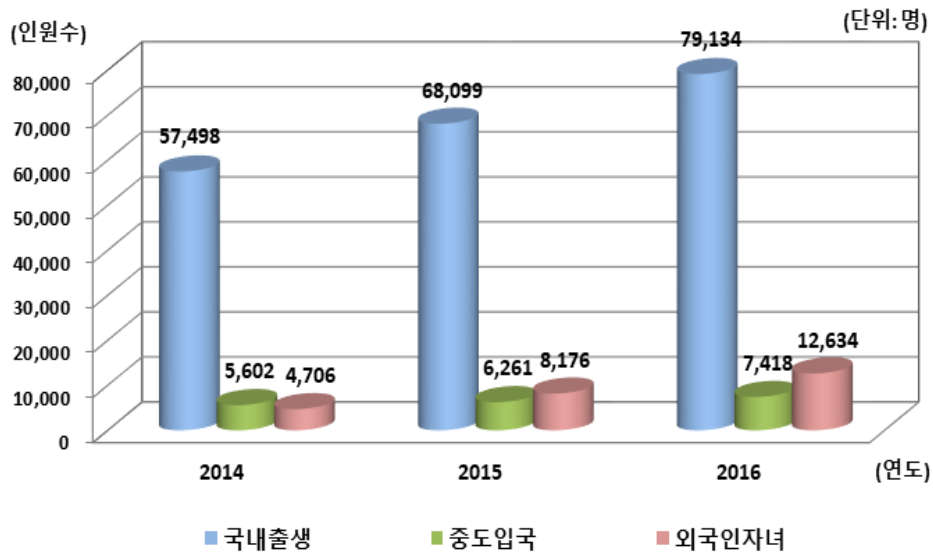
이에 비해 교육부에서 조사한 다문화학생은 2016년 4월 1일 기준 99,186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교육부, 2016),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위에서 제시한 행정자치부 통계에서 만 6세 이하 연령층의 비율이 60%에 달하는 현상을 볼 때, 향후 학교에 진입하는 다문화학생의 수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교육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 집단, 즉,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도입국학생, 그리고 외국인가정 자녀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이 79,134명(79.8%), 중도입국학생이 7,418명(7.5%), 외국인가정 자녀가 12,634(12.7%)명으로 절대 다수는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교육부에서 조사한 유형별 분포의 변화도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II-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점차 외국인가정 자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까지만 해도 중도입국청소년에 비해 그 숫자가 적었던 것에 비해 2015년 외국인가정

자녀의 수가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더욱 증가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동포비자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동포비자를 지닌 집단 자녀의 입국이 수월해진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한국 내 외국인가정 자녀의 수는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II-4】 연도별 다문화학생 수

(※ 출처 : 교육부, 2016)



【그림 II-5】 다문화학생 유형별 분포

(※ 출처 : 교육부, 2016)

3.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000년대 중후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매년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2010년 예비조사부터 이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났고, 다문화청소년의 지형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초기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시기와는 다문화에 대한 다수자 집단의 태도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초기에 추진된 선행연구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후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를 포함하여 다시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연구의 대상과 참여자 수, 연구의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연구들을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정체성, 건강, 진로, 문제행동, 문화적응 등 총 7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의 선행연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는지 그 추세를 살펴보고 함의를 발견함으로써 추후 연구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³⁾.

이를 위하여 온라인 학술논문 DB에서 ‘다문화’ 또는 ‘다문화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학생’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추출된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중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된 실증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⁴⁾. 아래의 표에 보면 국내에서 연구된 다문화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이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다음으로 많은 논문들이 산출된 주제가 문화적응으로, 국내 연구자들이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해 가지는 가정(假定)들이 주로 ‘이주’와 관련된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진로와 문제행동의 경우는 2011년 이후부터 발견되는데, 이는 아마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주제들이 그들의 발달단계와 함께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3) 본 연구에서는 조사참여자를 구분할 때, 다문화청소년 내 세부유형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으로, 중도 입국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 자녀는 각각 그대로 표시하였고, 국제결혼가정 자녀, 또는 결혼이주가정 자녀로 표시된 경우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으로 표시하였다.

4) 본 분석은 연구진에 의해 검색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대한 많은 논문들을 포함하고자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논문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둔다.

표 II-1 분석에 활용된 선행연구의 영역별 논문 수

연도\영역	학교생활적응	심리사회적응	정체성	진로	문화적응	건강	문제행동
2006년 이전	3	—	—	—	1	—	—
2007년	8	1	—	—	1	—	—
2008년	7	1	—	—	3	—	—
2009년	5	3	—	—	1	—	—
2010년	5	3	—	—	—	1	—
2011년	11	3	—	2	2	—	—
2012년	4	6	4	2	1	—	1
2013년	8	5	1	3	3	2	2
2014년	7	3	3	—	—	1	2
2015년	7	7	1	2	1	1	3
2016년	5	1	—	3	3	2	6
2017년	3	2	—	—	1	—	—
총	73	35	9	12	17	7	14

1)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우선 본 분석의 대상이 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논문 중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의 결과들은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중 학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약하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방법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영역에 따라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첫 번째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결과의 차이이다. 분석대상 논문 중 질적연구의 대부분이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며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다는 적응상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물론 그 중 일부 논문에서는 부정응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각각 설명함으로써 중립적 시각을 지니거나(예, 도남희, 2011) 오히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결과(예, 정지윤, 문성호, 2011)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부정응의 결과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질적 연구들의 경우 연구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주로 이주노동자 자녀

또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그 대상이고, 응답자도 당사자가 아닌 그들의 교사를 연구대상자로 삼은 경우도 여러 연구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는 이주노동자 자녀 또는 중도입국청소년에 국한된 현상들이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집단 전체의 특징인 것으로 사회에 인식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청소년집단 중 대다수는 국내출생자이고 이주노동자 자녀와 중도입국자녀는 20% 이내(교육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다문화청소년의 유형과 분포에 관심없는 일반 대중들에게 모든 집단의 다문화청소년들이 부적응적 특성을 지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당사자에 대한 면접이 아닌 그들의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실제 상황이 아닌 교사의 고정관념을 분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교사가 자신이 돌보는 학생들에 대해 잘 알 수도 있으나 동일한 현상도 당사자와 타인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교사대상으로 도출된 결과들은 당사자의 입장은 반영되지 못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양적연구의 결과들은 비교적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양적연구는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연구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을 추출해 낸 연구들이고,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연구는 학교생활적응의 변인별로 두 집단을 비교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더 부적응적인지 여부를 보는 연구였다. 비(非)다문화청소년집단과의 비교연구를 보면 이미 2007년부터(전경숙, 정기선, 이지혜, 2007) 다문화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차별이나 따돌림경험, 고립 및 소외감이 비(非)다문화청소년들보다 낮고, 자아만족도와 자아존중감도 비교적 높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학교생활 중 학업성취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만 학교 내 사회생활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경숙은 다음 해인 2008년도 연구에서도 학교생활만족도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보다 높고, 가정의 화목도나 부모자녀관계의 경우도 다문화학생이 더 높게 지각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연구로 권순희(2007)의 연구와 양순미(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권순희(2007)의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다문화요인보다는 가정요인이나 경제적 어려움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양순미(2007)는 학교생활적응에서 다문화요인의 영향은 의미가 없고, 또래의 수용이나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 이후 남부현과 김연이(2011)도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비교분석하였는데,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 학업성취도는 다문화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가정·경제적 배경, 학교 및 지역사회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여러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다문화요인보다는 계층요인의 영향을 시사하는 결과들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고 다문화청소년들의 부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각 연구별로 연구대상자인 다문화청소년의 유형 및 특징을 구분하지 않고 ‘다문화’라는 집단으로 묶어서 결과가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앞에서 제시한 ‘다문화청소년의 정의’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집단 내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국내출생자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 등 성장배경에 따라 이들의 발달양상은 매우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 중 다수는 연구대상자가 어떤 유형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용어에 묶어서 결과를 산출한 결과 여러 유형의 특징이 혼재되어 정확한 발달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최근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구한 경우보다는 모든 대상을 포함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초점을 맞추었던 초기 연구와 달리 다문화청소년집단 내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밝혀진 변인들은 주로 부모, 또래관계, 교사 등의 영향들로 일반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가정·경제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II-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연도	논문	연구 방법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05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 32(3), 61-83.	질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의 어머니, 담임교사	언어학습, 정체성, 대인관계	* 국어과목이 취약하고, 문장이해력이 떨어지며,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 국어 외에도 사회문화적 배경이 기초가 되는 사회 과목에 대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고, 교우관계 형성이나 발표 등의 수업참여 정도에서도 매우 소극적 임. * 언어학습과 정체성 형성, 대인관계 형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
2006	안은미 (2006). 농어촌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이나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교사의 지지와 인식이 중요 * 이중문화특성 높을수록 학교적응 잘함
2006	정일선 (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대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의 담임교사	가족관계, 학습능력	*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습성취도가 일반아동들과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교사비율이 67%, 일반아동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라는 응답이 22.4%. * 유치원 아동의 경우 1/3이 학습성취도가 떨어진다고 평가
2007	배은주 (2007). 차별과 동화: 초등학교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생활. 교육비평 , 22, 214-234.	질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담임, 부모, 담당자	학교생활, 갈등	* 학년배정문제: 한국어중심 학년배정의 문제, 나이에 맞지 않는 학년 배정은 학교생활적응의 장애요인(심신발달 고려해야) * 교우관계: 원만한 듯 보이는 소외 * 학업성취: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을 잘 이해, 국어·사회 어려움 * 의사소통: 의사소통 문제가 폭력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기도 * 차별, 따돌림 경험 * 정체성 혼란: 몽골출신 두드러짐, 한국인 아버지가 한국정체성 강요
2007	박은애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연구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의 학부모, 담임	가정생활, 학교생활, 요구사항	* 45.6% 가정형편 어렵다고 인식 * 52.2% 자녀가 대학원 이상 졸업하기를 희망 * 58.7% 방과 후 공부를 사교육에 의존 * 대부분 교우관계 원만 * 좋아하는 과목: 수학, 예체능 * 학교성적: 도시-잘하는 편이다 35.3%, 농촌 못하는 편이다 40.7% * 적극적 학습태도: 도시의 경우, 잘하는 편이다 35.3%, 농촌의 경우, 그렇지 않다 44.4% * 필요한 교육과정: 도시의 경우, 어머니나라문화의 이해 60.8%, 농촌의 경우, 한국어·한글 교육 44.4%

연도	논문	연구 방법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07	전경숙, 정기선, 이지혜 (2007).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 경기: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양, 질, 문헌	다문화 청소년과 교사	다문화 vs 일반, 학교생활, 친구관계, 가정생활, 자존감, 국가관, 미래관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 두 번째가 숙제 어려움 *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나 따돌림 경험, 고립 및 소외감이 일반가정 청소년들보다 오히려 낮고, 자아만족도와 자아존중감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놀림이나 소외, 차별 등 사회적 관계보다는 학업성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함.
2007	최은미 (2007) 이주아동의 학교 경험에 관한 연구 -문화기술지 방법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질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생활, 학교생활	* 이주아동은 학교에서 학업문제(언어, 사회경제적 환경, 가사분담), 교우관계(외국인, 나이 차이), 교사관계(무관심)에서 어려움을 경험 * 스스로를 보호할 대처방법 터득(자조집단, 이웃, 교회)
2007	권순희 (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상담 지도 사례. 국어교육학 연구 , 29(단일호), 127-174.	질	다문화 청소년의 지도 교사, 학부모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개인적	* 다문화가정 자녀 문제는 다문화 요인보다 결손 가정적 요인이나 경제적 어려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교사의 역할 큼
2007	조경서, 유준호, 오승아 (2007).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양육과 교육실태. 유아교육학논집 , 11(3), 5-25.	양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부모	양육, 교육	* 미취학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률 낮음 (비용문제가 주된 이유) * 어린이집, 유치원 어려움: 의사소통, 친구관계 * 미취학 이유: 학교부적응, 불법체류사실 노출 두려움 * 학교 어려움: 학습이해, 친구관계, 숙제·준비물 * 자녀양육 지원요구: 한국어교육,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상담, 경제적 지원
2007	이동찬, 나병현 (2007).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초등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탐색. 한국초등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2007(1), 1-18	질, 문헌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부모	초등교육	* 몽골아동들이 한국초등학교에서 학업을 포기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언어소통곤란 * 정체성 찾지 못해 방향 * 교육적 배려 필요
2007	양순미 (2007). 농촌지역 다문화 가족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 12(4), 559-576.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학교생활 적응, 가족생활 행복	* 학교생활적응: 다문화적 요인 영향 의미 없음 * 학교생활적응, 가족생활행복: 또래수용, 가족의 지지가 중요
2008	홍정미 (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의 어머니	학교생활 적응	*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 자신감,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님과 대화시 언어 불편정도와 어머니의 한국어 불편정도가 낮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수준 높음

연도	논문	연구 방법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08	오연경 (2008). 다문화가족 상담을 위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역할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질	다문화 청소년의 교사	학교생활	* 말하기는 일반 아이들과 다름없이 잘하는 데 반하여 받아쓰기나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경향 * 어머니들이 교사와 교류 회피: 교사로 하여금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언어관련 통합교재개발, 방과후프로그램, 어머니 교육프로그램, 교원자격연수, 시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필요)
2008	전경숙 (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 16, 167-185.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학교생활, 가정생활	* 학교생활만족도: 다문화(일반, 초)중 * 학교생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다문화(일반 (다문화학생의 어려움-공부 따라가기 힘들) * 가정화목도: 다문화(일반 * 부모관계: 다문화(일반
2008	박윤경, 성경희, 조영달 (2008). 초·중등 교사의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태도. 시민교육연구 , 40(3), 1-28.	양	다문화 청소년의 교사	문화 다양성에 대한 태도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태도	* 교사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학생에 대한 수용,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 학생에 대한 배려)
2008	김교정, 정규식 (2008). 다문화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8(11), 272-285.	양, 질	다문화 청소년	출생유형, 학교생활, 대인관계, 경제적상황	* 학년이 높아질수록, 경제수준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음. * 경제수준과 출생유형에 따라 학습활동 수준과 대인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또한 차이 * 다문화청소년 현재문제: 학업수준, 대인관계
2008	김갑성 (2008).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 18, 58-95.	양, 질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상담가	교육실태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언어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회성발달 및 학습 습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 담임과의 거리도 비교적 큰 것 *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과 유지에 관해 학교,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함
2008	조혜영, 서덕희, 권순희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 18, 105-134.	질	다문화 청소년	학업수행	*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에서의 체류연한, 교과목종류, 부모의 지원정도, 지역사회와 학교의 지원 프로그램 유무·참여정도에 따라 학업수행에 다양한 모습보임
2009	이윤호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애착,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의 영향에 관한 연구-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애착, 자아 존중감, 사회적	* 부와의 애착: 일반(다문화, 모와의 애착: 다문화)일반 *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와의 애착, 자존감,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 부와의 애착은 낮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

연도	논문	연구 방법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지, 학교적응	*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애착, 자존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 높음 *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친구지지, 자존감, 가족지지, 교사지지 순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부와의 애착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와의 애착 순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침
2009	조혜영 (2009).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 12(1), 263-295.	질	다문화 청소년의 교사	교사인식	* 학교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지도, 학부모들과 상호작용하는 것 어려움(대부분의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이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며 이로 인하여 교사들과의 교류를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
2009	은선경 (2009).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 33, 37-74.	양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기능	*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학교적응의 수준이 높음 * 가족의 정서적 관여: 학교적응에 조절효과
2009	민가영 (2009). 교육 소외 경험에 대한 트랜스내셔널 비교연구: 이주노동자 자녀와 한국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 11(4), 225-252.	질	외국인 근로자 자녀	다문화 vs 일반(빈곤), 교육소외	* 다문화 자녀가 직면한 교육과정의 한계: 개인적, 법적 자원 결여 * 교육소외 경험이 미래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 다문화 자녀의 경우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를 잃지 않고, 국가이동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일반빈곤층의 경우 미래에 대한 전망 상실, 즉각적 만족감을 선택
2009	오성배 (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 20(3), 305-334.	질	외국인 근로자 자녀, 부모, 담임, 시민단체 종사자	교육실태	* 입학·편입학 기회가 허용되었음에도 학교 진입과정에 많은 어려움 존재(제도의 비일관성, 학교장의 의지·인지 부족, 경제적 어려움) * 입학 후, 수업적응, 동료집단과의 관계 등 문제 * 성취수준 매우 낮음, 인성형성 과정문제 * 경제적 어려움, 단속에 대한 불안감
2010	장덕희, 신호선 (2010).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 17(3), 123-147.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학교부적응	* 경제수준 열악 * 36.6% 또래와의 외모차이 지각 * 수업태도와 친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부적응 정도 완화 * 학교부적응: 한국인(아버지)외국인(아버지, 어머니고출)대출이상, 하류층)중산층 이상, 외모차이가 심하다고 지각할수록 학교부적응 수준이 높음
2010	김선정 (2010).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 및 다문화교육의 추진 방향. 외국어교육연구 , 24(1),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학교관련	* 다문화아동 69.4%(일반55%) 수업 어려워 함 * 다문화아동 수학이 제일 쉽다고 응답(일반은 영어)수학)

연도	논문	연구 방법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1-46.				* 국어과목 보충수업 요구: 다문화)일반 *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일반가정보다 훨씬 큼 * 학교다문화행사: 일반아동이 더 긍정적 * 분리교육 안됨, 인류보편동질성에 바탕을 둔 교육지원정책필요
2010	김흥주, 박길태 (201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특징. 사회과학연구, 49(1), 93-128.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생활실태	*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의사소통, 관계형성 미숙, * 지역사회자원(영화관, 공원, 체육시설, 지역 도서관) 활용 제한적 * 다문화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학업수준 낮게 평가 * 경제수준 차이: 다문화가정 소득지원방안 적극적 모색필요
2010	전푸르나 (2010).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 학교적응	* 학교적응 하위요인 중 학교규범준수: 초등학교 일반)다문화 * 다문화 가정의 학교적응: 자아정체성이 높고, 부모 양육행동이 긍정적이며,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가족응집성이 낮으며,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 * 일반 가정의 학교적응: 부모 양육행동이 긍정적이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으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적응 수준 높음
2010	박솔지 (2010).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자아 존중감, 학습동기, 학교생활 적응	*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강할수록 학교생활적응수준 높음 * 목표지향성 학습동기가 강할수록 학교생활적응수준 높음
2011	남부현, 김연이 (2011).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 성취도 격차 연구. 다문화교육, 2, 19-58.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학업성취도	* 다문화학생 학업 성취도 양극화 * 학업성취도: 국제결혼가정)외국인근로자가정 * 영어교과 성취도: 다문화)일반 * 학업성취도는 학생개인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지역사회 변인의 영향 받음
2011	최성보 (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4(2), 105-130.	질	다문화 청소년과 담임, 교사, 멘토, 부모, 조모	학교생활 적응	* 친구: 소수의 관계 형성, 무시·거부·편견·차별 경험 * 수업: 언어문제, 소극적/산만한 수업태도, * 교사: 대화부족, 교사의 눈치 봄 * 일부는 안정된 친구관계, 적극적 수업태도, 원만한 교사관계 형성
2011	도남희 (2011). 다문화가정 초등 학교 아동의 일상생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Comparative	질	다문화 청소년	가정생활, 학교생활	* 가정생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적지만 가족관계를 잘 이해하고 부모에게 협조적

연도	논문	연구 방법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Korean Studies, 19(1), 161-194.				* 학교생활: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만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즐겁게 생각 * 친구관계와 자기표현 어려움 존재, 학업성취도 높은 경우도 존재
2011	김아영, 김수인 (2011). 여성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 교육심리연구, 25(4), 853-873.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다문화 vs 일반, 학교생활 적응, 자존감, 가족 건강성, 대처행동, 따돌림	* 3~4학년: 일반아동보다 가족건강성, 자존감, 학교생활적응 낮음 * 5~6학년: 일반아동보다 학교생활적응 낮고, 긍정적 대처행동 적음 * 따돌림 피해경험: 다문화>일반
2011	오경화 (201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9), 83-97.	양	다문화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한국문화 수용성	* 학업수행: 한국문화수용성, 공동작업수행력 높을수록 좋음 * 교우관계: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 높을수록 좋음 * 학급분위기: 한국문화수용성, 대인관계, 책임감 높을수록 좋음
2011	김종백, 탁현주 (2011). 교사의 다문화 교육인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10), 161-185.		다문화 청소년과 교사	교사 다문화 인식, 교사-학생 관계, 학교적응	* 교사의 다문화인식이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관계를 촉진할 경우에 한해,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011	정지윤, 문성호 (2011).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8(8), 265-289.	질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학교생활	* 자신을 많은 자원과 강점을 지는 존재로 인식 * 학업에 특별한 어려움 없음 * 친구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 양호, 우호적
2011	전경숙, 송민경 (2011). 다문화 가정 자녀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8(11), 305-330.	양, 문헌	다문화 청소년	출신국적 배경, 한국생활 적응	* 일본출신다문화자녀: 타 국적 출신보다 한국생활 적응 수월 * 몽골출신, 양부모 외국인자녀: 한국생활적응 가장 어려움 * 외모차이가 뚜렷할수록 놀림, 차별, 따돌림경험 많음 * 동남아시아출신: 학교생활보다 가정생활갈등 높음 * 중국출신: 학교생활 어려움 인식 높음
2011	권해수 (2011). 농촌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청소년기 경험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8, 35-72.	질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학교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	* 소규모 학교 재학: 긍정적인 학업적·사회적 정체감 * 대규모학교 재학: 소수집단으로 부정적 정체성 형성

연도	논문	연구 방법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 소규모→대규모 전학: 정체성 혼란 경험 * 면단위: 경제적 형편 열악 * 읍단위: 경제적 여유, 교육적 지원 다양 * 정체성 위기 경험, 불안감이 핵심 정서 → 진로정체성에 영향(안정적 진로선택)
2011	김연이 (2011). 일반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경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학업 성취도, 학생변인, 사회문화적 변인, 언어적 변인	* 언어의 영향이 적은 수학교과와 격차가 가장 작음(독일과 한국) * 60점 미만의 점수: 다문화(평균15%)>일반(평균2%) * 학업성취도: 여학생>남학생, 국내출생>국외출생, 사교육 경험>사교육 미경험 *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학업성취도 높음 *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4개 교과에서 학업성취 높음
2011	홍범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실태와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개인적 배경, 가정적인 배경, 생활인식, 학교폭력, 소외감	* 선생님과 학교생활, 다른 어른들과의 생활, 가족과의 생활에서 적응을 잘 못할수록 학교폭력경험 증가 * 선생님과 학교생활, 친구생활, 다른 어른들과의 생활에서 적응을 못할수록 소외감 증가 * 한국어교재 이해도가 낮을수록 학교폭력 경험, 소외감 증가 * 피부색에 대한 이질감을 느낄수록 학교폭력 경험, 소외감 증가 * 학교폭력, 소외감은 여학생 많음, 고학년일수록 학교폭력증가
2012	천호성, 박계숙 (2012).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다문화, 2(2), 416-444.	질	다문화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 문제요소: 낮은 자존감, 공격적 성향, 가정환경 * 칭찬에 긍정적 * 다문화 아동의 언어, 대화능력은 학교생활에 문제없음 * 따라서, 체계적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지원 필요
2012	김영신, 신철균, 김현진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25(2), 161-185.	양	다문화 청소년	학교적응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남학생: 교우관계>부모관계>교사관계 * 여학생: 교사관계 * 4학년: 부모관계, 교사관계 * 5~6학년: 교사관계 * 학년 올라갈수록 개인의 잠재능력의 영향 증가
2012	김수희, 전성희 (2012). 다문화 가정 자녀의 다문화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아동가족치료연구, 10, 53-67.	양	다문화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어머니 고향, 어머니 한국어	*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어머니 고향, 어머니의 한국어실력, 모-아동 언어이해 수준, 아동의 한국어 실력 아동의 외모인식

연도	논문	연구 방법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2	최윤미, 임성택 (201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 5(2), 15-26.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스트레스, 학교적응	* 다문화(일반): 가정환경 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 다문화(일반): 학교흥미 학교규범 수준 * 다문화-일반 모두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학교적응 수준 감소
2013	황정은, 이훈희 (2013). 학교생활에 대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식유형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 41, 225-249.	양, 질	다문화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주관적 인식	* 분류: 차별경험 없는 긍정형, 차별경험과 극복 형, 차별경험과 부적응형
2013	권보근 (2014).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문화 예비학교와 정규 학교에서의 적응 사례 연구 .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질	중도입국 청소년	예비학교, 정규학교, 사례연구	* 예비학교는 공교육진입 전 초기 적응 교육기관으로 같은 상황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선생님께 지지를 얻고, 한국어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기도 하나 학교나 학습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정체성 혼란을 느껴 본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려고도 함 * 정규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은 적극적 참여형, 소극적 참여형, 소극적 순응형, 적극적 불참형 유형으로 나뉨
2013	김혜미, 문혜진 (2013).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과 비다문화 가정(한국인 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사회복지학 , 65(4), 7-31.	양	다문화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자아탄력성, 부모특성	* 개인·가족특성, 양육방식 통제하면 다문화 가정 변인은 학교생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 * 학교생활적응은 자아탄력성과, 긍정적 양육방식이 주요요인으로 작용
2013	Jiang, hailan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과 개인, 가족, 학교 요인간의 관계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우울, 공격성,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 개인요인: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공격성 증가 * 여학생의 경우 또래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우울, 공격성 증가 * 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또래관계가 좋지 않으며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증가 *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공격성 증가
2013	윤성훈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관계 스트레스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한국글로벌문화학회지 , 4(2), 23-43.	양	다문화 청소년	학교관계 스트레스, 범죄두려움	* 학교관계 스트레스와 낮은 범죄두려움은 정적관계
2013	백지숙, 김진, 유영하 (2013). 전 남지역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 인구배경학적 요인, 개인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 11(4), 157- 170.	양	다문화 청소년	학교적응 유연성	* 학교적응유연성: 교사(지지)자존감)의사소통)문화적응스트레스

연도	논문	연구 방법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3	선남이 (2013).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사회적 배제, 학교학업 적응, 학교사회 적응, 학교생활 적응	* 학교생활적응: 성별(여)남),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낮고, 자녀의 한국어실력이 좋으며, 건강하고, 가족관계만족도가 높고, 한국인정 체성 중 대중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자신의 공간이 있을 때 학교생활적응 수준 높음
2013	김시은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가정환경 요인, 학교생활 적응	*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을수록 교사와의 관계 좋음 *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교유관계 좋음 *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을수록 수업태도 좋음
2014	김민아, 이재희, 라미영, 김기현 (2014). 서비스 제공자가 인식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적응 어려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9), 147-175.	질	중도입국 청소년	서비스 제공자가 지각한 중도입국 학생들의 학교적응	* 언어소통, 학업수행, 부모관심부족, 이주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또래갈등, 교사인식부족, 학교진입 어려움,
2014	김영은 (2014).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경험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 윤리교육연구, 33, 53-81.	문헌	다문화 청소년	학교생활 경험	* 거시적 사회구조, 사회문화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교육필요 * 편견, 고정관념, 다문화청소년을 단일집단으로 일반화 → 시각전환필요
2014	김영봉 (2014).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역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인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학교생활 적응, 양육태도	*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 일반)다문화 *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 학교규칙, 친구관계): 일반)다문화 *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학대, 방치인 경우 자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에 부정적 영향
2014	박희훈, 오성배 (2014).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35-57.	양	다문화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적응 평균 감소, 일반가정과 차이 증가 → 가정배경 통제 후에도 차이 존재
2014	조남예 (2014).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 :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 두 집단 모두 사회적지지가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 높음,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 높음 * 학교생활적응수준: 두 집단 여학생)남학생 * 다문화 가정 아동: 친구, 선생님, 어머니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수준 높음 * 일반 가정 아동: 친구, 어머니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수준 높음

연도	논문	연구 방법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4	김정민 (2014).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다문화 대안학교 학습경험 탐색.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질	중도입국 청소년	내러티브 인터뷰, 대안학교 학습경험	* 대안학교 선택의 이유는 고교학력인정 정규 교육기관으로서 일반 교육과정과 기술교육 동시 실시 때문 * 한국어 실력과 소통능력의 한계로 인해 교과 학습에 부담이 되기도 하나 학습 경험과정이 인간관계형성 및 일상적 사회생활 적응 등에 동기부여 요인이 되기도 함 * 교육과정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전문교과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음 * 대학진학을 희망하나 학비부담으로 인해 학비 마련 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미래 계획과 포부를 갖고 있음
2014	신미정 (2014). 다문화가정 부모 교육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적응의 관계 : 경기남부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 부모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와 어머니	부모교육, 생애주기별 참여시간, 학교적응,	* 임신 · 신생아기 부모교육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도 좋음, (학습활동, 교사관계에서 적응 좋음) * 아동기 부모참여시간 많을수록 학교적응 좋음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좋음) * 어머니가 부모교육 중 부모성장이 도움이 된다고 느낄수록 자녀의 교육관계 적응도 높음 * 부모관계증진이 도움 된다고 느낄수록 학교규칙 적응도 높음
2015	이애련 (2015). 한국의 다문화 가정자녀의 학교부적응 및 폭력문제 해결방안에 일본의 다문화정책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2), 111-142.	질	다문화 청소년	학교부적응	* 학교부적응: 신체적,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문제 * 학교문제: 폭력따돌림, 교사방관, 분리수업
2015	신미정, 이봉민 (2015).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참여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의 관계. 미래 청소년학회지, 12(1), 1-24.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부모교육, 학교적응	* 임신, 신생아기, 아동기의 부모교육과 부모의 성장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
2015	오정아, 김영희 (2015). 부모의 갈등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인식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남녀 청소년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6), 205-231.	양	다문화 청소년	부모갈등, 양육행동, 학교적응, 자아인식	* 부모갈등: 긍정적양육행동, 자아인식 감소, * 부정적양육: 자아인식 향상 * 모긍정적양육: 학교적응 향상
2015	배장오, 진서현 (2015).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교육성취욕구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421-434.	양	다문화 청소년	교육성취 욕구 수준	* 교육성취욕구 : 남학생(여학생, 학년이 증가할수록 증가, 아버지학력 높을수록 증가

연도	논문	연구 방법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5	김민경, 김희영 (2015).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부모와의 관계, 대처전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i>한국가족복지학</i> , 20(2), 367-385.	양	다문화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 학교생활적응 부적상관 변인 : 불안, 우울, 스트레스, 폐쇄의사소통, 사회적지지 추구, 문제해결중심대처전략 * 학교생활적응 정적상관 변인 : 개방의사소통, 회피적 대처전략
2015	김순복 (2015).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교사와의 관계성이 학교생활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i>한일장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i> .	양	다문화 청소년	친구·교사와의 관계성, 학교생활 적응, 유연성	* 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유연성 높음 * 고학년일수록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좋음 * 교사와의 관계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유연성이 높음
2015	한성희 (2015).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i>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i> .	양	다문화 청소년	부모양육 방식, 학교생활 적응, 삶의 만족도, 탄력성	* 삶의 만족도: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높은 학교 생활적응 수준(학교적응, 대인관계)에 영향 * 긍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탄력성이 부분 매개 *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탄력성이 완전 매개 *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는 탄력성이 부분 매개
2016	이덕희 (2016). 다문화청소년들의 스트레스대처,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태도 간의 인과관계 분석. <i>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i> , 16(3), 760-770.	양	다문화 청소년	스트레스, 학업태도	* 스트레스와 부적상관 변인: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안녕감 * 학업태도와 정적상관 변인: 사회적지원,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안녕감
2016	김예성, 오승환 (2016).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i>청소년복지연구</i> , 18(3), 75-98.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교육포부	* 교육포부 : 여성(남성, 지방(도시), 주관적 경제수준, 부모학력, 한국어실력 높을수록, 공부고민, 사회복지시설·교육지원 경험 많을수록, 부모자녀관계 좋을수록, 연령, 우울 낮을수록 큼
2016	김민지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규학교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 다문화 예비학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i>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i> .	질	중도입국 청소년	학교적응, 내러티브 탐구	* 정규학교 진학 전 징검다리로서의 예비학교의 기능은 한국어능력 향상, 정서적 안정감 회복, 흥미와 재능 발견, 진로이해 등이 적절히 작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정규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예비학교를 거치지 않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정규학교적응에 필요한 예비학교 기대역할에 대해 고찰
2016	임우영 (2016).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에 관한 연구 : 학교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i>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i> .	질	중도입국 청소년, 다문화관련 전문가	한국정착	* 한국에 입국하기 전 충분한 정보가 없어 심리정서적으로 많은 혼란경험→혼란해소를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최우선 * 학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수준 높지만 한국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혼란상태, 한국적응위한 교육 필요

연도	논문	연구 방법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 가정형편이 대체로 열악, 자녀양육이 어려운 환경→부모를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이주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고독감, 인터넷 및 핸드폰 중독 감소 방안→다문화를 이해하는 선생님필요 * 안정적으로 학교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 시급
2016	이성령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중학교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질적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질	중도입국 청소년	학교적응	* 의사소통의 어려움, 학교생활적응, 대인관계의 적응이 주요 문제상황 * 다문화 특별학급에서의 학교적응과정은 언어 생활 적응과 문화 차이 적응, 대인관계의 적응 필요 * 일반 학급에서의 적응은 언어의 적응, 문화 차이의 극복, 대인관계의 적응 필요
2017	최옥주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부모관계와 대처전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충주캠퍼스 박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차별경험, 우울	* 지난 1년 동안 22.2%가 1회 이상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 * 우울: 여학생)남학생,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수준 높음 * 지난 1년간 31.0%가 학교폭력 및 사회적 차별을 경험(일반학생 2.2% 경험) * 사회적 차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할수록 우울 높음 * 부모관계 및 대처 전략은 위험요인과 우울간의 관계 조절 역할을 하지 못함
2017	서보준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부부갈등,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학교생활 적응	* 학교생활적응: 부부갈등빈도 낮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문제형 의사소통, 자아탄력성(대인관계, 호기심, 낙관성,)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높을수록 *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는 부모 부부갈등,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영향관계에만 매개
2017	최효인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보호요인의 효과: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종교생활 및 다문화 교육.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종교생활, 다문화 교육	* 위험요인(정서불안, 정체성혼란, 부모의 지시적 양육태도, 가족갈등, 집단 따돌림, 학습부진)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 감소 * 보호요인(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종교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수준 증가 * 위험요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매개 효과를 보여 보호요인으로 작용 * 위험요인과 학교생활적응간 관계에서 환경적 보호 요인(종교생활, 다문화 교육 경험)이 조절효과 보임

2)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두 번째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두 개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었다. 이 연구들도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크게 다문화집단과 비(非)다문화집단을 비교분석한 연구와 다문화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로 나뉘어진다. 집단 간 비교를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 당시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심리·사회적응 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심우엽(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지지가 낮고, 자존감도 낮으며, 우울수준은 높고, 학교 교과성적도 다문화청소년집단이 더 낮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남윤주와 이숙(2009)의 연구에서도 한국인부모의 자녀가 다문화집단보다 신뢰감, 의사소통, 애착 등이 높고, 소외감이 낮으며 자아개념이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점차 다문화집단과 비(非)다문화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박주희와 남지숙(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및 심리·사회적 발달수준이 비(非)다문화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양식에서도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 간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나타났으며(이지영,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는 중간값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비교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서정림, 2010). 또한 김태미와 최인려(2011)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전경숙(2008)의 연구에서와 같이 다문화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비(非)다문화청소년보다 높고, 신체만족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혜(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간에 자아존중감 차이는 없었으며 친구관련 자아는 다문화청소년이 오히려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김미영(2013)의 연구 역시 학교적응도에서 다문화와 비(非)다문화집단간의 차이가 없고, 자존감, 우울정도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분석한 신재현(2017)의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의 학습활동, 주의집중, 사회적 위축 등의 변인을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심리·사회적응과 관련해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보다 객관적인 방향의 결과들이 산출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다문화청소년집단 내의 변인들끼리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학교적응과 마찬가지로 주로 학교, 가족, 친구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일반적인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다만, 심리·사회적응에 대한 연구 역시 조사대상집단을 명확히 정의하여 제시하지 않은 연구들이 다수라는 점을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II-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2007	이영주 (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 12(2), 83-105.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심리사회 적응 보호요인	* 자녀의 학습이해력 저하, 학교과제 수행시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고학년이 될수록 어휘력 부족, 이해력 부족 등으로 인한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는 것 * 중요 보호요인: 친구, 학교, 가족 요인이 중요(그 외: 문화, 주변인도움, 신앙, 교사 관련요인)
2008	이영주 (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 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 13 (1), 79-101.	양	다문화 청소년	위험요인, 보호요인	* 발달장애나 학습장애의 어려움을 보고 * 보호요인, 위험요인의 영향: 저학년>고학년 * 보호요인의 영향: 여>남 * 생활수준 낮을수록 위험요인 많이 노출 * 농촌: 학습문제, 소외상실 경험
2009	심우엽 (2009). 다문화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 22(4), 27-47.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민족의식, 정서적 특성, 교과성적	* 일반아동은 단일민족 사상이 강함, 다문화 아동은 한국인 민족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 다문화 아동: 사회적지지, 자존감 낮고, 우울 높음 * 공격성향: 다문화-일반 차이 없음 * 교과성적: 일반>다문화
2009	남윤주, 이숙 (2009). 다문화 가족과 한국인 부모 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 20(3), 357-367.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애착, 자아개념, 스트레스	* 한국인 부모의 자녀가 다문화가족의 아동보다 신뢰감, 의사소통, 애착에 대한 지각은 높고, 소외감은 낮음 * 자아개념: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 * 한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에 비해 학업과 교사관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낌 * 다문화가족 자녀는 한국인 가족 아동보다 우울을 더 높게 지각
2009	이영주 (200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 14(2), 103-119.	양	다문화 청소년	한국인 정체감, 심리사회 적응	*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인정체감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에는 유의미한 차이 없음 * 주변인들이 다문화청소년을 한국인으로 느끼는지 여부: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 * 자존감 및 개인적 요인이 심리사회적응에 영향
2010	박주희, 남지숙 (2010). 다문	양	다문화	다문화	*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및 심리사회적 발달수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 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 연구, 21(2), 129-152.		청소년	vs 일반, 언어능력, 사회 문화적 적응	준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고
2010	이지영 (2010).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양식, 가족응집력,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다문화가정과 일문화가정의 비교-.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가족 응집력, 스트레스, 외톨이 성향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외톨이 성향 수준은 낮음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 수준: 다문화-일반 차이 없음
2010	서경림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거주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개인적 요인, 가족요인, 사회적 요인, 다문화적 특성요인, 내재화 문제	*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는 중간값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비교적 심각하지 않음 * 내재화문제: 고학년)저학년 * 부부갈등이 낮고, 경제적 수준이 높으며, 부모-자녀유대 관계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적용 * 또래지지, 교사지지가 높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 적음 * 또래지지가 낮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으며 학업성취수준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모-자녀 관계에서 자녀에게 정서적 냉정함과 무관심을 보이고, 교사지지가 낮을수록 내재화문제 많음
2011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심리사회 적응 스트레스	* 다문화 아동이 경험하는 불충분한 교육지원, 차별경험, 또래관계 문제가 스트레스를 매개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2011	서진희 (201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비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불안, 우울, 자존감	* 불안, 우울: 다문화)일반 * 자존감: 일반)다문화 * 불안: 일반은 경제수준, 아버지직업, 다문화 어머니 연령, 부모학력,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 * 우울: 일반은 아버지 직업, 다문화는 부모학력, 경제수준, 부모직업에 따라 차이 * 자존감: 일반은 학년, 경제수준, 부모학력, 다문화는 학년, 어머니학력,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 * 불안과 우울이 높을수록 자존감 낮음, 불안이 높을수록 우울 높음
2011	김태미, 최인려 (201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3), 69-80.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자존감, 신체 만족도	* 자존감, 신체만족도: 다문화)일반 * 자존감은 신체만족도에 정적영향
2012	변은주, 김홍식 (2012). 다문	양	다문화	다문화	* 내적통제소재: 다문화)일반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사회적지지 및 가족기능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 20(1), 129-139.		청소년	vs 일반, 통제소재,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 외적통제소재: 다문화<일반 * 가족지지: 다문화<일반 * 가족기능 중 응집성, 유연성: 다문화<일반
2012	김지혜 (2012). 중고등학교학령기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연구. 한국글로벌문화학회지 , 2(2), 72-100.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자존감	* 자존감: 다문화-일반 차이 없음 * 친구관련자아 : 다문화<일반 * 자존감 영향 변인: 교사와의 관계, 부모국적
2012	최윤경 (2012). 다문화아동 발달 실태 및 유형화. 육아정책포럼 , 30(5·6월호), 27-39.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외국인 근로자 가정자녀	전반적 발달실태	* 모든 영역에서 발달 부진을 보이는 지연 아동 1/4 * 사회정서 및 신체발달이 좋은 아동 1/6 * 모든 영역에서 발달수준이 양호, 특히 언어·인지영역에서 우수한 아동 1/2 이상 * 가구소득 많을수록 언어관련 점수 높아 * 모학력 높아질수록 친사회행동 ↑, 문제행동 ↓
2012	이윤정, 이정임, 유희, 정재은 (2012).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 25(4), 149-167.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자존감, 신체 이미지	* 자존감 - 여아: 일반>다문화 - 남아, 고학년 여아: 다문화-일반 차이 없음 * 신체이미지 - 저학년 여아/남아 만족도: 일반>다문화 - 고학년 남아 만족도: 일반>다문화(체형) * 자존감-신체이미지 상관 - 다문화고학년여아: 자존감과 신체이미지 간 높은 상관
2012	최운선 (2012). 한·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민족 정체감, 차별경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 17(2), 49-71.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한일 다문화, 문제행동, 한국어 실력, 자존감	* 한일 다문화청소년: 문제행동 수준 대체로 높지 않음, (우울/불안 높음, 공격성 낮음) * 문제행동 수준: 한국어실력, 자존감과 부적상관, 차별경험과 정적상관
2012	남영옥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30(4), 37-47.	양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응, 자존감, 성인지지, 부부관계, 집단 괴롭힘	* 사회적 적응 영향변인: 성인의 지지(제일 중요), 자존감, 부부관계, 집단괴롭힘
2013	김미영 (2013).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간의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학교적응, 자존감, 우울, 불안	* 학교적응 정도에서 다문화와 일반간의 유의한 차이 없음(모든 영역의 평균값: 다문화<일반) * 자존감 유의한 차이 없음, 4학년의 경우 유의미하게 높음 * 우울정도도 유의한 차이 없음, 학년간 우울정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 평균값이 일반 평균값보다 높은 하위영역이 증가 * 학교적응: 자존감(+), 우울·불안(-)
2013	강유임, 김병석 (2013). 다문	양	다문화	모애착	* 모애착 → 부정적 대처기제 → 심리사회적응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화가정 아동의 모애착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정적 대처기제의 중재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1), 19-42.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정적 대처기제	* 모애착 → 문화적응스트레스 → 심리사회적응
2013	정문경 (2013).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역량지각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회적지지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소진, 사회적 유능감	* 외모, 바른 행동, 원만한 친구관계 : 여)남 * 외모관심: 저학년<고학년 * 성적 높을수록: 생활태도, 심리적 안녕감, 주도성, 온정성, 자율성, 개방성 높음 * 심리적 소진: (중국)미국>일본 * 개방성: 베트남)미국>일본>중국
2013	김수미, 정경은 (2013). 다문화청소년의 낙인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34, 27-49.	질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낙인경험	* 오해와 편견, 불편한 시선과 심리적 위축, 이방인이라는 이질감, 사회적 배제와 고립
2013	강지현, 여태철, 김재철, 김지현, 임진영 (2013).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성 비교. 교육문화연구, 19(2), 31-62.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문제행동, 역량	* 교사가 지각한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 다문화-일반 차이 없음 * 아동이 지각한 역량: 다문화<일반
2014	정희정, 김소연 (2014).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 상담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4), 831-853.	질	중도입국	사회연결망	* 중도입국 청소년은 기존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 분리, 새로운 사회로 진입과정에서 소외감 * 중도입국 자녀의 초기 사회연결망은 부모의 사회연결망과 거의 일치→제한적, 지원체계 필요
2014	강지은 (2014). 부, 모, 교사 애착이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은폐 및 자기낙인에 미치는 영향 :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의 비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애착, 사회적지지, 자기은폐, 자기낙인	* 부·모·교사 애착: 사회적지지 정적효과, 자기은폐, 자기낙인 부적효과 * 부·모·교사 애착, 사회적지지: 다문화<일반 * 자기낙인: 다문화>일반 * 다문화학생: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부·모·교사 애착 높음, 자기은폐, 자기낙인 적음
2014	김기호 (2014). 이주배경 청소년의 부적응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 현상학 방법의 행동과학적 변환을 통한 접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질	중도입국	한국생활 적응	* 친구관계는 간접경험을 통해 영향을 미침 * 교사의 태도는 연구 참여자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촉매작용을 함 * 체류기간이 6개월~1년 정도 경과하면 언어의 구사능력은 적응에 주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 * 한국의 정규고등학교나 일반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적응에 많은 영향
2015	염효진 (2015). 모-자 정서	양	다문화	다문화	*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적 상호작용 및 아동의 자 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서울여자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청소년	vs 일반, 자존감, 사회적 유능성, 정서	적 정서 높고 사회적 유능성 낮음 *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다문화(일반) * 아동의 자존감, 사회적 유능성: 다문화(일반)
2015	김건숙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또 래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 신뢰감의 매개효과. 전주대 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외모 만족도, 자기 신뢰감, 낙관성 또래 친밀감	* 외모만족도가 또래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자기신뢰감의 매개효과가 낙관성 수준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낙관성 고집단에서만 지 지, 일반-다문화 공통)
2015	정문경 (2015). 다문화청소 년의 자아탄력성이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학연구, 22(11), 137-162.	양	다문화 청소년	자아 탄력성, 정신건강	* 정신건강 : 자아탄력성 중 호기심, 낙관성 높으 면 정신건강 나쁨 정적영향 큼, 친구관계와 감 정 통제 좋으면 정신건강 좋음
2015	오승환, 좌현숙 (2015). 중도 입국 청소년과 일반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학교 사회복지, 32, 385-412.	양	중도입국 청소년,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중도입국 vs 일반 vs 다문화	*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연령, 형제자매만족 높을 수록, 부모나라관심, 학교폭력 경험 많을수록, 사회적차별경험인식 높을수록, 어머니관계만족, 부모나라자긍심, 부모님나라언어능력 낮을수록 * 중도입국: 부모나라자긍심, 사회적차별경험인식 높음, 아버지관계만족, 한국어사용능력 낮음.
2015	오은영 (2015).다문화청소년 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 한 학교적응 방안 연구. 공 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질	다문화 청소년	자존감, 다문화 교육	*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원성을 인정하는 다문 화주의적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함 *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 램을 제안 함
2015	김석준 (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이 차별경험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아세아연구, 58(3), 6-41.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차별경험	* 차별경험에 영향: 인구사회학적으로인, 한국어능 력 낮고, 학교폭력경험 높음
2015	천화영, 이미란 (2015). 다문 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의 유형화. 한국영유아보육 학, 95, 1-24.	양	다문화 청소년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 유형화	* 1군집: 가구소득, 성적, 교우관계 수준 낮음 * 2군집: 가구소득, 성적, 교우관계 수준 높음 * 3군집: 자존감 높고, 부모의 방임 학대 수준 낮음
2016	고명주 (2016). 다문화 아동	양	다문화	사회적	*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도 높아짐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	지지, 사회적 유능성	* 사교성: 동질집단 친구, 가족, 교사지지 * 대인적응성: 동일집단 친구, 동일집단 지역주민, 가족, 교사지지 * 사회참여도: 동질집단 친구, 가족, 교사지지 * 주도성: 가족지지 * 인기도: 가족, 교사지지
2017	신예진 (2017).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 차별, 우울,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성	*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 *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 *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정체성이 매개
2017	신재현 (2017). 통합교육 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활동 및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통합교육연구, 12(1), 53-74.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사회정서 발달	* 학습활동, 주의집중, 사회적 위축: 일반과 차이 없음

3)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자아정체성’의 개념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해당하는 정체성과 자아개념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정체성, 또는 다문화정체성에 대한 연구이다. 두 가지 접근 모두 틀린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의 자아정체성 요인에서 다문화청소년이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다르다고 가정할 근거는 없다.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 문제는 정체성의 여러 영역 중 국가정체성, 민족정체성, 한국인정체성, 이중정체성 등이 주요 이슈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총 12개의 논문 중 약 4개 정도는 일반적인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황윤미, 2012; 전영희, 2012; 최재은, 2012; 박지우·장재홍, 2014). 이들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자아정체성의 측면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보다 높다, 낮다, 자아개념에서 일반청소년들과 차이가 없다, 또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 모의 한국어실력, 사회적지지, 학업동기, 외모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등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인정체성, 국가정체성, 민족정체성 또는 이중문화정체성 등의 방향에서 정체성을 다룬 연구들은 연구방법에서 다른 영역의 연구에 비해 어떤 특징을 보인다. 앞의 심리·사회적응

의 경우 대부분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 민족정체성 또는 한국인정체성 주제는 질적연구방법이 대부분이다. 이는 아마도 주제 자체가 단순한 설문지로 현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고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해서는 질적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나 또는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이 정체성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국가정체성, 민족정체성 또는 이중문화정체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내용적으로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기는 하나 한국인정체성을 지니기 보다는 혼종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결과(김기현, 이재희, 홍혜미, 2013) 또는 완전한 한국인정체성을 지니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결과(박선웅, 우현정, 2013)들이 있고,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진석, 2014) 등이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서구 다문화사회의 연구결과에서는 민족정체성이 청소년의 심리적응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에서는 정체성이 어떠한 기제로 작용하는지 집단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4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2012	황윤미 (201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정서·행동특성 비교.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다문화 vs 일반, 자아정체감, 정서·행동 특성	* 자아정체감: 다문화(일반) * 내재화(불안, 위축): 다문화(일반) * 다문화청소년 24.7% 준 임상범위에 해당 * 자아정체감 높으면 정서·행동 특성 낮게 나타남
2012	전영희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 19(2), 277-293.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자아개념, 정서·행동문제	* 자아개념: 일반과 차이 없음 * 정서·행동문제: 위축, 신체증상, 사회적 비성숙, 사고영역에서 어려움
2012	최재은 (201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유아의 자아개념과 보육시설적응 비교. 충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시설 담임교사	다문화 vs 일반, 자아개념, 보육시설 적응	* 자아개념: 다문화(일반) *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다문화(일반) * 보육시설 적응(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못함): 다문화(일반)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2012	박선웅, 우현정 (201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847-865.	질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외국인 노동자 가정	사회문화 적응, 유형화	* 특별한 한국인: 한국이주를 발전기회로 생각, 한국인과 다른 특별한 존재감,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 미완의 한국인: 동화이지 강함, 한국문화 적극 수용, 모국문화 망각 방지 * 국적 없는 한국인: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인식, 공식적으로 보호받지 못함, 미래에 대한 막막함. * 가짜 한국인: 이주를 발전의 기회로 여기지 않음, 주류사회 편입을 희망하나 주변부 배회, 자신의 다름을 숨김
2013	김기현, 이재희, 홍혜미 (2013). 결혼 이주 가정 및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 탐색과 형성. 사회복지연구 , 44(1), 165-192.	질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중도 입국	자기 정체성, 민족 정체성	* 대다수 참여자들이 혼성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낌 하지만 어머니 나라 문화 경험은 제한적.
2014	이진석 (2014). 다문화 가정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시민성 탐색. 시민교육연구 , 46(4), 79-105.	질	중도 입국	차별경험, 정체성, 공동체 의식,	* 차별편견경험, 정체성 위기 겪음, 한국에 대한 애정 높음, 공동체 의식 강함
2014	박상현 (2014). 중도입국청소년의 자기인식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질	중도 입국	심층면접 기법, 자기인식, 자아 정체성	*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부모상황변화에 종속, 정주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선이주자인 부모에 비해 약함 * 부모의 체류 상황이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이주노동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인식 * 이주경험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과 국민·국가 정체성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2014	박진우, 장재홍 (2014).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심리적인 요인. 청소년학연구 , 21(4), 133-154.	양	다문화 청소년	자아 정체성	* 자아정체성: 경제적 수준, 모의 한국어실력, 사회적 지지, 학업동기, 외모만족도와 정적 상관
2015	백승대, 안태준 (2015). 대구와 경북 지역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국민정체성 비교 연구. 지역사회연구 , 23(3), 27-47.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국민의 자격 한국에 대한 태도	* 한국애착: 다문화>일반 * 한국국민자격 조건, 자랑스러운 한국 조건: 다문화-일반 차이 없음

4) 진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갖는 영역이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점차 대학, 사회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진로격차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영역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다문화집단과 비(非)다문화집단과의 비교, 두 번째는 다문화집단청소년들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번째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다. 우선 첫 번째 범주인 다문화집단과 일반집단을 비교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진로계획과 진로발달, 직업이해 및 진로탐색 등에서 다문화청소년보다 비(非)다문화청소년들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결과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부모의 영향이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도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비(非)다문화청소년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모든 다문화청소년들이 일률적으로 진로발달에서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대다수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대다수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이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낮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진로격차를 발생시킨다면 그것은 추후 사회통합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필요한데,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문화청소년집단 내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사회적지지와 같은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지지집단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윤아름(2013)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소영(201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종선(201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의식 및 태도에 사회적지지, 특히 부모요인이 중요함을 나타내었다. 진로와 관련된 연구의 또 다른 방향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들(오성배, 서덕희, 2012; 박혜연, 2016), 이들 연구는 주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진로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낮은 환경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과 정보의 부족, 언어의 장벽 등은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진로의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II-5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선행연구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2011	조봉환 (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흥미와 진로발달. 진로교육연구 , 24(2), 219-245.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학습흥미, 진로발달	* 학업·직업탐색, 진로계획, 진로발달: 다문화<일반 * 학습흥미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다문화<일반
2011	김효영 (201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부모애착, 자아개념, 진로성숙	* 부모 애착: 일반>다문화 * 부모와 의사소통수준: 일반>다문화 * 부모애착 수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높음 * 일반가정 아동은 부모애착이 진로의식 성숙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자아개념이 매개
2012	오성배, 서덕희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 60(2), 517-552.	질	중도입국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	* 낮은환경 적응문제로 진로에 대한 고민 보류 * 정보부족, 교사의 이해부족, 부모의 시간·관심부족 * 거주지역이 진로의식수준에 영향
2012	이유경, 류재윤, 방홍복 (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 19(2), 129-154.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	*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는 자녀의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영향력의 차이: 다문화<일반
2013	유소영 (2013).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다문화 중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간에 서로 유의미한 정적상관 *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포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높음 * 선생님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포부 높음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포부 높음
2013	이지민 (201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관계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인식과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애착,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진로의사결정 수준	* 진로장벽인식(다문화):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 아버지 애착, 자기효능감 높을수록 진로장벽인식 감소 * 진로의사결정 수준: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정적 영향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2013	윤아름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자아 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성숙도	* 진로성숙도: 성별, 학년별 *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들은 모두 정적 상관 *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변인
2015	김종선 (201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진로성숙도	* 진로의사결정에서 문제의논을 부모와 함께 하는 집단이 혼자 하는 집단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 * 여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대비가 훨씬 체계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계획성 높음 *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영향
2015	유비, 김기현 (2015). 한국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한국인 부모가정)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7(1), 5-29.	양	중도입국	중도입국 vs 일반 진로 정체감, 차별, 우울, 자존감	* 중도입국청소년은 비(非)빈곤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이 높고 자존감 낮음 *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우울, 자존감, 차별에 영향 받음
2016	김혜정 (2016).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질	다문화 청소년	부모지지 수준, 진로성숙도	* 진로선택 및 결정에 아버지의 영향 큼 * 아버지의 지지 수준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님 * 아버지의 지지 수준 높을수록 아버지와 수평적·상호적 의사소통, 진로선택과 결정시 능동적, 자발적이며 진로성숙도가 높음, * 의사소통방식이 강요에 가까운 경우 진로성숙도 낮음 * 아버지의 지지수준과 진로성숙도 정도에 따라 진로성숙도 유형을 합리형, 의존형, 직관형, 흥미형으로 구분
2016	박혜연 (2016). 다문화 대안학교 청소년의 진로선택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질	대안학교 졸업생	대안학교, 진로선택 과정	* 가정에서의 결핍, 사회에서의 부적응, 문화차이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자신감 낮고, 사회적응에 어려움 경험 * 일반학교에서의 학업 및 교유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이유로 대안학교 선택 * 한국어 교육에 중점, 학생들 간의 수준차이로 인해 만족도 높지 않으나 전반적 교육과정 만족도 높음 * 진로정보 부족, 학교를 통해서 정보 획득, 체류자격에 따라 진로 탐색 태도가 다름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2016	최선애, 김혜원 (2016).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성과에 관한 연구. <i>교육정책연구</i> , 3, 100-142.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진로활동 만족도, 진로개발 역량	* 진로개발역량 중 직업이해와 진로탐색: 일반>다문화 * 관리자가 인식하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이나 예산, 조직지원 수준이 일반학생에게는 긍정적인 영향, 다문화학생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음 * 다문화학생의 학교 진로활동경험은 학생 진로교육 성과에 긍정적 *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빈도가 많을수록 진로개발역량 증가, 부모님의 학교 내외의 진로활동 참여가 진로교육 성과에 긍정적 영향

5) 문화적응

문화적응의 주제는 사실상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 주제로, 실제 연구도 대부분 외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연구의 방법들이 양적연구보다는 질적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사례가 많다.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주노동자 자녀 및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 현황과 이들의 적응을 저해하는 요소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하나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시작된 초기 당시에 많이 이루어진 연구주제이다. 특히 초기의 연구들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과 언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박혜준, 2008), 불법체류자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노동시장으로 조기에 진입하는 일도 빈번하다는 결과(정가영, 2008),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는 어려움(김석기, 2008), 신분상의 불안정성과 주변사람들의 시선 등이 청소년의 통합을 저해한다(이민정, 김경근, 2009)는 등의 내용이다.

또 다른 연구의 방향은 이주노동자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유형 등을 다룬 연구들인데, 예를 들면 노충래와 홍진주(2006)의 연구는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조사대상자 중 상당수는 한국과 몽골문화 모두에 대해 잘 적응하고 있고, 심리·사회적응상태가 양호하지만, 조사대상자의 57%가 한국사회에서 차별경험을 하였고, 70.1%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험이 없으며, 30%는 한국의 정규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으로써

받아야 할 교육 및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주었다. 남효진(2007) 역시 몽골이주 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몽골이주노동자 자녀의 문화적응유형을 구분한 결과 분리유형이 가장 많은데 전체의 73.8%였고, 다음이 통합과 동화, 주변화의 순이었음을 보여주어서, 몽골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전략은 한국사회에 대한 통합보다는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는 전략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좌동훈(2013)의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 자녀가 아니라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유형과 그에 따른 적응도를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경우는 동화형이 가장 많고, 분리형이 가장 적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배경의 세 집단인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몽골이라는 집단을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한 채, 문화적응유형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주제에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을 하나의 집단을 묶어서 연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화정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각 집단의 배경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주제이기에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한 것은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문화적응을 다룬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을 주제로 다룬 연구들인데, 사실상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대부분 국내에서 출생을 하였기 때문에 문화적응이라는 주제가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외국출신 부모의 문화에 대한 적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구들이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본 분석에 활용된 연구는 두 개의 연구였는데, 이현주와 강현아(2011)의 연구에서는 친구관계 및 부모자녀관계형성이 긍정적이면 한국문화정체성과 모국문화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통합형 문화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형 문화정체감이 높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적응유형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런데, 동 연구에서 어머니문화를 자주 접할수록 오히려 어머니 나라 정체감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논문을 살펴본 결과 거의 40%정도는 어머니가 일본출신인 가정이었고 나머지 60%는 중국, 필리핀, 태국 등 주로 경제적으로 한국에 비해 덜 발전되었다고 생각되는 국가출신인 경우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한국보다 열악한 경제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그 국가와의 거리를 두고 오히려 한국인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체성이 발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을 연구하는 방향은 이들의 문화적응이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또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결과 나타나는 심리·사회적응 등이 청소년에

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인데, 권구택(2016)의 연구에서 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소속감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차별감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정신적 안녕감 수준이 낮고 심리적 부적응이 높아서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사회적지지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미정(2016)의 연구에서도 이주배정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지지가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변사람들의 사회적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에서 심리적응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II-6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연구대상	주요변인	결과
2006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양	이주 노동자 자녀	교육경험, 도움경험, 적응실태	* 30% 한국정규학교 경험 못함 * 70.1% 사회복지서비스 경험 없음 * 70% 한국어와 몽골어 사용가능 * 57% 차별경험 * 상당수는 한국과 몽골문화에 모두 잘 적응(심리사회 적응상태 양호)
2007	남효진 (2007).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 적응스트레스 및 자아정체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이주 노동자 자녀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정체성	* 모국문화 지향성 점수>한국문화지향성 점수 * 문화적응 유형: 분리유형(73.8%)>통합유형(13.1%)>동화유형(8.2%)>주변화 유형(4.9%) *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2.68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 * 문화적응 유형 중 통합>동화>분리>주변화 순으로 자아정체성 높음.
2008	박해준 (2008).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적응. 가족과 문화, 20, 99-129.	질	이주 노동자 자녀	한국사회 적응	*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사회환경과 언어, 새로운 학교에 동시에 적응해야하는 어려움 * 긍정적인 태도,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
2008	정가영 (2008). 재한 몽골 이주 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인정의 정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질	이주 노동자 자녀 청소년의 가족, 교사, 기관 담당자	한국사회 적응	* 불법체류자 신분: 장기 체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비자발적 학교이탈 및 노동시장 조기진입 빈번 * 일반적 인식과 달리 또래 한국청소년, 교사의 배려와 이해로 학교생활적응 * 몽골이주청소년들은 양국 어느 쪽에 통합되거나 동화되기 보다는 편입의 과정에서 교섭, 해석함으로써 분절적 동화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연구대상	주요변인	결과
2008	김석기 (2008).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생활세계 재구성 연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질	이주 노동자 자녀	한국사회 적응	*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함 *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생활세계 곳에서 차이를 경험→소속감을 갖지 못함
2009	이민경, 김경근 (2009). 이주 근로 자기정 청소년들의 적응전략. 교육사회학연구 , 19, 107-132.	질	이주 노동자 자녀	적응전략	* 이주가정 청소년들이 사회로 통합되는 것을 저해하는 가장 요소: 신분상 불안정성, 특정한 정체상 안에 가두고 판단하려는 주변인의 시선 * 적응전략: 적극적 동화, 거리두기, 동화와 거리두기 사이의 균형 잡기
2011	이현주, 강현아 (2011).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유형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 32(4), 147-166.	양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문화정체감, 문화적응 유형, 자존감	* 친구, 부모자녀 관계형성 긍정적이면, 문화정체감이 높아짐. * 어머니문화 자주 접할수록 어머니나라 정체감 낮음 * 친구, 부모자녀 관계 좋으면 통합형 문화정체감 * 친구, 부모자녀 관계 좋을수록, 어머니가 한국어 잘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짐 * 통합형 문화정체감: 자존감 높아짐 * 주변화 문화정체감: 자존감 낮음
2011	류진아 (2011). 농어촌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 유형과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 16(2), 5-27.	질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농어촌 다문화아동 적응	*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열악함 * 정서적 어려움, 정체감 혼란, 학업적 어려움, 행동적 문제, 가족과 상호작용 회피 * 농어촌 다문화아동의 적응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도 있지만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성, 가정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지지에 더 많은 영향 * 다문화 아동의 대처전략은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개인적 요인에 영향 * 적응유형: 순응형, 자기주도형, 부적응형
2013	박봉수 (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 한국사회 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질	중도 입국	사회화 방법, 문화적응	* 재사회화 과정: 1.입국 이전의 상황으로 방황과 그리움의 단계 2.한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문화의 접촉시기로 재회의 기쁨과 충격의 단계 3.갈등기로 고립과 소외의 단계 4.위기로 갈등과 혼돈의 단계 * 순차적으로 재사회화 발달 단계를 거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재사회화 경험의 시기나 수준에 차이가 남 * 사회화 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지지는 사회·문화 적응으로 인한 갈등과 부적응 정도의 차이를 약화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연구대상	주요변인	결과
2013	좌동훈 (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	중도 입국	한국사회 적응	* 출신국 문화정체성>한국 문화정체성 * 문화적응모델에 근거하였을 때 동화형 많고, 분리형 적음 * 통합형의 사회문화적응이 가장 높음 * 한국국적취득 청소년은 21.5% * 사회문화 적응수준: 중도입국청소년>북한이 탈성인
2013	박봉수, 김영순, 최승은 (2013).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부모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1, 331-355.	질	중도 입국	부모역할	* 이주 전: 물질적지원자, 통제자, 방관자 * 이주 후: 문화전수자, 문지기에서 갈등조정자, 물질적지원군이 됨.
2015	석희정, 하춘광 (2015).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가족생활적응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학교사회복지, 31, 1-35.	질	중도 입국	가족생활 적응경험	* 의무와 확대가족에게 주변인으로 취급, 차별 대우 받음
2016	김은경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정체성	* 문화적응스트레스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은 낮아지고 심리사회적응문제 경험가능성이 높아짐 *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낮아짐
2016	권구택 (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중도 입국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	*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소속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차별감, 적대감 순으로 나타남. *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적 안녕감 수준 낮고, 심리적 부적응 높음 *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정신적 안녕감 수준 높고, 심리적 부적응 수준 낮음 *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있음
2016	박미정 (2016). 사회적지지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0(2), 53-68.	양	다문화 청소년	사회 적응력, 사회적지지 유형	* 가족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가족지지, 물리적지지, 평가적지지 * 대인적응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친구지지,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 정서지지, 평가적지지 * 정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 가족지지, 친구지지, 평가적지지
2017	김수진, 홍창희 (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과 언어문제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195-211.	양	다문화 청소년	부적응,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별, 언어문제, 스트레스 * 자아탄력성은 차별의 영향을 조절 * 가족건강성은 언어문제의 영향을 조절

6) 심리적 건강

여섯 번째 주제는 다문화청소년의 건강으로, 총 7개의 논문이 추출되었는데, 주로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연구들이다. 이 중 박현주 등(2010)의 연구는 이주노동자 자녀와 비(非)다문화청소년을 비교하였는데, 건강에 대한 인식, 자존감, 사회적지지는 비(非)다문화집단 청소년들이 다문화집단청소년들보다 높았고, 자기효능감은 다문화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몽골이주아동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을 하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비(非)다문화청소년들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외의 연구들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의 자료를 쓴 연구들이었다. 이 연구들 중 4편은 다문화집단과 비(非)다문화집단을 비교한 연구인데, 김현식과 김두섭(2014)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가 비(非)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자살시도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민 외(2015)의 연구에서도 자살행위와 폭력, 성행동, 약물행위 등에서 다문화집단이 비(非)다문화집단에 비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건강 측면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취약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승현(2016)의 연구와 유지희와 황숙연(201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집단이 비(非)다문화집단에 비해 주관적 건강과 주관적 행복의 수준은 더 낮고, 우울이나 자살생각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취약함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이 결과들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라는 하나의 자료에서 나타난 자료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들 중 다수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해있을 가능성을 고려한 비교라기보다는 단순히 다문화집단과 비(非)다문화집단의 평균비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론은 잠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7 다문화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선행연구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2010	박현주, 오희철, 이자경, 설동훈 (2010). 몽골이주노동자 미성년 자녀들의 건강상태와 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정보통계학회지, 35(1), 73-86.	양	이주노동자 자녀	다문화 vs 일반, 건강	* 편부모: 다문화>일반 * 건강인식, 자존감, 사회적지지: 다문화>일반 * 자기효능감: 다문화>일반 * 몽골이주아동은 연령증가와 함께 운동 더 자주 (일반은 감소)
2013	유인영, 이정애 (2013). 다문화 가족 환경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정도. 한국생활	양	다문화 청소년 [청소년건강	주관적 행복, 주관적	* 주관적행복, 주관적건강에 영향을 주는 변인: 수면만족, 스트레스, 경제수준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환경학회지, 20(5), 699-707.		강행태온 라인조사]	건강	
2013	이봉숙, 김지수, 김기숙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개인적, 심리적, 건강행위와주관적 건강상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7(1), 64-75.	양	다문화 청소년 [청소년건강행태온 라인조사]	주관적 건강	* 주관적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 수면만족, 스트레스인지, 중증신체활동
2014	김현식, 김두섭 (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자살행위. 한국사회학, 48(2), 35-66.	양	다문화 청소년 [청소년건강행태온 라인조사]	다문화 vs 일반, 자살	* 자살강도: 다문화자녀>일반 * 자살행위(다문화): 양부모>한부모
2015	김정민 외 (2015).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정신 건강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6(4), 279-287.	양	다문화 청소년 [청소년건강행태온 라인조사]	다문화 vs 일반	* 우울, 주관적행복, 자살생각: 차이 없음 * 수면시간, 자살행위, 폭력·성·약물: 다문화>일반
2016	이승현 (2016). 다문화가정청소년의 건강행태와 건강상태와의 관련성: 일반가정청소년과의 비교,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청소년건강행태온 라인조사]	다문화 vs 일반, 건강행태,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 '건강한편': 다문화(일반) * 주관적 행복 '행복한편': 다문화(일반) * 우울경험, 자살생각: 다문화(일반)
2016	유지희, 황숙연 (2016).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경험과 관련요인: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1), 115-146.	양	다문화 청소년 [청소년건강행태온 라인조사]	다문화 vs 일반	* 우울: 다문화(일반) * 일반과 달리 다문화에서는 성적, 주관적 건강인지, 수면만족 변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폭력경험→우울: 다문화(일반)

7) 문제행동

다문화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201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로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과정과 맥을 같이 하여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분포하던 것이 점차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문제행동에 대한 주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논문 14개 중 5개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집단이 비(非)다문화집단에 비해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전영실 외, 2012; 신재현, 2013(싸움만); 문선영, 2015; 김현식, 2016; 안인영 외, 2016; 이혜림, 2016). 예를 들면,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비(非)다문

화청소년에 비해 지위비행, 경비행, 폭력비행 중 싸움, 강취나 절취, 음주, 성경험, 흡연 등의 경험이 높다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에 비해 신재현(2013)의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왕따 가해 등의 문제행동은 다문화집단에 비해 비(非)다문화청소년집단의 경험이 더 많음을 나타내었고, 박정일(2013)은 다문화보호청소년과 일반보호청소년의 환경체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비행에 취약한 환경요인이 두 집단에서 다르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다문화집단이 비(非)다문화집단에 비해 더 많은 문제행동을 일으킨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청소년의 성장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뒷받침하는 연구가 아영아의 연구(2016)로, 이 연구에서 보면 다문화청소년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의 비행행동이 증가하였고, 지역의 사회적지원이 청소년의 다문화청소년의 지위비행, 재산비행 및 폭력비행을 완화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다문화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결과라고 보기 보다는 일반적인 청소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표 II-8 다문화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2012	전영실, 신동준, 박상희, 김일수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32.	양, 질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대체로 불리한 사회경제적 위치 * 괴롭힘 · 따돌림 · 비행 피해경험: 다문화초등생 > 일반초등생 * 지위비행: 다문화중고등 > 일반중고생 * 초등생 중비행: 다문화 변수가 유의미 * 외국이 부모님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초등생 지위비행 감소 * 차별경험: 중고생의 지위비행, 초중고생의 경비행 증가
2013	박정일 (2013). 다문화 보호청소년과 일반 보호청소년의 환경체계 비교분석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부모환경, 청소년특성	* 욕구지연능력, 방과후 공부시간: 다문화보호 > 일반보호 * 비행에 취약한 환경적 요인: 다문화, 일반 대체로 유사
2013	신재현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 지위비행(흡연경험, 음주경험): 다문화 < 일반 * 도피비행(무단결석): 다문화 < 일반 * 폭력비행(싸움): 다문화 < 일반 * 폭력비행(왕따 가해): 다문화 < 일반 * 재산비행(강취, 절취): 다문화 < 일반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2014	김상윤, 신재현 (2014).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가정 기능적 특성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3), 195-202.	양	다문화 청소년	재산비행	* 부정적 양육방식이 절도비행에 영향을 미침
2014	최예림 (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국제결혼 가정 자녀 (국내출생)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제행동, 낙관성	*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은 받지 않고, 자신의 낙관성이 높으면 문제행동을 덜 나타내고 낙관성이 낮은 경우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음
2015	김효주, 한미아, 박종, 류소연, 최성우 (2015). 북한가정,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 보건행정학회지, 25(1), 22-30.	양	다문화 청소년	탈북vs일반 vs다문화 흡연, 음주	* 흡연: 탈북)일반 * 음주: 탈북)일반)다문화
2015	남수정 (2015). 일반 청소년들과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 관련 경험 차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1), 1-12.	양	다문화 청소년	성경험, 부 학력, 성교육	* 성경험에 대한 주효과: 다문화가정여부, 부 학력, 성교육 * 성교육의 효과: 다문화)일반
2015	문선영 (2015).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의 방임과 비행 간 관계 비교 연구: 학교생활부적응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비행, 방임, 학교생활 적응	* 다문화)일반: 비행, 지위비행, 차별 * 방임-비행, 방임-학교생활부적응, 학교생활부적응-비행: 정적 관계 * 학교생활부적응-지위비행: 다문화 여부의 영향
2016	김주연, 지혜은 (2016).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분석.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16, 62-99.	양	다문화 청소년	우울, 스트레스, 문제음주, 사회적지지	* 문제음주: 우울, 스트레스 높을수록 증가, 학업성적, 경제수준, 주관적행복, 주관적 건강 낮을수록 증가, 가족지지와 친구지지 가 중요함
2016	김현식 (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가족유형에 따른 일탈행위의 차이 분석. 한국사회학, 50(1), 41-74.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 외국인어머니 자녀의 경우, 인터넷 중독 높고, 음주경험 적음. 그 외 일탈행위 차이 없음. * 외국인아버지 자녀의 경우, 성관계, 양물남용 경험 증가 * 양친외국: 음주 제외 모든 일탈 행위 증가

연도	논문	연구 방법	집단유형	주요변인	결과
2016	백주희 (2016). 다문화청소년의 건강위험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건강위험 행태	* 부모와 미동거: 건강위험행태 경험, 흡연, 음주량 증가 * 행복도가 낮을수록 흡연 경험과 이성과의 성관계 경험 많음 *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주 경험 증가 *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흡연, 약물, 음주 후 성관계 경험 증가
2016	아영아 (2016). 학대적 양육태도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관계에서 지역사회 지원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8(4), 137-162.	양	다문화 청소년	학대적 양육태도, 지역사회 지원, 비행	* 학대적 양육태도: 비행 증가 * 지역사회지원: 비행 감소 * 지역사회지원은 학대적 양육태도와 상호작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을 완화
2016	안인영, 서지영, 이동윤, 이소진, 차보석, 이철순, 김봉조, 박철수, 최재원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한국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 특성.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27(4), 306-312.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 흡연: 다문화>일반 * 자살시도연관성 요인 - 일반: 우울>폭력경험>현재음주>현재흡연 - 다문화: 우울, 현재흡연
2016	이혜림 (2016). 다문화가정청소년과 일반가정청소년의 건강행태 비교.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vs 일반, 흡연, 음주	* 다문화의 13세 이전 흡연: 일반의 1.62배 높음 * 다문화의 13세 이전 음주: 일반의 1.74배 높음

4.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2000년대 초반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던 시기의 영역별 선행연구와 최근 연구까지를 간략히 분석해보았다. 전반적으로 연구된 결과에서 나타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경우 다문화집단 내 세부 유형인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하거나, 세 집단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한꺼번에 포함을 하고 ‘다문화’로 표기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주제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문화청소년집단 내 다양한 유형의 발달특성을 나타내는 데 매우 잘못된 이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보이는 부적응과 어려움을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의 특징인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으며, 결국은 다문화청소년 전반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내 유형별 차이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연구를 받아들이는 독자들도 연구의 결과가 다문화청소년집단 중 어떤 유형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을 비교한 연구들을 볼 때 대부분 단순히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두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상황을 파악하고자 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 비해서는 한 단계 나아간 연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두 집단의 배경특성에 대한 동질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두 집단이 비교하고자 하는 변인 이외에는 동질적인 특성이어야 그 변인의 차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집단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취약한 비율이 비(非)다문화청소년집단에 비해 높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미리 고려하지 않은 채 비교할 경우, 그것은 다문화집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이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존의 연구들은 두 집단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연구방법에 따라 결과와 함의의 방향이 다소 다른 경향성이 나타났다. 두 집단을 그대로 비교했을 때, 양적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발달적 측면에서 부족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건강하고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다양한 방향의 결과들이 있는 반면, 질적연구의 경우는 많은 경우 다문화청소년의 부족함과 열악함, 결핍, 심리적 어려움 등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가정에 기초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연구자가 다문화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존재라는 가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러한 방향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구자는 자신의 가설을 타당화 하는 근거로 그들의 이야기를 인용하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연구가 가지는 이야기의 생생함은 일반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고, 조사대상자가 매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사회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산출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선행연구들을 분석했을 때, 다문화청소년 당사자가 아닌 그들을 둘러싼 제 3자의 평가연구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연구들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의 부적응과 어려움을 결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사실상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조사라기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주변인의 시각을 분석한 것으로, 다문화청소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주변인의 고정관념을 도출한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어린 연령 아이들의 경우 부모나 교사 등이 관찰의 결과를 표현할 수는 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자신이 표현한 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표피적으로 그들을 보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지닌 고정관념을 인터뷰로 분석하는 경우 현실과 실태에 대한 객관적 파악에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기존의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산출되었다. 그런데, 그 요인들은 일반적인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전혀 다른 요인은 아니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다문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이기 이전에 ‘청소년’이라는 점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다만, ‘다문화’라는 배경을 지니는 것이 취약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학력이나 진로의 격차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정체성, 진로, 문화적응, 건강, 문제행동 등 총 7개 영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다문화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연구들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는 연구들도 있었다. 향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에 기초한 연구가설과 연구방법, 결과도출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III 장

패널조사

1. 패널조사의 개요
2.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3. 설문구성과 조사내용
4. 조사방법
5. 패널관리
6. 데이터 구축 현황

제 III 장

패 널 조 사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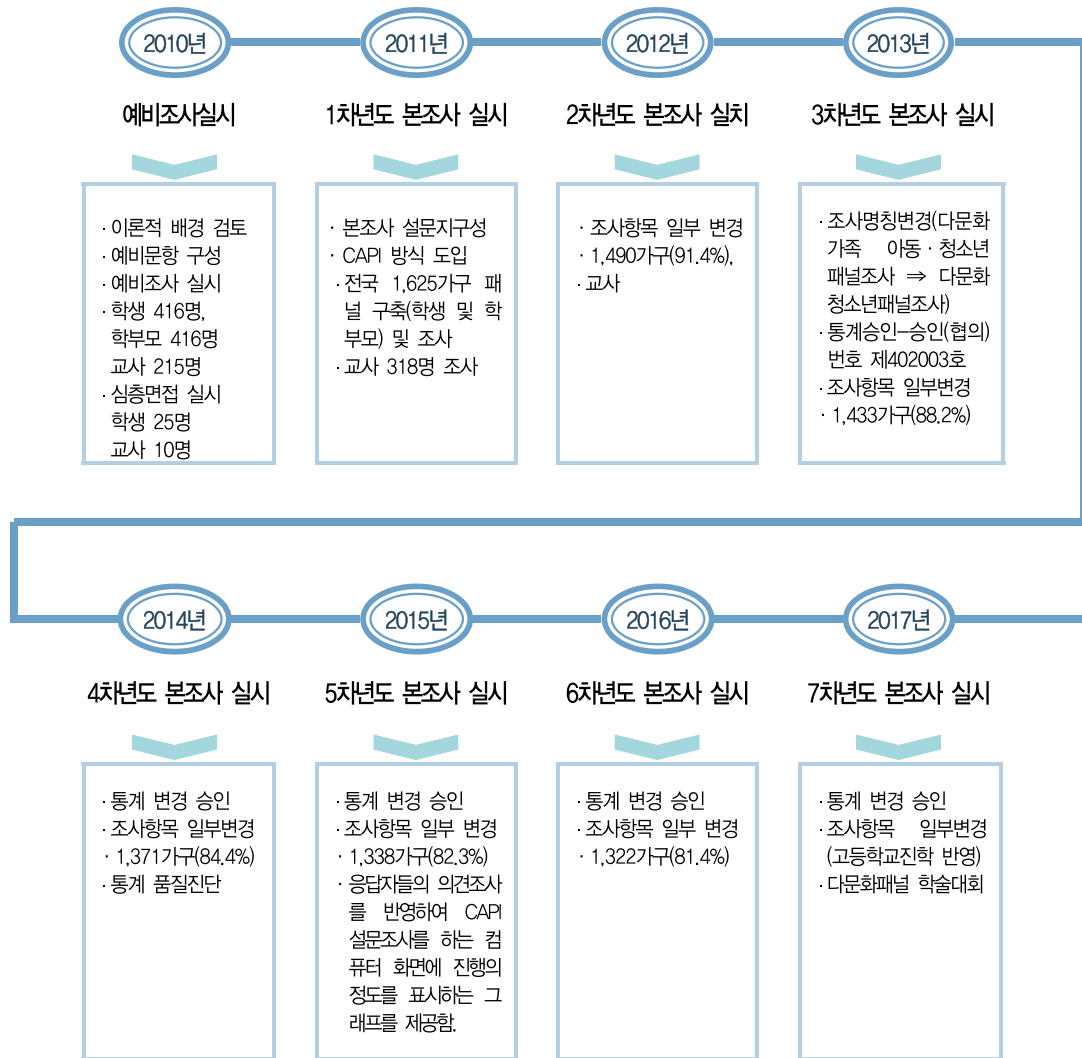
1. 패널조사의 개요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진 패널조사로 2010년은 본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패널을 설계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내용을 타당화 하는 과정이었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6년간 종단추적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2010년 예비조사부터 2012년까지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라는 명칭으로 1단계 패널조사가 수행되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라는 이름으로 총 5년간 연구가 수행되었다.

패널 구축 당시 모집단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이었기에 결과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만이 패널에 포함되었다. 통계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집단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결과 2011년 당시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들 중 대부분이 부모 중 한쪽, 특히 어머니 쪽이 외국출신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수는 극히 일부가 포함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양계민, 박주희, 2013, p. 37). 따라서 본 패널의 결과는 주로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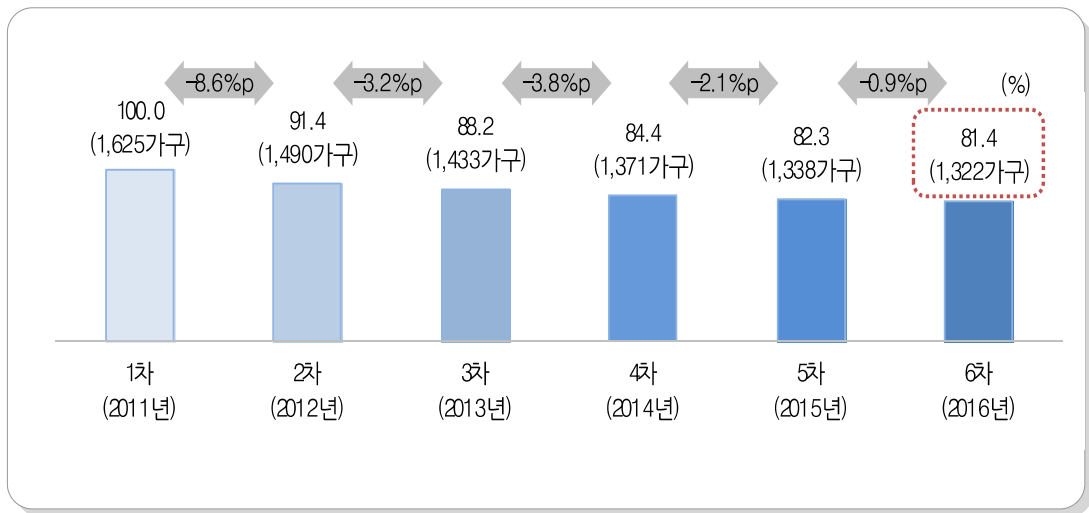
본 조사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사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3장은 양계민이 집필함.



【그림 III-1】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의 조사 연혁

패널 구축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2011년 당시 1,625가구에서 시작하여, 2016년에는 1,332가구로 1차년도 기준 81.4%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표본탈락시 대체가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유지율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Ⅲ-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유지 현황

(※ 출처 : 양계민 외, 2016, p. 67)

2.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⁶⁾

1) 모집단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이었다. 표본추출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한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재학 중인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이다. 2011년 당시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전국 2,537개로, 경기(20.3%), 서울(10.4%) 전남(9.0%), 경남(8.9%) 순 등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전국 4,452명이었고, 경기(22.6%), 서울(11.5%), 전남(10.7%), 경남(7.9%) 순 등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 당시 목표로 하는 인원은 1,600명 이었고,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35.63%에 해당하였다(양계민 외, 2011).

6) 표본설계는 2011년 당시 설계된 내용으로 2011년 보고서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I : 총괄보고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2) 표본추출 단위 및 표본추출틀

본 조사의 표본추출단위는 2011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중 다문화가족 4학년 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로 정의하였다. 원래 조사단위는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그의 학부모가 되어야 하지만, 모집단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표본추출틀은 2011년 당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초등학교의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양계민 외, 2012).

표 III-1 전국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학생의 수와 지역별 구성 비(2011년 기준) 빈도(%)

지 역	모집단				
	학교 수	지역별 비율(%)	학생 수	지역별 비율(%)	학교당 평균 학생 수
서울	264	10.4	510	11.5	1.93
인천	119	4.7	228	5.1	1.92
경기	514	20.3	1,006	22.6	1.96
부산	114	4.5	185	4.2	1.62
울산	39	1.5	59	1.3	1.51
경남	226	8.9	351	7.9	1.55
대구	80	3.2	107	2.4	1.34
경북	173	6.8	281	6.3	1.62
광주	75	3.0	110	2.5	1.47
전북	175	6.9	318	7.1	1.82
전남	228	9.0	475	10.7	2.08
대전	49	1.9	64	1.4	1.31
충북	118	4.7	196	4.4	1.66
충남	175	6.9	279	6.3	1.59
강원	150	5.9	234	5.3	1.56
제주	38	1.5	49	1.1	1.29
합계	2,537	100	4,452	100	1.75

※ 출처 : 양계민 외 (2011, p. 118)의 수정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단 조사의 모집단은 2011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어머니)이다(양계민 외, 2014, p.32). 교육부 통계자료를 기초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표집한 결과 외국인근로자 자녀 또는 중도입국 청소년 가구는 소수에 불과한 데 반해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또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2011년 당시 부모 양쪽이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는 총 6명에 불과하였으며 2016년 조사시에는 총 4명만이 남아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집 구성은 다문화가정의 부모 중 한쪽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이 외국인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와 그들의 부모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표본설계 내역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① 목표 모집단 :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 ② 조사 모집단 :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학부모 ③ 표본추출틀 ·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족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리스트 · 2011년 4월 기준, 각 지방 교육청의 학교 리스트
표본규모	1,625가구(2011년도 패널 구축 당시)/1,322가구(2016년 10월 기준)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① 층화 : 16개 시/도 ② 표본 추출단위(2011년 당시) · 1차(psu) : 학교 · 2차(ssu) : 학교 내 다문화가족 4학년 학생 전수 ③ 표본추출 : 확률비례추출
표본배정방식	- 비례배분법

※ 출처 : 양계민 외 (2016, p. 36)

3) 표본크기 결정

표본크기는 다문화가정 학생 1,600명 및 그들의 학부모 1,600명으로 결정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수준이었다. 또한 패널을 구축하지는 않으나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분석에 활용하고자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해당 학생 담임교사 또는 다문화업무 담당교사 약 300명을 조사하였다(양계민 외, 2012). 따라서 교사설문의 경우 패널자료가 아니며 해마다 3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4) 모집단 및 층화

본 조사의 경우 모집단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정확한 모집단 층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11년도 당시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집계된 ‘다문화학생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모집단을 층화하고, 표본추출단위를 학교로 하여 전수조사를 하였다. 조사 종료 후 행정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5) 표본의 배분 및 추출

표본의 배분은 층화변수인 16개 시도 및 학교를 기준으로 자체가중설계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으며, 특정 시도에 적은 표본이 배정될 경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조정하였다. 학교의 경우 1,000개를 배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약 1.8명이며, 조사 현장에서 강력 거절 등이 발생할 경우 감안하여 1,600명 정도가 조사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시도별 표본 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양계민 외, 2011, p. 119).

6) 표본추출

표본학교 추출은 조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표본추출 후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정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학생 수가 비교적 많은 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은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학생 수가 많은 경우 우선적으로 표본으로 선정하여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 속한 국제결혼가정 학생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한편, 교사의 경우 배분된 1,000개의 학교에서 300명을 조사하기 위해 한 학교당 한명, 즉, 300개 학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양계민 외, 2011, p. 121).

표 III-3 시/도별 표본 배분 결과

지 역	모집단					표본배분			
	학교수	지역별 비율(%)	학생수	지역별 비율(%)	학교당 평균 학생수	학교수	지역별 비율(%)	학생수	지역별 비율(%)
서울	264	10.4	510	11.5	1.93	100	10.0	173	10.8
인천	119	4.7	228	5.1	1.92	47	4.7	79	4.9
경기	514	20.3	1,006	22.6	1.96	196	19.6	362	22.6
부산	114	4.5	185	4.2	1.62	56	5.6	85	5.3
울산	39	1.5	59	1.3	1.51	21	2.1	28	1.8
경남	226	8.9	351	7.9	1.55	86	8.6	125	7.8
대구	80	3.2	107	2.4	1.34	31	3.1	38	2.4
경북	173	6.8	281	6.3	1.62	66	6.6	97	6.1
광주	75	3.0	110	2.5	1.47	29	2.9	39	2.4
전북	175	6.9	318	7.1	1.82	67	6.7	108	6.8
전남	228	9.0	475	10.7	2.08	87	8.7	163	10.2
대전	49	1.9	64	1.4	1.31	19	1.9	24	1.5
충북	118	4.7	196	4.4	1.66	45	4.5	67	4.2
충남	175	6.9	279	6.3	1.59	79	7.9	113	7.1
강원	150	5.9	234	5.3	1.56	57	5.7	83	5.2
제주	38	1.5	49	1.1	1.29	14	1.4	16	1.0
합계	2,537	100.0	4,452	100.0	1.75	1,000	100.0	1,600	100.0

※ 출처 : 양계민 외 (2011, p. 118)

7) 표본대체

첫 해년도 자료 구축 시 표본 대체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표본을 대체해야 하는 경우 조사원의 임의적 대체를 금지하였고, 연구책임자에게 승인요청을 받은 후 최종 대체승인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표본의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1년도 당시 패널로 확정이 되어 조사가 시작된 이후, 즉, 2012년부터는 탈락된 표본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패널로 대체하지 않았다.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청소년의 부모	다문화청소년 담당교사
모집단	2011년 당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부모(어머니)		
표본추출틀	2011년도 기준 각 지방 교육청 학교 리스트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 리스트)		
조사대상	표본으로 선정된 자녀, 부모 각 1명씩 조사(matching sample), 교사의 경우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다문화 담당교사		
표본크기	2011년 1,642쌍		300명
표본추출 방법	1차(2011년): 다단계확률비례계통추출법 2차(2012년)이수: 전수조사		
조사방법	1차년도: 표본으로 선정된 다문화가족, 학교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2차년도 이후: 1차년도 구축된 가구 대상 가구방문 면접조사		
실사기간	2011년 ~ 2016년, 6월 ~ 7월		
자료수집 방법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 외국인 학부모의 경우 모국어(9종) 번역 조사표 활용		

【그림 Ⅲ-3】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조사설계

(※ 출처 : 양계민 외, 2011, p. 111 수정)

3. 설문구성과 조사내용

1) 1차 설문구성의 근거 및 절차

본 패널은 2010년 예비조사 당시 설문을 구성하기 위한 절차로 두 가지 절차를 사용하였다. 첫째는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er)의 인간발달생태학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을 직접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가정 및 학교환경부터 그 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사회문화적 환경까지 인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양계민 외, 2011 p. 15). 따라서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요인을 함께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요인과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관련 요인을 모두 도출하였다. 둘째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패널을 구축하기 위하여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변인을 조사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기존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변인들을 도출하였다.

표 III-4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설문구성의 영역별 변인

영역	변인
청소년영역	■ 부모와의 의사소통 ■ 건강상태 ■ 학업성취 및 학습의 어려움 ■ 학습동기 ■ 성취동기 ■ 직업포부 및 진학포부 ■ 자아개념 ■ 자아존중감 ■ 스트레스 ■ 외모만족도 ■ 국가정체성 ■ 문화적응 ■ 다문화수용성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 ■ 학교 내 다문화관련 지원 여부 ■ 언어능력 ■ 문제행동(충동성 및 과잉행동, 공격성, 우울 및 불안, 위축, 비행)
가정환경영역	■ 부모양육스트레스 ■ 부모생활스트레스 ■ 부모자아존중감 ■ 부모 문화적응상태 ■ 부모 문화적응스트레스 ■ 가정 내 모국어 사용 ■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 ■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한 부모의 포부 ■ 부모의 양육효능감

두 번째로는 전문가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적 배경과 연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인들을 문항으로 구성하여 교수 및 연구원 17명, 공무원 7명, 학교교사 및 교육청 다문화담당 장학사 20명, 현장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양계민 외, 2011, p. 56). 각 변인에 대하여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를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외에도 전문가들이 보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유응답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산출된 최종 문항을 청소년, 학부모 및 교사대상의 설문으로 구성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고나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대한 수정 등이 이루어졌고,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방식을 수정하였으며, 향후 무응답률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데이터 에러율을 최대한 감사하는 방식으로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 설문의 수정과정

(1) 청소년용 설문지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다문화청소년용 설문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용과 학부모용 설문내용 중 변경된 부분은 연령이 변화됨에 따라 발달특성상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였고, 해당 연령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일부는 조사원 및 조사대상자 면접에서 수렴한 의견에 따라 최대한 의미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간략화 하는 과정에서 변경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1년도부터 2016년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5 청소년용 설문지 구성내용의 변화(2011년~2017년)

구분	조사항목	2011 (1차년도)	2012 (2차년도)	2013 (3차년도)	2014 (4차년도)	2015 (5차년도)	2016 (6차년도)	2017 (7차년도)
다문 화 관련 요인	언어 능력	· 부모의 외국인 여부	○	○	○	○	○	○
		·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	○	○	○	○	×
		·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	○	○	○	○
		· 부모 간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	○	○	○	○
		· 자신의 한국어 실력	○	○	○	○	○	×
		· 사용가능한 외국어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실력	○	○	○	○	○	○
	이중 문화 경험	· 국적에 대한 인식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	○	○	○	○	○	○
		· 외국 출신 부모 가족의 한국방문경험여부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정도	○	○	○	○	○	○
		· 문화적응스트레스	○	○	○	○	○	×
		· 국가정체성	○	○	○	○	○	○
		· 이중문화수용태도	○	○	○	○	○	○
		· 다문화수용성	×	○	○	○	○	○
		·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알렸는지 여부	×	×	×	○	○	○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다문화정책지원경험	×	○	○	○	○	○
		· 선호하는 지원방식	×	○	○	○	○	○
		· 향후 원하는 지원내용	×	○	○	○	○	○
개인 요인	신체	· 건강상태	○	○	○	○	○	○
		· 신체만족도	○	○	○	○	○	○
	사회 정서 행동	· 자아존중감	○	○	○	○	○	○
		· 자아탄력성	○	○	○	○	×	×
		· 삶의 만족도	○	○	○	○	○	○
		· 우울	×	○	○	○	○	○
		· 사회적 위축	×	○	○	○	○	○
		· 비행	×	×	○	○	○	○
	인지	· 학교성적	○	○	○	○	○	○
		· 성취동기	○	○	○	○	○	○

구분	조사항목	2011 (1차년도)	2012 (2차년도)	2013 (3차년도)	2014 (4차년도)	2015 (5차년도)	2016 (6차년도)	2017 (7차년도)
환경 요인	· 성적에 대한 만족도	○	○	○	○	○	○	○
	부모 와의 관계	· 가족의 지지	○	○	○	○	○	○
		· 부모님의 지지	×	×	×	○	○	○
		· 부모에 대한 생각	○	○	○	○	○	○
		· 부모의 양육태도	○	○	○	○	○	○
	친구	· 친한 친구 수	○	○	○	○	○	○
		· 친구의 지지	○	○	○	○	○	○
		· 교우관계(적응)	○	○	○	○	○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	○	○	○	○
	학교 생활	·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	○	○	○	○	○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	○	○	○	○	○
		· 학습활동(적응)	○	○	○	○	○	○
		· 교사의 지지	○	○	○	○	○	○
		· 교사와의 관계(적응)	○	○	○	○	○	
		· 학교 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	○	○	○	○	○
	지역 사회 지지망	·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	○	○	○	○	○
		·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	○	○	○	○	○
	진로	· 희망 교육수준	×	×	×	×	×	○
		· 학생의 중학교 졸업 후 계획	×	×	×	×	×	○
		·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	×	×	×	×	○
		· 희망하는 직업의 종류	○	○	○	○	○	○
		·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	×	×	×	×	×	○
		· 진로에 대한 생각	×	×	×	○	○	○
		· 진로에 대해 의논하는 사람	×	×	×	○	○	○
		· 학생의 현재 상태	×	×	×	×	×	○
		· 학생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	×	×	×	×	×	○
	학업 중단 요인	· 생활 및 태도	×	×	×	○	○	○
		· 친구 및 선후배의 영향	×	×	×	○	○	○
	학습 활동	· 교과목 관련 학습 활동 시간	×	×	×	○	○	○
		· 특기적성 활동 시간	×	×	×	○	○	○
설문 조사	· 설문조사의 어려움	○	○	○	○	○	○	○
	· 연락처 보조 정보	×	×	×	×	×	○	○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다문화적 특성	언어 능력	· 부모의 외국어 어휘	부모님 중 어느 쪽이 외국출신입니까?	연구진 작성	문1	문1	문1	문1	문1	문1
		·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외국인 부모님의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OLS 문항 응용 연구진 작성	문2	문2	문2	문2	문2	문2
		·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학생은 외국인 부모님과 서로 대화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3	문3	문3	문3	문3	문3
		· 부모 간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대화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4	문4	문4	문4	문4	문4
		· 한국어 실력	학생은 한국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LS 문항 수정 연구진 작성	문5	문5	문5	문5	문5	-
		· 사용가능한 외국어 여부	학생은 한국어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6	문6	문6	문6	문6	문5
	이중 문화 경험	· 사용가능한 외국어 (있다면) 사용가능한 외국어의 종류	(한국어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다면) 학생은 어떤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잘하는 외국어를 최대 3개까지만 알려주세요.	연구진 작성	문6-1	문6-1	문6-1	문6-1	문6-1	문5-1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실력	학생은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7	문7	문7	문7	문7	문6
		· 가족 외의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운 경험	학교에 입학하기 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1, 2, 3학년) 때 한국어를 별도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배운 것을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33	문33	문33	-	-	-
		· 국적에 대한 인식	학생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 문33-1	문33-1	문33-1	-	-	-
이중 문화 경험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	방문여부	학생은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부모님의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8	문8	문8	문8	문8	문7
		(있다면) 출생 또는 살았던 적	학생은 외국인 부모님의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9	문9	문9	문9	문9	문8
이중 문화 경험				연구진 작성	문9-1	-	-	-	-	-

구분	조사항목	허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있다면) 방문횟수	학생은 재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부모님의 나라에 몇 번 가보았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9-2	문9-1	문9-1	문9-1	문9-1	문9-1
	· 외국 출신 부모 가족의 한국영문 경험여부		재년 조사 이후로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모님의 가족을(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등)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10	문10	문10	문10	문10	문9
	· 외국 출신 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정도		학생은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11	문11	문11	문11	문11	문10
	· 문화적응 스트레스	※ 문화적응 관련 10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홍진주 (2004) 수정	문21	문21	문21	문21	문21	문22
	· 국가경제성	※ 한국에 대한 생각 4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한국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성현기 (2001) 발해 및 수정	문22	문22	문22	문22	문22	문23
	· 이중문화수용태도	※ 한국 문화 및 외국인 부모님 나라 문화 관련 10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노충래, 홍진주 (2006) 발해 및 수정	문23	문23	문23	문23	문23	문24
	· 다문화수용성	※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경우 수용 정도 관련 5개 항목(4점 척도)	아래 각 항목에 대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양계민, 정진경 (2008) 수정·보완한 이종원 외 (2013)	-	문45	문45	문45	문45	문46
		친구들이 알고 있는지 여부	학교 친구들은 학생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	-	문49	문49	문39
		직접 알았는지 여부	학교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을 직접 알렸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48	문48	문40-1	문40-1	문39-1
		(직접 알았다면) 일린 후 달리진 점	(직접 알았다면) 일린고 나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무엇인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48-1	문48-1	문40-2	문40-2	문39-2
	·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알렸는지 여부	(직접 알았다면) 일린 것에 대한 생각	(직접 알았다면) 자신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일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진 작성	-	문48-2	문48-2	문40-3	문40-3	문39-3
		(일리지 않았다면) 일리지 않은 이유	친구들이 모른다면 친구들에게 일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	문48-3	문48-3	문40-4	문40-4	문39-4
		(일리지 않았다면) 향후 일릴 예정인지	친구들이 모른다면 앞으로도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을 일리지 않을 생각합니까?	연구진 작성	-	문48-4	문48-4	문40-5	문40-5	문39-5

구분	조사항목	허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다문화 지역 정책에 대한 태도	·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여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 때문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46	문46	문46	문46	문47
		(있다면) 지원받은 내용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여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지원들을 받았습니까? 받은 경험에 있는 지원의 종류를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46-1	문46-1	문46-1	문46-1	문47-1
		(있다면) 지원의 중복 여부	문 46-1에서 말한 지원 중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이 여러 번 중복되어 제공된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46-2	문46-2	문46-2	문46-2	-
		(있다면) 중복지원된 내용	만일 같은 종류의 지원이 여러 번 중복되어 제공된 적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것들이 중복적으로 지원 되었습니까? 본인의 참여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제공된 적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46-3	문46-3	문46-3	문46-3	-
		(있다면) 본인이 중복적으로 지원받은 내용	이 중 본인이 중복적으로 제공받은 것중 어떤 것은 무엇인지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46-4	문46-4	문46-4	문46-4	-
		지원에 대한 태도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하여 특별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연구진 작성	-	문46-5	문46-5	-	-	-
	· 선호하는 지원방식	(있다면) 지원의 적정성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지원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이 들니까?	연구진 작성	-	문46-6	문46-6	-	-	-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지원 필요성	지금까지 받았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46-7	문46-7	문46-5	문46-5	문47-2
		특별지원 방식	다문화 가족 자녀를 다문화 가족이 아닌 가정의 자녀와 구별하여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연구진 작성	-	-	-	문47	문47	문48
		특별지원 방식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연구진 작성	-	-	-	문47-1	문47-1	문48-1
		선호하는 국가의 다문화가족 지원방식	국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연구진 작성	-	문47	문47	문48	문48	문49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개인 특성	· 향후 원하는 지원내용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것들을 해주길 원하니까? 원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49	문49	문50	문50	문50
	· 건강상태		또래들과 비교해 볼 때 학생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니까?	김지경 외 (2010)	문14	문14	문14	문14	문14	문13
	· 신체민족도	※ 외모 관련 생각 6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외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한성문 (1992) 발체	문20	문20	문20	문20	문20	문21
	· 자이존증감	※ 자이 존증 정도 관련 4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백남숙, 오경자 (1992) 발체	문19	문19	문19	문19	문19	문20
	· 자이타력성	※ 자이 타력성 관련 14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Block & Kremen (1996)을 유성경 상혜원 (2002)이 변안 및 수정 · 보완한 척도를 권은 (2003) 자원영에서 인용하여 수정한 김지경 외 (2010)	문39	문39	문39	문39	문39	-
	· 삶의 만족도	※ 행복함 정도 관련 3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김신영 외 (2006) 인용한 김지경 외 (2010)	문40	문40	문40	문40	문40	문41
	· 우울	※ 우울함 정도 관련 10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기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김명일, 김재환, 원호택 (1984) 발체 · 수정 · 보완한 이종원 외 (2013)	-	문43	문43	문43	문43	문44
	· 사회적 만족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관련 5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학생이 느끼는 기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김선희, 김경연 (1998)을 수정 · 보완한 이종원 외 (2013)	-	문44	문44	문44	문44	문45
	· 비행	※ 비행 행동 유형 12개 항목 지난 1년간 경험 여부 및 횟수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지난 1년 간 몇 회나 했습니까?	이종원 외 (2013)	-	-	문50	문51	문51	문57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환경적 특성	인지	· 학교성적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경상 외 (2005) 발체	문29	문29	문29	문30	문30	문31
		· 성취동기	※ 성취동기 관련 8개 항목(4점 척도)	Yu & Yang (1994)	문16	문16	문16	문16	문16	문15
		· 성격에 대한 만족도		연구진 작성	문30	문30	문30	문31	문31	문32
	부모 와의 관계	· 가족의 지지	※ 가족 관련 7개 항목(4점 척도)	한미현 (1996) 발체	문25	문25	문25	문25	문25	문26
		· 부모님의 지지	※ 부모님 관련 6개 항목(4점 척도)	김순규 (2001)	-	-	-	문26	문26	문27
		· 부모에 대한 생각	아버지에 대한 생각	연구진 작성	문26	문26	문26	문27	문27	문28
			어머니에 대한 생각	연구진 작성	문27	문27	문27	문28	문28	문29
			외국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	연구진 작성	문28	문28	문28	문29	문29	문30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님(보호자)의 평소 양육 관련 10개 항목(4점 척도)	연구진 작성	문28-1	문28-1	문28-1	문29-1	문29-1	문30-1
		· 친한 친구 수		하모연 (2000) 수정· 발제한 김지영 외 (2010) - 8문항 이경상 외 (2011) - 2문항	문41	문41	문41	문41	문41	문42
		· 친구의 지지	※ 평소 친구들의 행동 관련 3개 항목(4점 척도)	연구진 작성	문12	문12	문12	문12	문12	문11
친구				한미현 (1996) 발체	문32 (7개)	문32 (7개)	문32 (7개)	문33 (7개)	문33 (7개)	문34 (3개)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학교 생활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불러주세요.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 교우관계(적응)	※ 평소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관련 5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학교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불러주세요.	문선보(1989)와 이상필(1990)을 참고한 민병숙(1991)를 사용한 정화실 (1991, 재인용)을 수정·보완한 김지경 (2010)	문37	문37	문37	문37	문37	문38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관련 6개 항목(4점 척도)	학생은 이번 학기동안 다른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이혜경, 김혜원 (2001) 수정	문24	문24	문24	문24	문24	문25
	·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점을 세 가지만 답해주세요.	연구진 작성	문13	문13	문13	문13	문13	문12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학생이 학교 공부를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문15	문15	문15	문15	문15	문14
	· 학습활동(적응)	※ 학교수업 태도 관련 5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학교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불러주세요.	문36	문36	문36	문36	문36	문36	문37
	· 교사의 지지	※ 평소 담임선생님과의 관계 관련 3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현재의 담임선생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과 담임선생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불러주세요.	문31 (6개 항목)	문31 (6개 항목)	문31 (6개 항목)	문31 (6개 항목)	문32 (6개 항목)	문32 (6개 항목)	문33 (3개 항목)
	· 교사와의 관계(적응)	※ 평소,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관련 5개 항목(4점 척도)	학생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불러주세요.	문38	문38	문38	문38	문38	문38	문40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 학교 내에서 아려운 일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학교 내에서 아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담임선생님 외에 도와주는 어른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34	문34	문34	문34	문34	문35
		(있다면) 누구인지	(학교 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어른은 누구입니까? 모두 불러주세요.	연구진 작성	문34-1	문34-1	문34-1	문34-1	문34-1	문35-1
		· 방과후프로그램 참여현황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여부 (있다면) 무엇인지	연구진 작성 연구진 작성	문33 문33-1	-	-	-	-	-
		· 학교 밖에서 아려운 일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누구인지	연구진 작성	문35	문35	문35	문35	문35	문36
지역 사회 지역망	·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 평소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관련 6개 항목(4점 척도)	학교 밖에서 아려운 일이 생겼거나 숙제를 해야 할 때, 가족이나 학교선생님 외에 도와주는 어른이 있습니까?(동가족 제외)	연구진 작성	문35	문35	문35	문35	문35	문36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어른은 누구입니까? 모두 불러주세요.	연구진 작성	문35-1	문35-1	문35-1	문35-1	문35-1	문36-1
			학생이 동네와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불러주세요.	ADD health(2009) 박안 홀 수경·보완 한 김지영 (2010)	문42	문42	문42	문42	문42	문43
		· 학생의 희망 교육수준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닐지를 원합니까?	연구진 작성	문18	문18	문18	문18	문18	문16
진로 결정	· 학생의 중학교 졸업 후 계획	· 학생의 희망 교육수준 (대학교육이상 희망 시) 희망하는 수준	만일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합니까? 대학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어느 단계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연구진 작성	-	-	-	-	-	문16-1
			학생은 중학교 졸업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	-	-	-	문16-2
			학생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길 가장 원합니까?	연구진 작성	문17	문17	문17	문17	문17	문17
		·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연구진 작성	-	-	-	-	-	문19
	· 진로에 대한 생각	· 진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관련 10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불러주세요.	이기환 (1997) 발행	-	-	-	문52	문52	문51

구분	조사항목	허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실문 조사	· 진로에 대해 의논하는 사람 · 진로장벽인식 ·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 · 생활 및 태도 · 친구 및 선후배의 영향	· 진로, 직업 관련 생각 및 태도 9개 항목(4점 척도) ※ 부모님의 진로 지도 관련 9개 항목(아버지, 어머니 각각 4점 척도) ※ 학업중단요인 - 평소 생활 및 태도 관련 8개 항목(6개 4점 척도, 2개 경험 여부) ※ 학업중단요인 - 친구 및 선후배 영향 관련 6개 항목(해당 여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로 누구와 의논합니까?	최영애 (2006)	-	-	-	문63	문63	문62
			학생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이은실 (2006) 발제	-	-	-	-	-	문63
			다음은 학생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조이라, 윤성근 양은주 (2013) 발제 및 수정	-	-	-	-	-	문64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생활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이지영 외 (2010) 발제	-	-	-	문64	문64	문68
			다음은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김순규 (2001) 발제 및 수정	-	-	-	문67	문67	문69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하나? ※예제들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이종원 외 (2013) 수정	-	-	-	문65	문65	문65
실문 조사의 아래문	· 특기적성 활동 시간	· 특기적성 활동 6개 유형 참여 여부 및 빈도 (방과후 활동, 과외 활동)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 ※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 (단, 예제들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이종원 외 (2013) 발제 및 수정	-	-	-	문66	문66	문66
		· 설문조사의 어려움	설문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43	문60	문61	문68	문68	문60
			(아래였다면) 가장 응답하기 어려웠던 문항은 몇 번이었습니까? 어려운 문항을 모두 밑줄해 주세요.	연구진 작성	문43-1	문60-1	문61-1	문68-1	문68-1	문60-1
			(아래였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43-2	문60-2	문61-2	문68-2	문68-2	문60-2
실문 조사의 아래문	· 연락처 보조 정보 · 연락처 보조 정보 · 연락처 보조 정보	· 연락처 보조 정보	카카오톡(KakaoTalk)	연구진 작성	-	-	-	-	-	문A

(2) 학부모용 설문지

학부모 설문지 역시 자녀의 발달특성에 따라 불필요해진 문항을 삭제하였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조사원 및 당사자의 설문조사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표 III-7 학부모용 설문지 구성내용의 변화(2011년~2017년)

구분	조사항목	2011 (1차년도)	2012 (2차년도)	2013 (3차년도)	2014 (4차년도)	2015 (5차년도)	2016 (6차년도)	2017 (7차년도)
배경 변인	· 전체 가구원수	○	○	○	○	○	○	○
	· 성명	○	○	○	○	○	○	○
	· 성별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교육수준	○	○	○	○	○	○	○
	· 직업	○	○	○	○	○	○	○
	· 출신국가	○	○	○	○	○	○	○
	· 결혼상태	○	○	○	○	○	○	○
	· 가정의 경제적 수준	○	○	○	○	○	○	○
문화 특성	언어 능력	· 모국어	○	○	○	○	○	○
		·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	○	○	○	○	○	○
		· 한국어 공부 경험	○	○	○	○	×	×
		· 한국어 수준	○	○	○	○	○	○
	이중 문화 경험	· 걱정거리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	○	○	○	○	○	○
		·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	○	○	○	○	○
		· 국적 정체성	○	○	○	○	○	○
		· 주로 어울리는 사람	○	○	○	○	○	○
		· 모국음식을 자주 하는 정도	○	○	○	○	○	○
		· 주로 따르는 가치관	○	○	○	○	○	○
		· 모국에 대한 생각	○	○	○	○	○	○
		· 평소에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	○	○	○	○	○	○
		· 평소에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언어	○	○	○	○	○	○
		· 문화적응스트레스	○	○	○	○	○	○
		· 문화적응 유형	×	○	○	○	○	○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자녀 다문화정책지원경험	○	○	○	○	○	○
		· 선호하는 지원방식	×	○	○	○	○	○
		· 선호하는 지원의 종류	×	○	○	○	○	○

구분	조사항목	2011 (1차년도)	2012 (2차년도)	2013 (3차년도)	2014 (4차년도)	2015 (5차년도)	2016 (6차년도)	2017 (7차년도)
개인 및 환경 요인	신체적 심리적 특성	· 자아존중감	○	○	○	○	○	○
		· 일상생활 스트레스	○	○	○	○	○	○
		· 전반적 건강	○	○	○	○	○	○
		· 심리적신체적 건강	○	○	○	○	○	○
		· 개인주의 집단주의 가치	×	○	○	○	○	○
	자녀 교육 관련 특성	· 자녀교육관련 주 의사결정자	○	○	○	○	○	○
		·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	○	○	○	○	○
		· 자녀학교문제, 숙제지도 하는 사람	○	○	○	○	○	○
		·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	○	○	○	○	○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	○	○	○	○	○
		· 자녀 재학 학교의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진행 여부	○	○	○	○	○	○
		· 지원프로그램의 제공 장소 선호도	○	○	○	○	○	○
		· 선호하는 자녀 교육방식	○	○	○	○	○	×
		· 학교 다문화가족 학부모 교육 경험	○	○	○	○	○	×
		·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	×	×	×	○	○	○
	자녀 진학/ 진로 지도 특성	·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	○	○	○	○	○
		·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한 기대	○	○	○	○	○	○
		·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	×	×	×	○	○
		· 자녀 진로지원 행동	×	×	×	×	○	○
		· 자녀 진로지도와 관련한 지원요구	×	×	×	×	○	○
	양육 관련 특성	· 자녀 지도 시 어려운 점	×	×	×	○	○	○
		· 부모효능감	○	○	○	○	○	○
		· 자녀와 대화 시 사용언어	○	○	○	○	○	○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	○	○	○	○	○
		· 자녀가 잘하기 바라는 언어	○	○	○	○	○	○
		· 자녀가 한국어와 모국어 외에 배우기 바라는 언어	○	○	○	○	○	×
		· 자녀가 한국어 외 배우기 바라는 언어	×	×	×	×	×	○
설문 조사	· 설문조사의 어려움	○	○	○	○	○	○	○
	· 연락방식 확인	×	○	○	○	○	○	○

구 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 문	출 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다문화적 특성	언어 능력	· 모국어	귀하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문1	문1	문1	문1	문1	문1
		·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	귀하가 지금까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진 작성	문2	문2	문2	문2	문2	문2
		· 한국어 공부 경험	현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여부	연구진 작성	문3	문3	문3	문3	문3	-
			(있다면) 어디에서 공부하는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면) 한국어를 주로 공부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문3-1	문3-1	문3-1	문3-1	문3-1	-
	이중 문화 경험	(있다면) 공부한 기간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다면) 한국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3-2	-	-	-	-	-
			말하기	연구진 작성	문4	문4	문4	문4	문4	문3
		· 한국어 수준	쓰기	연구진 작성	문4	문4	문4	문4	문4	문3
			읽기	연구진 작성	문4	문4	문4	문4	문4	문3
			듣기	연구진 작성	문4	문4	문4	문4	문4	문3
			주변에 각장거리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연구진 작성	문24	문24	문24	문22	문22	문24
이중 문화 경험	·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있다면)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수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24-1	문24-1	문24-1	문22-1	문22-1	문24-1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모국의 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25	문25	문25	문23	문23	문25
	· 국적 정체성		귀하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26	문26	문26	문24	문24	문26
			귀하는 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27	문27	문27	문25	문25	문27
	· 주로 어울리는 사람		귀하는 집에서 모국 음식을 자주 해 드시니까?	연구진 작성	문28	문28	문28	문26	문26	문28
				연구진 작성	문28	문28	문28	문26	문26	문28

구 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 문	출 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다문화적 특성 대안 태도	· 주로 따르는 가치관 · 모국에 대한 생각 · 평소에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 · 평소에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언어		귀하는 생활을 하는데 있어 주로 어떤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29	문29	문29	문27	문27	문29
			귀하는 자신의 모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30	문30	문30	문28	문28	문30
			귀하가 평소 말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문31	문31	문31	문29	문29	문31
			귀하가 평소 글을 쓸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문32	문32	문32	문30	문30	문32
		· 문화적응스트레스	다음은 한국에서 귀하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이승중(1996) 편인, 이소래(1977)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수정 후 사용	문36	문36	문36	문34	문34	문37
	· 문화적응 유형	※ 한국 생활 시 문화 차이 관련 어려움 8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소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Barry (2001) 발췌	-	문37 (28개 항목)	문37 (28개 항목)	문35 (28개 항목)	문35 (28개 항목)	문38 (12개 항목)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귀하의 자녀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39	문39	문37	문37	문40
			귀하의 자녀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여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지원들을 받았습니까? 받은 경험이 있는 지원의 종류를 모두 골라주세요. 문37-1에서 말한 지원 중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이 여러 번 중복되어 제공된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39-1	문39-1	문37-1	문37-1	문40-1
			만일 같은 종류의 지원이 여러 번 중복되어 제공된 적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것들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었습니까? 귀 자녀의 참여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제공된 적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39-2	문39-2	문37-2	문37-2	-
		(중복되었다면) 중복된 지원의 종류		연구진 작성	-	문39-3	문39-3	문37-3	문37-3	-

구 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 문	출 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개인 및 환경특성 아머니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 선호하는 지원의 종류	(중복되었다면) 중복적으로 지원받은 내용	이 중 귀하의 자녀가 중복적으로 제공받은 것 (중여한 것)은 무엇인지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39-4	문39-4	문37-4	문37-4	-
		지원에 대한 태도	귀하의 자녀가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한 특별지원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39-5	문39-5	-	-	-
		(있다면) 제공받은 지원의 필요성	귀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지원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39-6	문39-6	-	-	-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지원 필요성	귀하의 자녀가 제공받은 지원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39-7	문39-7	문37-5	문37-5	문40-2
		특별지원 방식	다문화가족 자녀를 다문화가족이 아닌 가정의 자녀와 구별하여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	-	-	문38	문38	문41
		· 선호하는 지원방식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	-	-	문38-1	문38-1	문41-1
		선호하는 국가의 다문화가족 지원방식	귀하는 국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	문40	문40	문39	문39	문42
		· 선호하는 지원의 종류	귀하는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것들을 해줄지 원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41	문41	문40	문40	문43
		· 자이존중감	※ 자아 존중 관련 9개 항목 (4점 척도)	Rosenberg (1965) 발제	문20	문20	문20	문18	문18	문20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지난 1주일간 스트레스 요소 8개 항목(4점 척도)	김정희 (1987) 발제 및 수정	문21	문21	문21	문19	문19	문21
개인 및 환경특성	· 전반적 건강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떨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22	문22	문22	문20	문20	문22

구 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 문	출 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가족 특성	· 심리적·신체적 건강	※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 관련 12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귀하의 건강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황정규 (1977)	문23	문23	문23	문21	문21	문23
		※ 개인 성향 관련 12개 항목 (32개 항목) (4점 척도)	다음은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소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Singels, Triandis, Bhawuk, & Gelfand (2009)	-	문38 (32개 항목)	문38 (32개 항목)	문36 (32개 항목)	문36 (32개 항목)	문39 (12개 항목)
	· 배우자와의 결혼상태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연구진 작성	문37	문42	문42	문43	문43	문46
		· 초혼여부	현재 결혼은 초혼이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38	문43	문43	문44	문44	문47
	· 자녀의 아버지와 현재 배우자 일치여부		실문에 응답하는 자녀는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입니까?	연구진 작성	문39	문44	문44	문45	문45	문48
		· 자녀 아버지의 동일 여부	자녀들의 아버지는 모두 같은 분이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40	문45	문45	문46	문46	-
	· 월평균 소득수준	월평균 소득수준(세전)	귀 대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진 작성	원부	문46	문46	문47	문47	문49
		주요 소득원	주요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연구진 작성	원부	문46-1	문46-1	문47-1	문47-1	문49-1
	· 자녀가 가족 외의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운 경험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현재 귀 대의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연구진 작성	원부	문46-2	문46-2	문47-2	문47-2	문49-2
		초등학교 입학 전 한국에 학습 경험 여부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1, 2, 3학년) 때 한국어를 배운 것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배운 것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14	문14	-	-	-
자녀 교육 관련 특성	· 5-7세 경 주양육자	(있다면) 누구에게/어디서 배우게/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14-1	문14-1	-	-	-
		· 자녀교육관련 주 의사결정자	귀하의 자녀가 만 6세 이전이었을 때, 주로 누가 자녀를 돌보았습니까? 귀하의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연구진 작성	문5	문5	문5	-	-	-
				연구진 작성	문7	문7	문7	문6	문6	문5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귀하는 귀하가 자녀의 학교 교육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8	문8	문8	문7	문7	문6
	· 자녀의 학교문제나 숙제지도를 주로 하는 사람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가 겹거나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할 때 주로 누가 도와줄니까?	연구진 작성	문9	문9	문9	문8	문8	문7
	·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 자녀 공부 도움 평소 행동 9개 항목(4점 척도)	귀하는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11	문11	문11	문10	문10	문11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 자녀 학교에서 학부모 활동 참여 관련 9개 항목(4점 척도)	귀하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12	문12	문12	문11	문11	문12
	· 자녀의 학교 준비물 도와주는 사람		귀 대은 자녀의 학교준비물을 주로 누가 챙겨 줄니까?	연구진 작성	문13	문13	문13	-	-	-
	· 자녀 재학 학교의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진행 여부	현재 귀하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15	문15	문15	문12	문12	문13
	· 지원프로그램의 제공 정도 신호도	(있다면) 도움이 되는지 여부	현재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15-1	문15-1	문15-1	문12-1	문12-1	문13-1
	· 신호하는 자녀 교육방식		만일 귀하의 자녀가 학교공부 또는 취미활동 등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면 어디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16	문16	문16	문13	문13	문14
	· 학교 다문화가족 학부모 교육 경험		귀하는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17	문17	문17	문14	문14	문15
			다문화가족 학부모 교육 실시 여부	자녀 조사 이후 귀 자녀의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18	문18	문18	문16	문16
		(있다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18-1	문18-1	문18-1	문16-1	문16-1	문18-1

구 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 문	출 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 방과후 교육 (사교육 포함)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경험	귀하의 자녀는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아래의 보기 중 해당되는 것을 3가지만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연구진 작성	문14 문14-1	- -	- -	- -	- -	- -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 경험	귀하의 자녀는 작년 조사 이후, 사교육을 포함한 방과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공부, 특기적성 포함)	이종원 외 (2013)	-	-	-	문41	문41	문44
		월평균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 비용	귀하의 자녀가 작년 조사 이후 받은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의 월평균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이종원 외 (2013)	-	-	-	문41-1	문41-1	문44-1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는 이유	귀하의 자녀가 작년 조사 이후,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이종원 외 (2013)	-	-	-	문41-2	문41-2	문44-2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 비용의 가계 부담 정도	귀 자녀의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 비용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이종원 외 (2013)	-	-	-	문41-3	문41-3	문44-3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지 않는 이유	자녀가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이종원 외 (2013)	-	-	-	문42	문42	문45
자녀 진행/ 진로지도 관련 특성	·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귀하는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6	문6	문6	문5	문5	문4
		(대학교육이상 희망 시) 희망하는 수준	만일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6-1	문6-1	문6-1	문5-1	문5-1	문4-1
			대학원 이상 교육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느 단계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	-	문6-2	문5-2	문5-2	문4-2

구 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 문	출 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양육 관련 특성	· 자녀의 장애 직업의 종류에 대한 기대		귀하는 자녀가 나중에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10	문10	문10	문9	문9	문8
	·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자녀가 나중에 기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 구체적인 직업을 기입해 주세요(예. 간호사, 미용사 등)	연구진 작성	-	-	-	-	-	문9
	·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이나 생각	※ 자녀 진로지도 관련 9개 항목(4점 척도)	귀하는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나 생각을 얼마나 하십니까?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조아라, 윤성근, 양은주 (2013) 발체 및 수정	-	-	-	-	-	문10
	· 자녀 진로지도와 관련해 옳이 필요한 내용	※ 자녀 진로지도 관련 4개 항목(4점 척도)	자녀의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	-	-	-	-	문17
	· 자녀 지도 시 어려운 점		귀하가 자녀를 지도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	-	-	문15	문15	문16
	· 부모호응감	※ 부모의 역할 충족 정도 관련 9개 항목(4점 척도)	다음은 귀하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신숙재 (1997) 수정	문19	문19	문19	문17	문17	문19
	· 자녀와 대화 시 사용언어		귀하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33	문33	문33	문31	문31	문33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귀하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34	문34	문34	문32	문32	문34
	· 자녀가 잘하기 바라는 언어		귀하는 자녀가 어떤 언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35	문35	문35	문33	문33	문35
	· 자녀가 한국어와 모국어 외에 배우기 바라는 언어		한국어나 모국어 외에 자녀가 추가로 배우게 하고 싶은 언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문35-1	문35-1	문35-1	문33-1	문33-1	문36

구 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 문	출 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부가 질문	설문 조사의 어려움	설문조사의 어려움 여부	설문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41	문47	문47	문48	문48	문50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	(어려웠다면) 가장 응답하기 어려웠던 문항은 몇 번이었습니까? 어려운 문항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연구진 작성	문41-1	문47-1	문47-1	문48-1	문48-1	문50-1
		응답하기 어려운 점	(어려웠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41-2	문47-2	문47-2	문48-2	문48-2	문50-2
		전화통화하기 편한 시간	전화 통화를 하기가 가장 편하신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A	문A	문A	문A	문A
		연락 가능한 추가 전화번호	(기존 연락처로 연락이 안 될 경우) 귀하와 전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B	문B	문B	문B	문B
	연락 방식 확인	방문하기 편한 시간	귀하를 찾아뵙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C	문C	문C	문C	문C
		이메일 주소	귀하가 편소에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진 작성	-	-	문D	문D	문D	문D
		연락 가능한 타 가구원 연락처	귀하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저희가 귀하의 남편이나 자녀, 혹은 다른 가구원에게 연락을 하여도 괜찮으십니까?	연구진 작성	-	-	-	문E	문E	문E
		학생이 주로 집에 머무는 시간	설문조사를 위해 귀하의 자녀(설문에 응답하는 자녀)를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연구진 작성	-	-	-	-	문F	문F
		모바일 메신저 ID	귀하의 모바일 메신저 ID를 말씀해 주십시오. * 각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없음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진 작성	-	-	-	-	-	문G

3) 2017년 설문변경 내용

2017년도는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시기로, 기존의 설문지로는 더 이상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상태를 파악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문항들이 생겼고, 또한 고등학교 시기부터 조사되어야 하는 새로운 변인들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설문지를 변경하게 되었다. 설문지 변경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 연구진 회의를 거친 후 1차 안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작업을 거쳐서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는 2017년 6월 7일(수) 오후 7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FGI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아래와 같이 7명의 다문화청소년과 7명의 어머니들과 연구진 두 명이 함께 새로이 구성한 설문지를 한 문항씩 검토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보기가 있는지 여부, 응답기준이 불확실한 문항이 있는지 여부, 응답하기에 불편한 문항이 있는지 여부, 조사대상자의 상황과 맞지 않는 문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질문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도 개선사항 등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표 III-9 2017년 설문변경 내용 예비조사관련 면접조사 대상자

번호	가구번호	어머니성명	어머니 출신국	학생 성명	학생 성별	고등학교	아버지 출신국
1	0129	라○○	필리핀	한○○	남	일반고	필리핀
2	0107	안○○	한국	클○○	여	특목고	베트남
3	0267	마○○	필리핀	이○○	남	특성화고(직업)	한국
4	0101	후○○	일본	임○○	여	일반고	한국
5	0258	스○○	일본	표○○	남	일반고	한국
6	0504	송○○	중국(한족)	김○○	여	일반고	한국
7	0610	이○○	중국(조선족)	김○○	남	특성화고(직업)	한국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된 최종 설문지의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학부모의 경우 예년과 같이 9개 국어로 번역을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 청소년용 설문지

2017년도 청소년용 설문지의 변경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Ⅲ-10 2017년 청소년용 설문지 변경내용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 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표지	■ 학교명/학교코드	표지	상동		동일
표지	■ 가구번호	표지	상동		동일
표지	■ 응답자 성명/연령/성별	표지	상동		동일
문1	외국출신인 부모	문1	상동		동일
문2	외국출신인 부모 한국어 능력	-	-	한국 거주 기간 고려하여 삭제	삭제
문3	외국인 부모와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문2	상동		동일
문4	부모 간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문3	상동		동일
문5 문5-1	사용가능한 외국어 및 종류	문4 문4-1	상동		동일
문6	외국인 부모 나라 언어 실력	문5	상동		동일
문7	국가에 대한 정체성	문6	상동		동일
문8 문8-1	외국출신 부모 국가 방문 여부 및 횟수	문7 문7-1	상동		동일
문9	외국출신 부모의 가족들 한국 방문 여부	문8	상동		동일
문10	외국인 부모의 출신 국가에 대한 관심 정도	문9	상동		동일
문11	친한 친구 수	문10	상동		동일
-	-	문11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종류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문항 추가	신규
-	-	문11-1	(일반고 외) 학생 전공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문항 추가	신규
-	-	문11-2	(전공이 있는 경우) 전공 선택 이유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문항 추가	신규
-	-	문12	현재 재학중인 학교 유형 선택 이유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문항 추가	신규
-	-	문13	재학중인 학교 유형 선택 시기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문항 추가	신규
-	-	문14	고등학교 선택 시 영향을 준 사람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문항 추가	신규
-	-	문15	현재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문항 추가	신규
문31	학생의 성적	문16	학생의 성적 - 보기 항목 추가 6. 전문교과(전공)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보기 항목 추가	변경
문32	성적에 대한 만족도 - 척도	문17	성적에 대한 만족도 - 척도 순서 변경	다른 문항과 척도 순서 통일	변경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 만족하는 편이다 4. 매우 만족한다		
문14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문18	상동		동일
문15	성취 동기	문19	상동		동일
문17	학생의 중학교 졸업 후 계획	-	-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삭제 → 재학중인 고등학교 종류 및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질문으로 대체(신규)	삭제
문20	자신에 대한 생각	-	-	고등학생용 질문으로 적절치 않아 삭제	삭제
문22	문화 적응 스트레스	-	-	고등학생용 질문으로 적절치 않아 삭제	삭제
문33	담임선생님과과의 관계	-	-	고등학생용 질문으로 적절치 않아 삭제	삭제
문34	친구들과의 관계	-	-	고등학생용 질문으로 적절치 않아 삭제	삭제
문37	학교수업에 대한 생각 - 항목 전체 1. 나는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2. 나는 학교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3. 나는 모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4. 나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5. 나는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	문20	학교 수업에 대한 생각 - 항목 전체 수정 1.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한다 2.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 3. 나는 수업시간에 배우고 있는 학습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4. 나는 선생님이 내주신 어려운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고등학생에 맞게 문항 내용 변경	변경
문38	학교 친구들에 대한 생각 - 항목 전체 1.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2.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3. 나는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4. 나는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문21	학교 친구들에 대한 생각 - 항목 전체 수정 1. 우리학교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2. 우리학교 친구들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준다 3. 나는 우리학교 친구들과 방과 후에도 어울린다 4. 우리학교의 친구들은 나를	고등학생에 맞게 문항 내용 변경	변경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 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5.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존중하고 배려해준다		
문40	학교 선생님에 대한 생각 - 항목 전체 1.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2.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3. 나는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4.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5. 나는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문22	학교 선생님에 대한 생각 - 항목 전체 수정 1. 학교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서 의논할 선생님이 있다 2.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나에게 친절하시다 3.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고등학생에 맞게 문항 내용 변경	변경
문43	이웃에 대한 생각	-	-		삭제
문25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문25. 학생은 이번 학기동안 다른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문23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질문 워딩 일부 수정 문23. 학생은 <u>지난 한 학기 동안</u> 다른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한 학기 기준 문항의 경우, '지난 한 학기' 로 통일함 : '이번 학기동안' → '지난 한 학기 동안' 으로 변경	변경
문12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문24	상동		동일
문39 문39-1	다문화가족 자녀 공개 여부	문25 문25-1	상동		동일
문39-2 문39-3	다문화가족 자녀 공개 후 변화 및 공개에 대한 생각	문25-2 문25-3	상동		동일
문39-4 문39-5	다문화가족 비공개 이유 및 향후 공개 여부	문25-4 문25-5	상동		동일
문35 문35-1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 보기항목 4 4. 다문화 선생님	문26 문26-1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 보기항목 4 변경 4. 사회복지사 선생님	고등학교 상황에 맞게 보기 항목 변경	동일
문36 문36-1	학교 밖 도와주는 어른	문27 문27-1	상동		동일
-	-	문28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 관련 문항 추가	신규
-	-	문29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전반적 만족도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 관련 문항 추가	신규
문51	진로에 대한 생각 - 항목 전체 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문30	진로에 대한 생각 - 항목 전체 수정 1.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 관련 내용 수정	변경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이미 정해놓았다 2.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선택을 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4.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5. 주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6.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7.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8.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9.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10.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결정을 해 놓았다 2.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3.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4.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5.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6.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다 7.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 데 관심이 많다 8.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문53	학생의 진로 관련 생각 및 행동	문31	상동		동일
문52	진로에 대해 주로 의논하는 사람	문32	상동		동일
문54	학생 부모님의 진로 관련 생각 및 행동	문33	상동		동일
문16 문16-1 문16-2	학생의 희망 교육수준 - 문16-2(대학원 단계) 문16-2. <u>대학원 이상</u>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어느 단계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문34 문34-1	학생의 희망 교육수준 - 대학원 단계 질문을 문34에 통합 문34.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합니까? ※ 대학원의 경우, 구체적인 단계도 선택해 주세요.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 5. 대학원(□석사□박사)	응답 부담을 줄이고, 로직을 기존보다 직접적으로 편집	변경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 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	-	문34-2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 관련 문항 추가	신규
-	-	문34-3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계열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 관련 문항 추가	신규
-	-	문34-4 문34-4-1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 관련 문항 추가	신규
-	-	문35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계획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 관련 문항 추가	신규
-	-	문35-1	해외 유학을 가고자 하는 이유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 관련 문항 추가	신규
-	-	문35-2	취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이유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 관련 문항 추가	신규
-	-	문35-3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계획을 정하지 못한 이유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 관련 문항 추가	신규
-	-	문36	미래 직업 결정 여부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직업 관련 문항 추가	신규
문19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 - 질문 워딩 및 예시 문19.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 구체적인 직업명을 기입해 주세요. (예. 간호사, 미용사 등)	문36-1	갖고 싶은 직업명 - 질문 워딩 수정 및 예시 추가 문36-1. 미래에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 구체적인 직업명을 기입해 주세 요(예. 초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의사, 간호사, 미용사 등)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직업 관련 문항 보완	변경
-	-	문36-2	직업에 대한 인지 정도(3개 항목)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직업 관련 문항 추가	신규
-	-	문36-3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직업 관련 문항 추가	신규
문18	희망 직업 - 질문 워딩 및 응답 방식 - 보기 항목 전체 문18. 학생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갓길 가장 원합니까? 1.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2.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 3.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 4.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직업 5.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직업	문37	직업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 질문 워딩 및 응답 방식 - 보기 항목 전체 문37. 학생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요소를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 는 것 2.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것 3.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 4.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고등학생에 맞게 문항 보완	변경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 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6. 일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직업 7. 기타		있는 것 5. 사회적 평판이 좋은 것 6. 높은 임금이나 소득을 기 대할 수 있는 것 7.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 8. 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 유가 많은 것 9. 창의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10. 기타		
-	-	문38	고등학교 입학 이후 돈을 받고 일한 경험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직업 관련 문항 추가	신규
-	-	문38-1	(일한 경험이 있다면) 일의 종류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직업 관련 문항 추가	신규
-	-	문38-2	(일한 경험이 있다면) 일을 하게 된 이유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직업 관련 문항 추가	신규
-	-	문39	평소 고민이나 걱정거리(9개 항목)	고등학생이 된 후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파악하기 위함	신규
-	-	문40	자아존중감(9개 항목)	기존 문항이 고등학생 연령 에 맞지 않고 성인대상 자 아존중감 척도의 이해가 가 능한 연령으로 파악되어 문 항을 추가함(기존 학부모 질문지의 동일 문항)	신규
문21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생각	문41	상동		동일
문44	평소 기분(우울)	문42	상동		동일
문41	삶에 대한 생각	문43	상동		동일
문13	건강 상태	문44	상동		동일
문45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45	상동		동일
문46	다문화 수용성	문46	상동		동일
문23	한국에 대한 생각	문47	상동		동일
문24	문화 적응 관련	문48	상동		동일
문26	가족에 대한 인식	문49	상동		동일
문27	학생의 부모님(6개 항목) - 질문 워딩 및 항목 전체 문27. 다음은 학생의 부모님에 관 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부모님에 대 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 를 골라주세요. 1.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 려해주신다	문50	부모님(또는 보호자)지지 (9개 항목) - 질문 워딩 및 항목 전체 변경 문50. 다음은 학생의 부모님 (또는 보호자)에 관한 질문입 니다. 학생의 부모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 호를 골라주세요.	고등학생에 맞게 항목 내용 전체 수정	변경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 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2. 부모님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신다 3. 부모님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해주신다 4.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 5. 부모님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많이 해주신다 6.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부모님께서 소유한 것(물건, 장소)들을 제공해주신다		1.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2.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 고민을 들어 주신다 3.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신다 4.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 주신다 5.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6.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7.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게 용돈을 주신다 8.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9.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		
-	-	문51	부모님(또는 보호자)과의 활동 (5개 항목)	부모님과의 관계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자 문항 추가	신규
-	-	문52	부모님(또는 보호자)과의 대화 (5개 항목)	부모님과의 관계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자 문항 추가	신규
문28	아버지에 대한 생각	문53	상동		동일
문29	어머니에 대한 생각	문54	상동		동일
문30 문30-1	외국인 부모에 대한 어렵거나 힘든 점	문55 문55-1	상동		동일
문42	부모님(보호자)에 대한 생각	문56	상동		동일
문47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여부	문57	상동		동일
문47-1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내용 - 보기 항목 전체 1.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2.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3. 놀이공원 방문	문57-1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내용 - 보기 항목 전체 변경 1. 현금 지원(장학금, 후원금, 학원비 등) 2. 학습 지원(교과목 지도 등) 3. 진로관련 프로그램(진로상	고등학생에 맞게 보기 항목 변경	변경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4.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 체험, 농촌 체험 등) 5.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6.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 프로그램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15. 기타		담, 진로체험활동, 진로 캠프 등) 4. 물적 지원(책, 학용품 등 물품 지원) 5.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6.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7. 기타		
문47-2	받은 지원에 대한 필요성	문57-2	상동		동일
문48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특별지원	문58	상동		동일
문48-1	의 필요 여부 및 지원 방식	문58-1			
문49	국가에게 바라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방식	문59	상동		동일
문50	향후 지원요구내용 - 보기 항목 전체 1.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2.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3. 놀이공원 방문 4.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 체험, 농촌 체험 등) 5.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6.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 프로그램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문60	향후 지원요구내용 - 보기 항목 전체 변경 1. 현금 지원(장학금, 후원금, 학원비 등) 2. 학습 지원(교과목 지도 등) 3. 진로관련 프로그램(진로상담, 진로체험활동, 진로 캠프 등) 4. 물적 지원(책, 학용품 등 물품 지원) 5.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6.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7. 기타 8. 없음	고등학생에 맞게 보기 항목 변경	변경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13. 급식비 지원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15. 기타 16. 없음				
문55	과외 활동 시간 (공부 관련 학습 활동) - 질문 워딩 및 응답 방식 - 보기 항목 3,5,6 문55.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하니까? ※ 여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관련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1. 학원 2. 개인과외 3. 그룹과외 4. 방문수업(학습지 등) 5. 인터넷강의 6. 방과후 학교(여체능 제외) 7. 청소년 수련관, 복지관 등의 학습프로그램 8. 기타 학습활동	문61	과외 활동 시간 (공부 관련 학습 활동) - 질문 워딩 및 응답 방식 - 기존 보기 항목 3 삭제 - 보기 항목 4,5 워딩 수정 문61.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난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하였습니다니까? ※ 여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을 제외한 교과목(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 관련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1. 학원 2. 개인과외 3. 그룹과외 4. 인터넷강의(EBS 포함) 5. 방과후 보충수업 6. 청소년 수련관, 복지관 등의 학습프로그램 7. 기타 학습활동	·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답 방식 수정 (기존) 1주일 참여 횟수 및 회당 평균 시간 (변경) 1주일간 평균 참여 시간 · 고등학생에 맞게 항목 삭제 및 워딩 수정	변경
문56	특기적성 활동 시간 - 질문 워딩 및 응답 방식 - 보기 항목 4,5 문56.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하니까? ※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여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1. 음악 2. 미술 3. 체육 4. 과학(예. 과학로봇, 과학실험 등) 5. 봉사 6. 교내 동아리 활동 7. 기타 활동	문62	특기적성 활동 시간 - 질문 워딩 및 응답 방식 - 기존 보기 항목 4 삭제 - 보기 항목 4 워딩 수정 문62.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지난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하였습니다니까? 1. 음악 2. 미술 3. 체육 4. 봉사활동 5. 교내 동아리 활동 6. 기타 활동	·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답 방식 수정 (기존) 1주일 참여 횟수 및 회당 평균 시간 (변경) 1주일간 평균 참여 시간 · 고등학생에 맞게 항목 삭제 및 워딩 수정	변경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57	비행행동 경험 - 질문 워딩 및 응답 방식 문57.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지난 1년 간 몇 회나 했습니까?	문63	비행행동 경험 - 질문 워딩 및 응답 방식 문63.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답 방식 수정 (기존) 지난 1년 및 지난 한 달 경험 횟수 (변경) 지난 1년 경험 여부	변경
문58	평소 생활 및 태도	문64	상동		동일
문59	친구 및 선후배	문65	상동		동일
문 60 문 60-1 문 60-2	설문 시 어려운 문항 및 그 이유	문 66 문 66-1 문 66-2	상동		동일
문 A	모바일 메신저 ID	문 A	상동		동일

(3) 외국인학부모용 설문지

학부모용 설문지도 역시 변경되었는데,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학부모에 대한 질문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변경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I-11 2017년 외국인학부모용 설문지의 변경내용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표지	■ 학교명/학교코드	표지	상동		동일
표지	■ 가구번호	표지	상동		동일
표지	■ 응답자 성명/연령	표지	상동		동일
문1	모국어 종류	문1	상동		동일
문2	한국에 거주한 기간	문2	상동		동일
문3	한국어 실력 정도	문3	상동		동일
문4 문4-1 문4-2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문4 문4-1 문4-2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 문4-1 보기항목 추가 5. 해외 유학을 가야 한다		변경
문5	자녀 교육 관련 의사결정자	문5	상동		동일
문6	학교 교육에 도움을 주는 정도	문6	상동		동일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7	학교 문제, 숙제 등 도와주는 사람 문7.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할 때 주로 누가 도와줍니까? - 보기항목 7, 9 7. 학원, 학습지, 과외 선생님 9. 학교 이외의 기관(예,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공부방, 교회 등)	문7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 문7.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녀를 누가 도와줍니까? - 보기항목 7, 9 변경 7. 학원, 과외 선생님 9. 학교 이외의 기관(예, 청소년상담기관, 다문화센터, 공부방, 교회 등)	고등학생 진학을 고려하여 워딩 및 보기항목 변경 (학습지 이용 빈도 적어서 삭제, 지역아동센터를 청소년상담기관으로 변경)	변경
문8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 종류 - 보기항목 1.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2.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 3.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 4.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직업 5.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직업 6. 권력이 있는 직업 7. 일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직업 8. 기타	문8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 종류 - 보기항목 변경 1. 자녀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 2.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직업 3.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 4.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 5. 사회적 평판이 좋은 직업 6. 높은 임금이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 7. 자녀의 발전 가능성이 큰 직업 8. 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직업 9. 창의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10. 기타	보기항목을 고등학생에 맞추어 변경	변경
문9	자녀가 나중에 갖기를 원하는 직업 문9.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 구체적인 직업명을 기입해 주세요. (예, 간호사, 미용사 등)	문9	자녀가 나중에 갖기를 원하는 직업 문9.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 구체적인 직업명을 기입해 주세요. (예, 초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의사, 간호사, 미용사 등)	직업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변경	변경
문10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이나 생각 - 9번 문항 9. 나는 직장생활이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진로를 도와줄 수 없다	문10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이나 생각 - 9번 문항 워딩 변경 9. 나는 직장생활이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진로준비를 도와줄 수 없다	워딩을 보다 자연스럽게 변경	변경
문11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9	문11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고등학교 학부모에게	변경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개 항목)		(7개 항목)	부적절한 2개 문항 삭제	
문12	자녀의 학교생활 관련 참여 정도 (9개 항목)	문12	자녀의 학교생활 관련 참여 정도 (4개 항목)	고등학교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문항 삭제 및 필요한 문항 추가	변경
-	-	문13	자녀의 진로와 관련한 행사 참석 여부	고등학교 학부모에게 필요한 문항 추가	신규
문13/문13-1	학교의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진행 여부 및 도움 정도	-	-	고등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삭제	삭제
문14	자녀의 무료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문14	상동		동일
문15	희망하는 자녀 교육 방식	-	-	고등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삭제	삭제
문16	자녀 지도 시 어려운 점 - 보기항목 4 4. 성 관련 부분(2차 성장, 이성 교제 등	문15	자녀 지도 시 어려운 점 - 보기항목 4 변경 4. 성 관련 부분(2차 성장, 이 성 교제 등)	적합한 단어로 교체	변경
문17	자녀의 진로지도 관련 도움이 필 요한 내용 - 문항 1, 2 1. 자녀에게 적합한 상급학교 (일반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 학교 등의 종류 2. 자녀가 적합한 상급학교 (일반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 학교 등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 한 사항 및 방법	문16	자녀의 진로지도 관련 도움이 필요한 내용 - 문항 1, 2 변경 1. 자녀에게 적합한 학교 전공, 학과에 대한 정보 2. 자녀가 적합한 학교에 진학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방법	고등학교 진학을 고려하여 문항을 변경	변경
문18 문18-1	학교의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교육 여부 및 도움 정도	-	-	고등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삭제	삭제
문19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있는 생각	문17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있는 생각 - 척도 변경 · 별로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대체로 그렇다 → 그런 편이다	척도를 보다 자연스럽게 변경	변경
문20	자신에 대한 생각	문18	자신에 대한 생각	척도를 보다 자연스럽게 변경	변경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 척도 변경 · 별로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대체로 그렇다 → 그런 편이다		
문21	평소 걱정거리	문19	상동		동일
문22	전반적인 건강상태	문20	상동		동일
문23	건강 관련 사항	문21	상동		동일
문24 문24-1	주변에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존재 여부 및 규모	문22 문22-1	상동		동일
문25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정도	문23	상동		동일
문26	자신에 대한 국가 정체성	문24	상동		동일
문27	평소 주로 어울리는 사람	문25	상동		동일
문28	모국음식 섭취 빈도	문26	상동		동일
문29	따르는 가치관	문27	상동		동일
문30	모국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	문28	상동		동일
문31	평소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문29	상동		동일
문32	평소 글을 쓸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문30	상동		동일
문33	자녀와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	문31	상동		동일
문34	자녀와 대화 시 의사소통 정도	문32	상동		동일
문35	자녀가 잘하길 원하는 언어	문33	상동	-	동일
문36	한국어, 모국어 외에 자녀가 추가로 배우게 하고 싶은 언어 문36. 한국어나 모국어 외에 자녀가 추가로 배우게 하고 싶은 언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문34	한국어 외에 자녀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언어 문34. 한국어 외에 자녀가 가장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1. 나의 모국어 2. 그 외 언어 3. 없음	응답 정확성 향상을 위해 기존 문항을 2개로 분리 · 추가로 배우게 하고 싶은 언어 → 가장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언어	변경
		문34-1	문34-1. 그렇다면, 자녀가 어떤 언어를 잘하기를 바라시는지 모국어를 제외하고 골라주세요. - 보기항목 10. 스페인어, 11. 프랑스어, 12. 독일어 추가		변경
문37	한국생활에 대한 생각	문35	한국생활에 대한 생각	척도를 보다 자연스럽게 변경	변경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 척도 변경 · 별로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대체로 그렇다 → 그런 편이다		
문38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느낌1	문36	상동		동일
문39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느낌2	문37	상동		동일
문40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여부	문38	상동		동일
문40-1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보기항목 15가지)	문38-1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보기항목 7가지)	고등학생에게 부적합하거나, 실제 많이 제공되지 않는 지원의 종류를 삭제	변경
문40-2	받은 지원에 대한 필요성	문38-2	상동		동일
문41/ 문41-1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특별지원의 필요 여부 및 지원 방식	문39 문39-1	상동		동일
문42	국가에게 바라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방식	문40	상동		동일
문43	향후 지원 요구 내용(보기항목 17가지)	문41	향후 지원 요구 내용(보기항목 8가지)	문38-1 보기와 통일	동일
문44 문44-1	자녀의 방과후 교육 경험 여부 및 월평균 교육비 문44. 귀하의 자녀는 작년 조사 이후, 사교육을 포함한 방과 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공부, 특기적성 포함) 문44-1. 귀하의 자녀가 작년 조사 이후 받은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의 월평균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문42	자녀의 교과목 관련 방과후 보충수업 및 사교육 참여 여부/월 평균 비용 문42. 귀하의 자녀는 작년 조사 이후, 학교에서 방과후 보충수업을 받거나 사교육(학원, 과외수업, 인터넷 강의 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교육비로 월 평균 얼마 정도를 지출하십니까? ※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을 제외한 교과목(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 관련 학습활동만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교과목뿐만 아니라 예체능과 관련된 사교육을 포함하여 질문함. 교과목 관련 사교육 현황 파악을 위해 문항을 분리함	변경
문44-2	자녀가 방과후 교육을 받는 이유 문44-2. 귀하의 자녀가 작년 조사 이후, 방과 후 교육(사교육 포	문42-1	자녀가 교과목 관련 사교육을 받는 이유 문42-1. 귀하의 자녀가 작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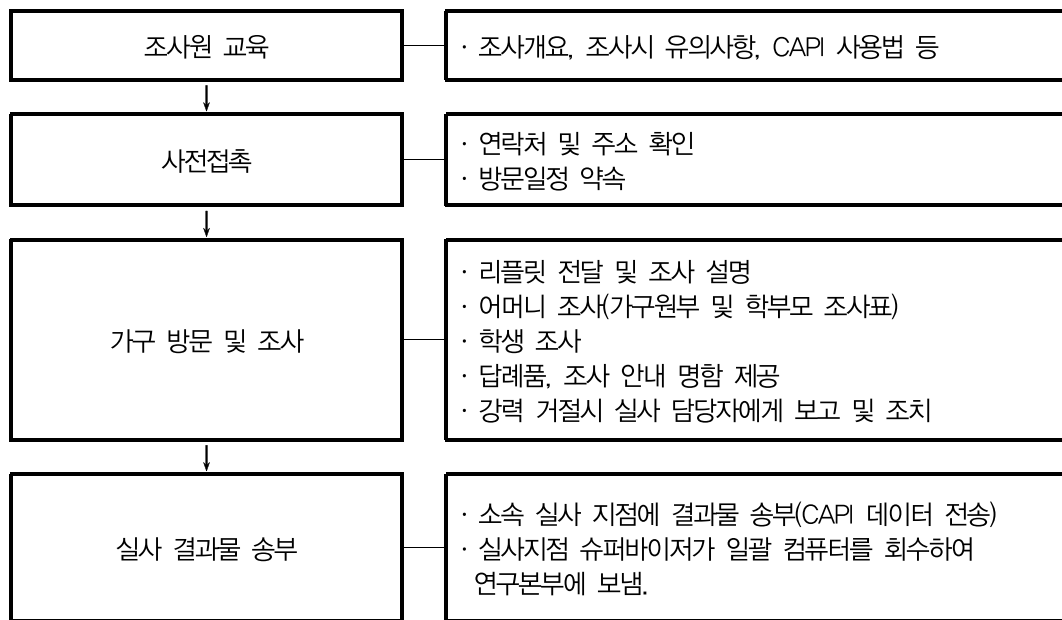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함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조사 이후, 교과목 관련 사교육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 보기항목 수정 · 보기항목 2번 워딩 수정 2.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후에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으므로 →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 보기항목 6.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삭제		
문44-3	방과후 교육 비용의 가계 부담 정도 문44-3. 귀 자녀의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 비용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문42-2	교과목 관련 사교육 비용의 가계 부담 정도 문42-2. 귀 자녀의 교과목 관련 사교육 비용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변경
문45	자녀가 방과후 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 문45. 자녀가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문42-3	자녀가 교과목 관련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 문42-3. 자녀가 교과목 관련 사교육을 받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 보기항목 5, 6 수정 · 5.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아도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서 → 5. 사교육을 받아도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서 · 6. 방과후 교육(사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 6. 시간이 부족해서		변경
-	-	문43 문43-1 문43-2	자녀의 특기적성교육 관련 교육비 지출 여부/월 평균 교육비/가계 부담 정도	자녀의 특기적성교육과 관련된 교육비 지출 현황 파악	신규
문46	결혼 상태	문44	상동		동일
문47	초혼 여부	문45	상동		동일
문48	현재 배우자와 자녀를 낳았는지 여부	문46	상동		동일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49	월평균 소득수준	문47	상동		동일
문49-1	주요 소득원	문47-1	상동		동일
문49-2	가정 형편	문47-2	상동		동일
문50 문50-1 문50-2	설문 시 어려운 문항 및 그 이유	문48 문48-1 문48-2	상동		동일
문A	전화통화를 하기 편한 시간	문A	상동		동일
문B	연락이 가능한 다른 연락처	문B	상동		동일
문C	방문이 편한 시간	문C	상동		동일
문D	이메일 주소	문D	상동		동일
문E	연락을 해도 되는 타 가구원 정보	문E	상동		동일
문F	학생이 주로 집에 머무는 시간	문F	상동		동일
문G	모바일 메신저 ID	문G	상동		동일

4. 조사방법

1) 조사절차

본 조사는 2011년부터 CAPI(Computer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구방문 후 조사대상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기기입식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조사원 요인으로, 실사의 첫 번째 단계로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원 교육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하여 주소를 확인하고 방문일정을 약속한 후 약속한 날짜에 가구를 방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구방문시에는 가장 처음 전년도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리플릿을 전달하면서 지난 해 설문조사 결과가 어떤 결과로 활용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 때 리플릿은 한국어 버전과 함께 9개 국어로 번역을 하여 원하는 언어로 된 리플릿을 제공하였다. 그 후 어머니가 먼저 CAPI로 설문조사를 하고, 학생이 조사를 하였는데, 이 때 상호간 응답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컴퓨터 응답을 볼 수 없도록 격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림 Ⅲ-4】 설문조사 진행과정

2) 조사원 교육 및 관리

(1) 조사원 교육

종단패널조사의 경우 조사원 요인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원들이 패널 가구와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조사원 교육을 통해 단순히 해당 년도의 설문조사 관련 사항을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본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들은 매년 조사시작 전 지정된 일자에 지정된 장소에서 조사지침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있는데, 2017년 조사원 교육은 다음과 같이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에서 이루어졌다.

표 III-12 조사원 교육 일시 및 장소

지역	일시	참석조사원 수	장소
서울	2017년 7월 31일 (월)	16명	한국갤럽 본사
강원	2017년 8월 2일 (수)	6명	강원리서치
대구	2017년 8월 3일 (목)	12명	한국갤럽 대구지점
부산	2017년 8월 4일 (금)	13명	한국갤럽 부산지점
대전	2017년 8월 7일 (월)	9명	한국갤럽 대전지점
광주	2017년 8월 9일 (수)	12명	한국갤럽 광주지점
제주	2017년 8월 10일 (목)	2명	비즈테이블 제주점

교육의 내용으로는 우선 본 조사의 배경과 목적, 의의 등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조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조사원 자신이 이해하도록 하며, 조사항목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한 설명을 실시함으로써 조사문항 간 로직을 이해하고,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용어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하며, 과거와 달리 변경된 사항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 후에는 패널 가구에 대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한 누설금지 사항과, 조사시 유의사항, 방문시 태도 등을 설문조사시 유의사항 등을 매번 숙지시키고 있다. 가구방문시에는 반드시 사전접촉을 통해 방문일을 약속한 후 방문하도록 하고, 조사원증을 반드시 패용하도록 하며, 단정한 복장으로 방문할 것과 정중한 태도로 조사에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고, 참여자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올바른 언행으로 대하기를 당부하였다. 특히 불필요한 언쟁은 금지하도록 주의사항을 제공하는데, 혹시 언쟁이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최대한 정중한 태도로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그 상황에 대해 조사책임연구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연구원은 반드시 사후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 끝나고 나면 CAPI 사용법과 조사 종료 후 데이터의 관리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교육을 하고 종료하였다.

패널 가구방문시에는 조사지침서와 관련자료를 반드시 휴대하여 의문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지침서를 확인하여 대처하고 지침서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시 참여자가 참여 거부를 할 때에는 일차로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담당실사팀

또는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실사담당자나 조사관리 연구원이 다시 연락을 하여 설득을 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표 III-13 조사원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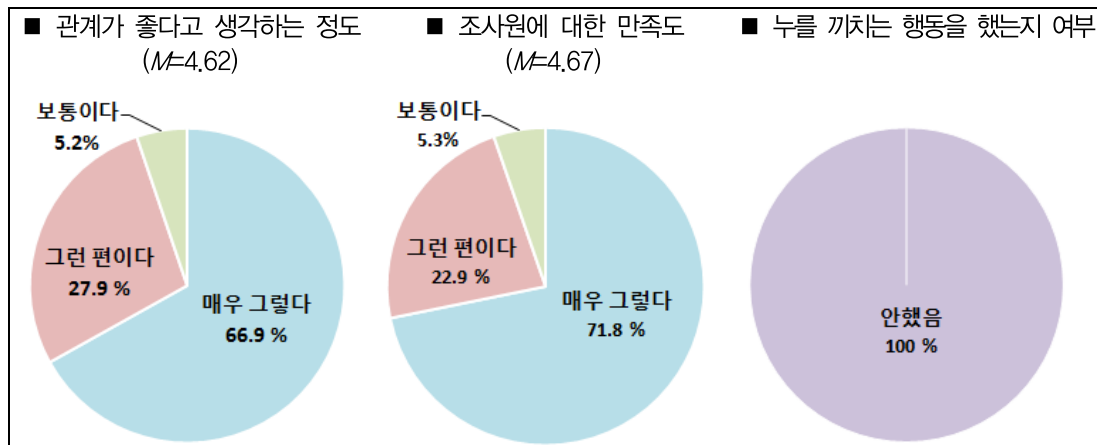
구분	중점교육내용	소요시간
교육안내 및 인사	· 조사원 참석확인 및 자료배포 · 교육진행일정 소개	10분
조사개요	· 조사배경 및 목적 · 조사개요 · 조사준비물 · 가구 인포시트	20분
조사항목 및 조사표 설명	· 조사표 구조 · 조사항목 · 조사문항 간 로직	60분
패널 구축 및 유의사항	· 패널 구축 및 관리 · 가구 컨택 및 면담시	30분
CAPi 사용법	· 노트북 관리법 · CAPi 개요 · CAPi 사용법 · 데이터 전송	60분
질의응답	· 조사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20분

※ 출처 : 양계민 외 (2011, p. 129)

(2) 조사원 모니터링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모든 조사참여 가구에 전화를 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2016년도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선별하여 전화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원이 실제 방문했는지, 사전연락 후 방문했는지, 상품권을 수령했는지, 조사원과의 관계 만족도, 누를 끼치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100%의 패널 가구가 실제 방문조사를 하였고, 그 중 99.7%가 사전연락 후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0.3%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하였다. 또한 100%가 상품권 수령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조사원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94.7%가

‘만족한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원과의 관계도 94.7%가 ‘좋다’고 응답을 하여 전반적으로 조사원들이 충실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 조사원 모니터링 결과

(3) 조사원 유지율

패널조사의 특성상 동일한 조사원이 동일한 패널 가구조사를 담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조사원의 유지율을 높이고자 조사원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패널관리를 위하여 전화조사를 할 때 보내는 명절선물을 조사원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소속감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본 조사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참여한 조사원은 전체의 97.2%이다.

3) 조사과정

본 조사는 2011년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실시되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대략 5월부터 8월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년 조사시기의 차이는 한 달 이내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전년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까지였다.

표 III-14 연도별 조사기간

연도	조사대상기간	조사기준시점	조사실사기간	최초결과공표
2011	과거부터 현재(평생)	2011. 8. 29	2011. 8~2011. 11	2011. 12. 31
2012	2011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2. 6. 19	2012. 6~2012. 8	2012. 12. 31
2013	2012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3. 5. 30	2013. 5~2013. 7	2013. 12. 31
2014	2013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4. 6. 11	2014. 6~2014. 8	2014. 12. 31
2015	2014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5. 5. 21	2015. 5~2015. 8	2015. 12. 31
2016	2015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6. 5. 9	2016. 5~2016. 7	2016. 12. 31

설문조사는 CAPI로 실시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응답시간을 계산해본 결과 청소년의 경우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약간 감소하여 평균 28.8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는 소요시간이 청소년에 비해 짧아서 평균으로 22.2분이었는데, 청소년과 달리 매년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설문응답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연도별 설문응답 소요시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청소년	19.4분	30.1분	30.3분	31.8분	31.4분	29.8분	28.8분
학부모	17.2분	21.3분	21.4분	24.0분	24.1분	24.9분	22.2분

4) 연구윤리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본 연구는 연구의 첫 해부터 조사과정의 연구윤리준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하여 첫 해는 조사 착수 전, 학부모와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중단조사의 의의와 내용 및 지속기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참가의사를 밝힌 가구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은 후 중단조사를 진행하였

다. 또한 최근 들어 인간대상 연구윤리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연구진이 「인간대상 연구윤리준수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함으로써 인간연구 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III-16 연구진의 연구윤리교육 참여 현황

차수	과정명	수료날짜	수료증 발행번호	운영기관	비고
1차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2014. 9. 11	[on]-14-A-00000177	질병관리본부	연구책임자
2차	방문형 연구윤리(IRB) 교육과정	2016. 3. 8	2016-C640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책임자
3차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2017. 6. 1	217-06-01-H-E-011870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책임자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패널참가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가장 쉬운 단계인 조사단계의 보안을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을 수립하고 진행하였다. 우선 첫째로, 설문조사 실시 시 조사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구리스트와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프린트물로 제공하여 1인당 1장씩 배부하고, 조사 후 해당 프린트물을 전량 회수 및 폐기처리하도록 하였다. 이 때 정보의 폐기처리는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둘째, 컴퓨터를 통한 가구정보 열람이 가능한 실사관리팀의 경우 실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조사담당 연구원과 실사담당관리자에 한하여 제한하도록 하였는데, 실사관리시스템 접속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은 사람만이 로그인을 한 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열람기록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셋째, 본 조사가 CAPI로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웹상에 축적되는 과정에서 조사원들의 접근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원별로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각자 자신이 담당한 가구에 대한 데이터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III-1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내용

번호	단계	내용
1	패널 실사 과정	■ 조사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 패널 가구에 대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 강조 ■ 실사 착수 전 가구리스트는 프린트물로 1인 당 1장씩 배부 (조사 후 전량 회수에 대한 고지) ■ 조사 후 프린트물 전량 회수 및 폐기처리(소각 원칙) ■ 조사담당 연구원의 폐기 확인 ■ 각 조사원에게 노트북에 CAPI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제공하고, 해당 노트북에 오프라인으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한 후, 조사가 끝난 후 노트북을 실사팀에 가구원정보가 포함된 가구리스트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이 때 각 노트북별로 개별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담당자 이외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함. ■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기에 학생의 동의 없이 학교를 방문하는 일은 없도록 함.
2	중앙실사관리 시스템	■ 실사관리시스템 접속에 대한 사전 승인시스템 구축 ■ 조사담당 연구원 및 실사담당 관리자에 한하여 접속 가능 ■ 접근권 소유자만이 로그인 후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접속 발생시 접속자와 시간에 대한 기록
3	데이터 관리	■ 학술대회를 위한 데이터 공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삭제한 후 제공 ■ 삭제해야 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진, 조사담당기관, 전문가 협의

5. 패널관리

1) 패널 유지율 관리

본 연구는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매년 보고서에 그 내용을 제시해 왔다. 간략히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8 패널관리를 위한 방법과 내용

관리방법	내용
리플릿 제작 및 배부	- 전년도 조사결과, 조사의 목적, 조사의 의의, 기관소개 등을 담은 리플릿 제작 및 배부 - 리플릿은 한국어 포함 총 10개의 언어로 제작되어 조사시 함께 제공함
홈페이지 운영	-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위한 홈페이지(http://maps.gallup.co.kr) 운영 -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 대한 홍보,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조사 개요, 연구진 소개, 조사 주관기관, 실사기관, 조사결과 제시 -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활동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 설문조사 과정에 대한 문의사항과 제안사항 올릴 수 있는 게시판 운영
답례품 제공	조사시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답례품 각각 지급
전화관리	- 패널 가구의 변동 내역(소재지, 연락처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관리 - 연 1회 이상 실시 - 가구정보의 상시 파악 및 가구 정보원의 시스템 업데이트
연하장 및 명절 선물 제공	- 관리조사에 참여한 가구 패널에게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 및 새해(명절) 인사를 담은 연하장과 선물 지급 - 선물 전달과정에서 가구정보 파악
수신자 부담 전화	-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패널 가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080-570-3580) 운영하였다. -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 접수 - 거주지나 연락처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창구로 활용
연락처 및 접촉 경로 확대	- 패널 가구의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다양하게 확보 - 가구원 중 연락이 가능한 추가 가구원의 연락 정보 수집 - 패널 가구별 방문 조사가 용이한 스케줄 및 장소 파악, 데이터베이스화
이사가구 추적조사	- 전화관리조사 과정에서 패널 가구의 이사계획과 시기 파악 - 이사계획이 확인된 패널 가구의 경우 이사시기에 맞춰 추가 전화 조사
가구정보 변동시 자발적 통보가구에 인센티브	- 연락처 변경 및 가구 변동 사항을 자발적으로 알려주는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 가구정보 알림게시판, 수신자 부담 문의처, 담당 조사원, 담당 슈퍼바이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함. - 자발적 통보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된 안내는 리플릿에 기재하는 동시에 설문조사시 조사원들이 직접 안내

※ 출처 : 양계민 외 (2016)의 p. 59-65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제시함.

2) 통계품질관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 중단조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1) 자체품질진단 담당자 교육 참여

우선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연구진들이 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교육에 참석하고,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III-19 연구진의 통계품질진단 교육 참석 현황

차수	과정명	수료날짜	수료증 발행번호	참석자
1	2017년 상반기 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 교육	2017.07.05	—	책임연구원
2	2017년 상반기 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 교육	2017.07.05	—	공동연구원
3	2017년 상반기 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 교육	2017.07.05	—	연구원
4	자체통계품질진단(17-6기)	2017.08.16	통계교육원 제C17078281	연구원

(2)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본 연구에서는 통계품질차원의 첫 번째 요인인 관련성(relevance), 즉, 통계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이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되고 있는지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내용으로는 배경변인,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에 대한 정보경로, 데이터 이용의 목적, 데이터 및 유저가이드 사용의 편리성과 접근성, 데이터의 적합성, 데이터의 오류나 수정사항, 제안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에 참석한 참석자 총 127명이었다. 분석 결과 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91명으로 전체의 71.7%였고, 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36명으로 28.3%였다

표 III-20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활용경험 여부

데이터 활용 경험	없음	있음	합 계
빈도(%)	36(28.3)	91(71.7)	127(100)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의 소속기관을 보면 대학에 소속한 경우가 전체의 6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연구소(15.8%), 정부산하기관(5.5%), 지방자치단체(3.9%),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2.4%) 등의 순이었다. 그 외 기타 응답으로 중등교사, 언론사, 종교단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기업, 상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단체에 소속된 사람들과 일반시민들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III-21 이용자 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의 소속기관현황

소속	대학	연구소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기타	합 계
빈도(%)	77(60.6)	20(15.8)	7(5.5)	5(3.9)	3(2.4)	15(11.8)	127(100)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의 지위는 연구원이 27.6%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생이 26.8%, 교수가 25.2%, 그 외 공무원과 학부생 등이었다. 따라서 연구원, 대학원생, 교수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참석하였고, 그 세 집단이 주요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2 이용자 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의 직위현황

직급	교수	강사	연구원	공무원	현장전문가	대학원생	학부생	기타	합 계
빈도(%)	32(25.2)	6(4.7)	35(27.6)	1(.8)	5(3.9)	34(26.8)	2(1.6)	12(9.5)	127(100)

이들의 학위현황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48.8%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고, 박사과정이 29.1%, 석사과정이 9.5%, 석사학위소지자가 7.9%였고, 학사와 학사과정이 4.7%였다.

표 III-23 이용자 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의 학위현황

학력	학사과정	학사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합 계
빈도(%)	1(.8)	5(3.9)	12(9.5)	10(7.9)	37(29.1)	62(48.8)	127(100)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보았다는 것이었다. 전체의 31.5%가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홍보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었으며(25.2%), 다음이 보고서와 발간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9.7%였다. 그 외 기타 응답으로는 교수나 상사,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III-24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에 대해 알게 된 경위

알게 된 경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 관련 보고서 및 발간자료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홍보자료	학술검색 포털	기타			합 계
					교수·강사 소개	지인소개	기타	
빈도(%)	25(19.7)	40(31.5)	32(25.2)	5(3.9)	11(8.7)	6(4.7)	8(6.3)	127(100)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학술논문으로 출판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연구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응답이 28.3%였으며, 박사학위논문 또는 석사학위논문 등 학위논문으로 작성하려고 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12.6%를 차지하였다.

표 III-25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활용목적

활용목적	석사 학위논문	박사 학위논문	국내 학술논문	국외 학술논문	수업자료	연구자료	기타	합 계
빈도(%)	6(4.7)	10(7.9)	52(40.9)	3(2.4)	9(7.1)	36(28.3)	11(8.7)	127(100)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와 관련하여 추후 워크샵을 개최한다면 어떤 내용을 다루어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중복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항목별로 원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즉, 일반적인 통계 분석방법 강좌나 통계 패키지 강좌 등과 같이 통계와 관련된 워크샵을 원한다는 응답이 각각 25%, 27.1%였는데, 그 외에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법이나 정책의 소개, 또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강좌를 희망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각각 25.5%, 20.8%로 나타났다. 이는 본 패널 및 패널 학술대회가 단순히 패널자료를 분석하는 대회라기보다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의 경우 패널자료에 대한 논문발표 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강좌를 워크샵으로 구성하여 일반국민들과 연구자들에게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좀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Ⅲ-26 향후 원하는 워크샵 내용

워크샵 희망 내용	빈도(%)
① 통계 분석방법 강좌	48(25.0)
② 통계 패키지 강좌 (SPSS, AMOS, STATA, Mplus 등)	52(27.1)
③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정책 소개	49(25.5)
④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강좌	40(20.8)
⑤ 기타	3(1.6)
합 계	192(100)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패널 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였다. 아래의 표에 제시된 총 7개의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유저가이드에 대한 이해도를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유저가이드는 이해하기 쉬웠다'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86.8%는 '보통이다' 이상의 응답을 하였고 평균 5점 만점에 3.54점을 보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3.19%로 나타나 좀 더 유저가이드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구성할 필요성을 시사하였

다. 두 번째로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코드북은 이해하기에 편리했다’는 응답에 대해 전체의 약 89%는 ‘보통이다’ 이상의 응답을 하였고 역시 평균 5점 만점에 3.54점을 보여서 전반적으로는 이해하기에 편리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약 11%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보여서 향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코드북을 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세 번째로,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원자료는 분석하기에 편리했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의 90%는 ‘보통이다’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9.8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요자들이 데이터 분석에 용이했음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로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는 다문화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의 91.2%가 ‘보통이다’ 이상의 응답률을 보여서 이용자들이 느끼기에 본 패널의 변인들이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의 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향후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의 98%가 ‘보통이다’ 이상에 응답하여 본 조사가 다문화청소년정책수립에 매우 유용한 자료들로 구성되어있다고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섯 번째로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앞으로도 이용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100%가 ‘보통이다’ 이상에 응답을 하여 향후 본 자료가 공개될 경우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86.82%가 ‘보통이다’ 이상에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의 데이터 아카이브에 대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분석 결과 전반적으로는 유저가이드, 코드북, 원자료 등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고, 패널조사 문항들이 다문화청소년을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변인들로 구성이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의 의견이기는 하나 유저가이드, 코드북, 원자료 사용에서 불편을 느낀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좀 더 세심한 검토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표 III-27 패널 데이터에 대한 요구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①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유저가이드 는 이해하기 쉬웠다.	2(2.20)	10(10.99)	25(27.47)	45(49.45)	9(9.89)	3.54(.90)
②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코드북은 이 용하기에 편리했다.	2(2.20)	8(8.79)	28(30.77)	45(49.45)	8(8.79)	3.54(.86)
③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원자료는 분 석하기 편리했다.	—	9(9.89)	33(36.26)	40(43.96)	9(9.89)	3.54(.81)
④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는 다문화청 소년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변인들로 구성 되어있다.	—	8(8.79)	39(42.86)	32(35.16)	12(13.19)	3.53(.83)
⑤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는 향후 다 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2.20)	25(27.47)	51(56.04)	13(14.29)	3.82(.69)
⑥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앞으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		17(18.68)	39(42.86)	35(38.46)	4.20(.73)
⑦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알고 있다.	6(6.59)	6(6.59)	17(18.68)	25(27.47)	37(40.66)	3.89(1.21)
합 계	91명					3.72(.61)

(3) 주요 문항별 문항변동계수

다음으로 조사결과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 문항별 문항변동계수를 계산하였다. 문항변동계수는 2016년도 다문화청소년 대상 문항의 응답 자료를 중심으로 계산하였다. 주요 문항으로 청소년들의 문 15(성취동기), 문 26(가족의지지), 문 34(친구지지) 등 총 세 가지 변인을 포함하였다. 각 문항은 모두 4점 척도였다. 계산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주요 문항에서 문항변동계수가 25미만으로 나타나 조사결과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II-28 주요 문항별 문항변동계수

(N=1,332)

문항	문항	평균	표준 오차	표준 편차	변동 계수
문 15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2.92	.017	.607	20.8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3.13	.017	.626	20.0
	나는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	3.20	.016	.575	18.0
	나는 나 스스로 학습목표를 결정한다	2.85	.019	.706	24.7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3.04	.017	.633	20.8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3.26	.016	.590	18.1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한다	3.06	.017	.629	20.5
	나는 가족이나 주위사람의 기대보다는 내가 원하는대로 일을 추진한다	3.02	.017	.612	20.3
문 26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3.15	.017	.610	19.3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3.14	.017	.637	20.3
	우리 가족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3.17	.017	.636	20.0
	우리 가족은 내가 힘들어할 때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3.15	.018	.669	21.2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3.18	.017	.612	19.2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3.27	.016	.578	17.7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3.24	.017	.612	18.9
문 34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3.95	.023	.834	21.1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4.07	.023	.828	20.4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4.06	.023	.825	20.3

6. 데이터 구축 현황

1) 2011년~2016년 패널 구축 현황

본 조사는 2011년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1,635명을 패널로 구축한 이래로 2016년 현재 1,332명을 유지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표본대체 없이 6년간의 유지율이 81.4%라는 것은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I-29 2011년~2016년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별 지역별 분포

빈도(%)

지역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	805(49.2)	742(49.4)	707(48.9)	676(48.8)	661(49.0)	655(49.2)
여	830(50.8)	760(50.6)	738(51.1)	708(51.2)	688(51.0)	677(50.8)
서울	182(11.1)	157(10.5)	150(10.4)	146(10.5)	143(10.6)	140(10.5)
부산	74(4.5)	67(4.5)	60(4.2)	58(4.2)	55(4.1)	53(4.0)
대구	42(2.6)	37(2.5)	34(2.4)	31(2.2)	30(2.2)	30(2.3)
인천	68(4.2)	64(4.3)	63(4.4)	61(4.4)	57(4.2)	57(4.3)
광주	42(2.6)	35(2.3)	30(2.1)	29(2.1)	28(2.1)	26(2.0)
대전	25(1.5)	20(1.3)	18(1.2)	16(1.2)	16(1.2)	15(1.1)
울산	31(1.9)	30(2.0)	30(2.1)	27(2.0)	27(2.0)	25(1.9)
경기	384(23.5)	347(23.1)	330(22.8)	304(22.0)	291(21.6)	290(21.8)
강원	90(5.5)	85(5.7)	83(5.7)	81(5.9)	81(6.0)	81(6.1)
충북	75(4.6)	65(4.3)	61(4.2)	60(4.3)	60(4.4)	60(4.5)
충남	117(7.2)	109(7.3)	107(7.4)	104(7.5)	103(7.6)	104(7.8)
전북	108(6.6)	102(6.8)	100(6.9)	100(7.2)	99(7.3)	99(7.4)
전남	160(9.8)	153(10.2)	153(10.6)	151(10.9)	150(11.1)	146(11.0)
경북	102(6.2)	102(6.8)	101(7.0)	97(7.0)	97(7.3)	96(7.2)
경남	120(7.3)	116(7.7)	113(7.8)	107(7.7)	101(7.5)	100(7.5)
제주	15(.9)	13(.9)	12(.8)	12(.9)	11(.8)	10(.8)
합계	1,635(100)	1,502(100)	1,445(100)	1,384(100)	1,349(100)	1,332(100)

※ 출처 : 양계민 외 (2016), p. 83, 84의 표를 합하여 제시함.

이들의 어머니 출신국별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본출신 어머니가 가장 많고, 필리핀,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및 기타민족, 태국, 한국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일반적인 결혼이주여성의 비율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머니 출신국 비율과는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본 연구의 표집틀이 2011년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이기 때문이다. 당시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일본인인 가정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 표집틀에 근거하여 표집이 된 결과이다.

표 III-30 2011년~2016년 어머니의 출신국 분포

빈도(%)

출신국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	69(4.2)	57(3.8)	54(3.7)	51(3.7)	46(3.4)	42(3.2)
중국(한족, 기타민족)	126(7.7)	111(7.4)	102(7.1)	95(6.9)	95(7.0)	92(6.9)
중국(조선족)	322(19.7)	287(19.1)	276(19.1)	260(18.8)	247(18.3)	244(18.3)
베트남	42(2.6)	36(2.4)	37(2.6)	34(2.5)	34(2.5)	34(2.6)
필리핀	401(24.5)	377(25.1)	359(24.8)	347(25.1)	345(25.6)	345(25.9)
일본	528(32.3)	502(33.4)	488(33.8)	471(34.0)	459(34.0)	457(34.3)
대만	7(.4)	7(.5)	6(.4)	5(.4)	5(.4)	5(.4)
몽골	8(.5)	5(.3)	6(.4)	6(.4)	6(.4)	5(.4)
태국	56(3.4)	54(3.6)	53(3.7)	53(3.8)	52(3.9)	51(3.8)
캄보디아	3(.2)	3(.2)	3(.2)	3(.2)	3(.2)	2(.2)
우즈베키스탄	12(.7)	10(.7)	10(.7)	10(.7)	9(.7)	10(.8)
러시아	17(1.0)	13(.9)	13(.9)	12(.9)	12(.9)	10(.8)
인도네시아	9(.6)	8(.5)	7(.5)	7(.5)	7(.5)	7(.5)
카자흐스탄	7(.4)	5(.3)	4(.3)	4(.3)	4(.3)	4(.3)
말레이시아	2(.1)	2(.1)	2(.1)	2(.1)	2(.1)	2(.2)
키르기스스탄	4(.2)	4(.3)	4(.3)	4(.3)	3(.2)	4(.3)
기타	22(1.3)	21(1.4)	21(1.5)	20(1.4)	20(1.5)	18(1.4)
합계	1,635(100)	1,502(100)	1,445(100)	1,384(100)	1,349(100)	1,332(100)

※ 출처 : 양계민 외 (2016), p. 85

아버지의 출신국 분포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6년 기준 96.5%가 한국이고 나머지 3.5%만이 외국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출신아버지와 외국출신어머니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정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 아버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집단은 일본인으로, 전체 중 17명의 아버지가 일본인이었다. 그 외 필리핀 출신 아버지가 5명, 파키스탄 출신 아버지가 5명이었고, 그 외 국가 출신은 거의 한 두 명이였다.

표 III-31 2011년~2016년 아버지의 출신국 분포

빈도(%)

출신국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	1,476(95.4)	1,366(95.9)	1,322(96.0)	1,267(96.0)	1,241(96.4)	1,227(96.5)
중국(한족, 기타민족)	5(.3)	3(.2)	3(.2)	3(.2)	3(.2)	2(.2)
중국(조선족)	1(.1)	1(.1)	1(.1)	1(.1)	1(.1)	1(.1)
베트남	2(.1)	2(.1)	2(.1)	2(.2)	2(.2)	2(.1)
필리핀	4(.3)	5(.4)	5(.4)	5(.4)	5(.4)	5(.4)
일본	22(1.4)	18(1.3)	18(1.3)	17(1.3)	17(1.3)	17(1.3)
대만	6(.4)	4(.3)	3(.2)	3(.2)	3(.2)	3(.2)
태국	—	—	—	1(.1)	1(.1)	1(.1)
방글라데시	1(.1)	1(.1)	1(.1)	1(.1)	1(.1)	1(.1)
파키스탄	7(.5)	7(.5)	6(.4)	5(.4)	5(.4)	5(.4)
우즈베키스탄	1(.1)	—	—	—	—	—
캐나다	3(.2)	2(.1)	2(.1)	1(.1)	—	—
인도	3(.2)	2(.1)	2(.1)	2(.2)	1(.1)	1(.1)
인도네시아	1(.1)	1(.1)	1(.1)	1(.1)	1(.1)	1(.1)
기타	15(1.0)	12(.8)	11(.8)	11(.8)	7(.5)	6(.5)
합계	1,547(100)	1,424(100)	1,377(100)	1,320(100)	1,288(100)	1,272(100)

※ 출처 : 양계민 외 (2016), p. 86.

※ 2011년도 기준 아버지가 비동거인 경우 정보가 없었고, 2012년도 부터는 탈락한 가구의 아버지의 수가 제외됨.

2) 패널리탈 현황

본 연구가 시작된 2011년부터 매년 패널리탈이 발생하고 있다. 첫 해년도에 1,625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는데, 2012년도에는 1,490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고, 2013년에는 1,433가구, 2014년에는 1,371가구, 2015년에는 1,338가구, 2016년에는 1,322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81.4%의 유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32 2011년~2016년 패널리탈 현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사가구수	1,625	1,490	1,433	1,371	1,338	1,322
유지율(%)	100	91.7	88.2	84.4	82.3	81.4

연도별 패널리탈 사유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이유가 강력거절이었다. 강력거절은 조사과정에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후 조사회사 책임연구원의 설득과정에서도 거절을 한 사례를 의미한다. 강력거절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더 이상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귀찮고 싫다는 이유, 아무런 혜택이 없고, 시간도 없다는 이유 등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조사대상자들이 귀찮고 하기 싫어도 이 결과가 다문화청소년들에게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이탈률이 높은 이유는 연락두절이었는데,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년 전화관리조사를 하고 있고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자발적으로 연락처 변경에 대한 알림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탈락율의 26%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연락처 변경에 대한 대비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조사대상 청소년이 ‘유학, 이민’등으로 외국으로 나간 이유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데,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른 패널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다문화청소년집단의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마지막으로 제시된 참여불가의 경우는 거절도 아니고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가 가출을 하거나 학생이 시설에 입소하였다거나 등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례들이었다.

표 III-33 2011년~2016년 이탈사유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강력거절	55 (38.7)	92 (47.7)	104 (41.0)	114 (39.7)	115 (38.0)
연락 안 됨	33 (23.2)	45 (23.3)	68 (26.8)	74 (25.8)	79 (26.1)
유학, 이민 등	19 (13.4)	24 (12.4)	40 (15.7)	47 (16.4)	55 (18.1)
참여불가	27 (19.1)	30 (15.6)	41 (16.1)	51 (17.7)	52 (17.1)
기타	8 (5.6)	2 (1.0)	1 (0.4)	1 (0.4)	2 (0.7)
합계	142 (100)	193 (100)	254 (100)	287 (100)	303 (100)

패널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본 연구에서 매년 분석해 왔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표본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 는 외국인부모 출신국가, 월 평균 가구소득, 주관적가정 형편, 거주 시/도, 어머니 연령, 혼인상태 등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인은 2차년도부터 6차년도 사이의 응답 여부로 하였다.

표 III-34 로지스틱회귀분석의 독립변인

독립변인	투입변인의 범주
외국인 부모 출신 국가	한국(1), 중국(한족, 기타민족)(2), 중국(조선족)(3), 베트남(4), 필리핀(5), 일본(6), 태국(7), 그 외 국가(8)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1), 100-200만원 미만(2), 200-300만원 미만(3), 300-400만원 미만(4), 400-500만원 미만(5), 500만원 이상(6)
주관적 가정 형편	어렵다(1), 보통이다(2), 잘 산다(3)
거주 시/도	서울(1), 부산(2), 대구(3), 인천(4), 광주(5), 대전(6), 울산(7), 경기(8), 강원(9), 충북(10), 충남(11), 전북(12), 전남(13), 경북(14), 경남(15), 제주(16)
어머니 연령	39세 이하(1), 40대(2), 50대(3), 60대 이상(4)
혼인상태	결혼/동거(1), 이혼/별거/사별(2)

그 결과 패널리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구소득, 주관적 가정형편, 거주 시/도, 어머니 출신국가가 나타나고 어머니의 연령과 혼인상태는 이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외, 2016, p. 80). 그 결과를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35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요약

독립변인	패널리탈 여부에 주는 영향
외국인 부모 출신 국가	■ 어머니 출신국이 중국(한족, 기타)인 경우 패널리탈 확률은 출신국이 한국인 경우 보다 낮음(0.5배). ■ 어머니 출신국이 중국(조선족)인 경우 패널리탈 확률은 출신국이 한국인 경우 보다 낮음(0.5배). ■ 어머니 출신국이 필리핀인 경우 패널리탈 확률은 출신국이 한국인 경우 보다 낮음(0.2배). ■ 어머니 출신국이 일본인 경우 패널리탈 확률은 출신국이 한국인 경우 보다 낮음(0.2배). ■ 어머니 출신국이 태국인 경우 패널리탈 확률은 출신국이 한국인 경우 보다 낮음(0.2배). ■ 어머니 출신국이 기타인 경우 패널리탈 확률은 출신국이 한국인 경우 보다 낮음(0.4배). ■ 어머니 출신국이 한국, 중국인 경우 다른 국가인 경우 보다 비교적 패널리탈 확률이 높음. ■ 어머니 출신국이 한국인 경우 가구수는 적은 데 비해 이탈률은 상대적으로 높음
월 평균 가구소득	■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패널리탈 확률은 낮아짐(0.8배).
주관적 가정 형편	■ 주관적 가정 형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패널리탈 확률이 높아짐(1.8배).
거주 시/도	■ 광주 지역의 패널리탈 확률은 서울 지역보다 높음(2.8배). ■ 충남 지역의 패널리탈 확률은 서울 지역보다 낮음(0.4배). ■ 전북 지역의 패널리탈 확률은 서울 지역보다 낮음(0.4배). ■ 전남 지역의 패널리탈 확률은 서울 지역보다 낮음(0.5배). ■ 경북 지역의 패널리탈 확률은 서울 지역보다 낮음(0.3배). ■ 특/광역시 지역은 도 지역에 비해 비교적 패널리탈 확률이 높음.

패널리탈에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출신국과 지역요인이 나타났으나 패널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어머니 출신국이나 지역별 별도의 접근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에는 전반적으로 패널 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 IV 장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개요
2. 다문화청소년의 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시사점

제 IV 장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⁷⁾

1.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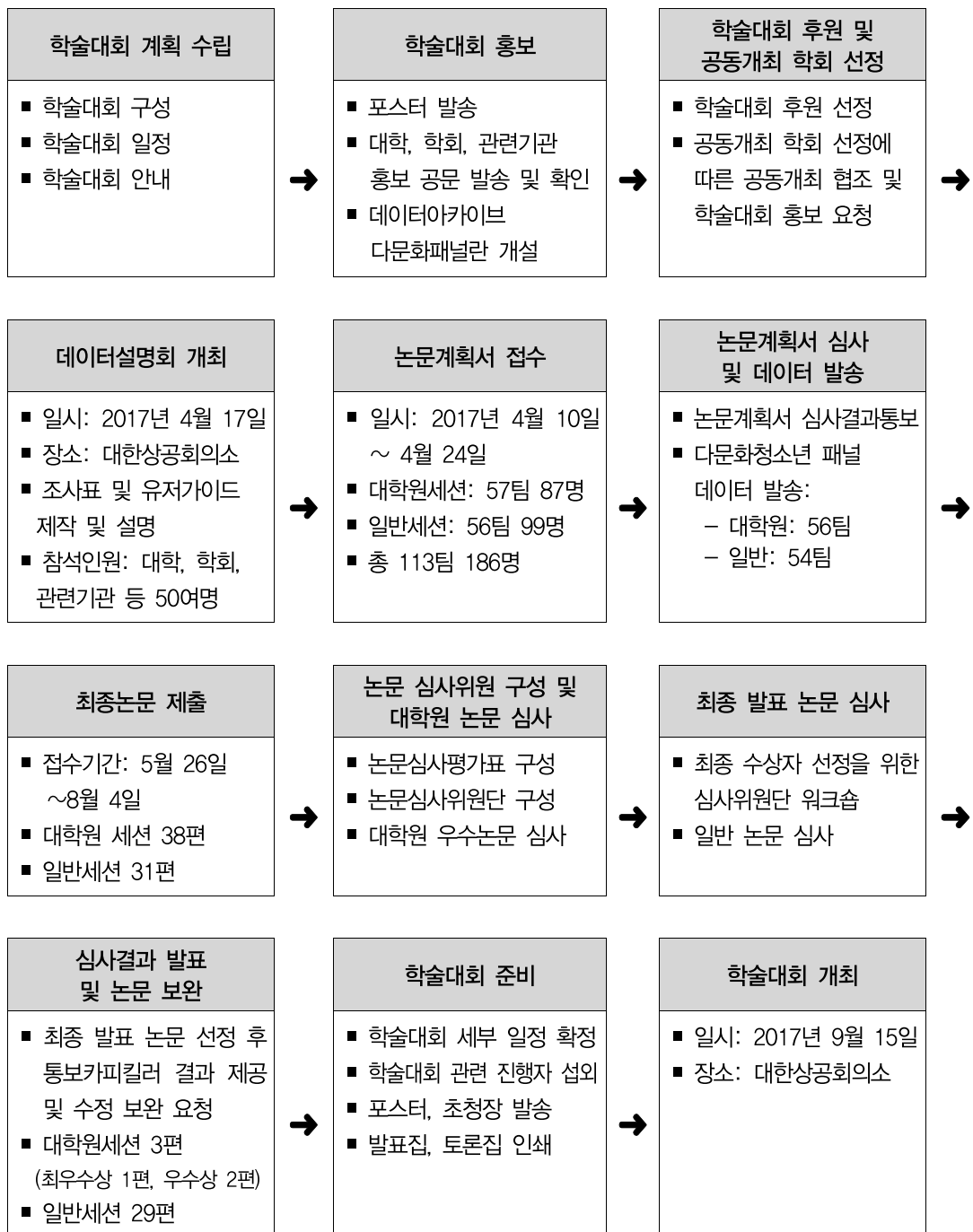
1)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의 목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반 세션은 대학교 교원, 연구원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가들의 분석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이해와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도 깊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학원 논문경진대회는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 관련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미래의 다문화청소년 전문가를 발굴 및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추진 과정

2017년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의 추진 과정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7) 4장은 강경균이 작성함.



【그림 IV-1】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추진 과정

먼저 다문화청소년 패널 연구진과 함께 학술대회 관련 일정을 확정하고 학술대회 논문 공모 및 개최 등을 포함하여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대회 포스터 제작 및 발송, 학술대회 관련 기관 홍보(전국 대학교 다문화청소년 관련 학과 소속 90여개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21여개 기관, 청소년 및 다문화 관련 학회 30여개 학회), 그리고 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archive.nypi.re.kr>)에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개설하여 학술대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를 후원 할 정부 기관과 공동주최 할 학회를 선정하여 협조 및 홍보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는 교육부에서 후원하였으며,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를 포함한 9개 학회에서 공동 주최에 동의하고 협조하였다.

표 IV-1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공동주최 학회

	학회명	홈페이지
1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http://f-youth.or.kr
2	한국다문화교육학회	http://kame.jams.or.kr
3	한국사회학회	http://www.ksa21.or.kr
4	한국심리학회	http://koreanpsychology.or.kr
5	한국아동학회	http://childkorea.or.kr
6	한국조사연구학회	http://kasr.org
7	한국청소년복지학회	http://youthwelfare.org
8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http://kyouth.or.kr
9	한국청소년학회	http://kyra.or.kr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논문계획서 접수를 앞두고, 2017년 4월 17일에는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 패널 자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50여명의 연구자가 참석하였다.

표 IV-2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설명회 진행 일정

일정	세부일정
10:00 - 10:30	등록
10:30 - 10:50	다문화청소년 패널 종단조사의 이해
10:50 - 11:20	다문화청소년 패널 자료에 대한 이해
11:20 - 11:30	학술대회 일정 소개
11:30 - 12:00	Q & A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논문계획서 접수는 2017년 4월 10일 ~ 4월 24일, 총 2주간 이루어 졌으며, 대학원 논문 경쟁에는 57개 팀(87명)이 접수하였고, 일반세션의 논문에서는 56개 팀(99명)이 접수하여 총 113개팀, 186명이 지원하였다. 다문화청소년 논문 계획서 중 본 학술대회의 목적과 다르게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거나 유선으로 중도포기 한 논문을 제외한 일반세션 54팀, 대학원 논문 경쟁 56팀 등 총 110팀에게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활용 준수사항 및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데이터를 제공하여 학술대회 논문을 의뢰하였다.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의 최종 논문 제출 기간은 2017년 5월 26일 ~ 8월 4일이었으며, 대학원 논문 경쟁 38편, 일반세션 논문 31편이 접수되었다. 이번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에서는 대학원의 경우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을 선정하여 상금과 함께 발표 기회가 주어졌다. 따라서 대학원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의 다문화청소년교육 및 통계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해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다. 학술대회 심사 워크숍을 통해 선발된 대학원 우수 논문 3편(최우수 논문1편, 우수 논문 2편)과 일반세션에서 선정된 29편의 논문은 편집 및 연구윤리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수정 보완하여 2017년 9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2.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시사점

1)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를 총 3년간 수행했고, 이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를 총 5년간 실시해오고 있다.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는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그 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축적해 온 다문화청소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청소년을 이해하고, 정책 수립에 근거가 되는 연구물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는 자리이다. 본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만을 공개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주제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총 3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제목에 제시된 주요어(keyword)를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주제를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를 범주화한 결과, 기타 지원정책 2개를 제외하고 29개의 주제, 9개의 하위범주, 5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표 IV-3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연구주제 분류

범주	하위범주	주제	빈도(논문 수)	백분율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학교적응	학교부적응	7	21.9
		학교적응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	따돌림경험		
		학교성적		
		학업성취도		
부모-자녀관계	부모영향	학업성취 영향요인	4	12.5
		다문화가정 어머니		
	부모의 지지	부모효능감		
		부모지지		
		부모의 방임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범주	하위범주	주제	빈도(논문 수)	백분율
심리 · 사회적응	심리적 적응	자아탄력성	9	28.1
		삶의 만족도		
		우울		
		성취동기		
	사회적 적응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학교폭력		
		비행경험		
진로	진로발달	학업중단의도	3	9.4
		진로의식		
		진로결정성		
문화적응 및 정체성	정체성	청소년 정체성	8	25.0
	문화적응	국가 정체성		
		이중문화수용 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		
		이중문화특성		
기타	지원정책		1	3.1
총 계			32	100

발표된 논문 중 ‘심리·사회적응’의 논문이 전체 32편의 논문 중 9편(28.1%)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적응 및 정체성’,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진로’,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응’에 대한 범주는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우울,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학교폭력, 비행경험 등의 연구주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문화적응 및 정체성’에 대한 범주에는, 청소년정체성,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 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 이중문화특성 등의 연구주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전체 발표 논문 중 8편(25.0%)이었다. 그리고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범주의 경우에는 학교부적응, 학교적응, 학교생활적응, 따돌림경험, 학교성적, 학업성취도, 학업성취 영향요인 등의 연구주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발표논문 중 7편(21.9%)이 이에 해당하였다.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영향과 부모의 지지에 대한 주제로서 다문화가정 어머니, 부모효능감, 부모지지, 부모의 방임, 자녀의 학습케어 형태 등의 연구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4편(12.5%)의 논문이 이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범주는 총 3편(9.4%)로서, 학업중단의도, 진로의식, 진로결정성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기타논문으로 지원정책을 주제로 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표 IV-4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주제별 발표 논문

주제	발표논문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I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 다문화가정의 부모 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II	■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 ■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학교 내외 지지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이연구 ■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부모자녀관계	■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2011~20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간의 종단적 관계
심리사회적응 I	■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 개인 간/개인 내 변화를 중심으로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 변화 ■ MAPS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Resilience)이 결핍에 미치는 영향력
심리사회적응 II	■ 사회적지지가 남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구 ■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관련요인 탐색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성별과 학령기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논문
진로 및 지원정책	■ 데이터마ining을 이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 탐색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매개 효과
	■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대상 · 내용 · 방법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
문화적응 및 정체성 I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한국사회 어울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요인의 구조관계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심리적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 및 정체성 II	■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
	■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 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
대학원생 공모수상작	■ 정부 지원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IM)의 적용
	■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초 · 중학생들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영향요인 검증

연구주제에 따라 범주화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대회 일정을 구성한 결과, 학술대회 시간을 고려하여 5개 이상의 논문 편수를 가지고 있는 범주의 경우, ‘심리·사회적응’, ‘문화적응 및 정체성’,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범주의 경우는 각각 두 세션(I, II)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진로’범주의 경우는 기타의 지원정책과 통합하여 ‘진로 및 지원정책’ 세션으로 진행하였다.

3)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대한 주요 결과⁸⁾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5개의 범주를 바탕으로 발표논문의 주요 결과를 정리 및 분석하였다.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에 수록된 총 32편의 논문에 대한 학교적응

8)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의 발표 논문에 대한 주요 결과는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에 수록된 연구물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거나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음.

및 학업성취, 부모-자녀관계, 심리·사회적응, 진로 및 지원정책, 문화적응 및 정체성에 따른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대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사이에 부적영향이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학습부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3).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다문화가족 부모지지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112).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효능감이 다문화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 시간에 대한 안정성을 보였다. 즉 한 시점의 부모효능감은 다음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50).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에서는 학교 안과 밖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86).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교사관계만족도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27).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에서의 발달 양상과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생의 성취목표와 교사로부터의 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p. 69). 아울러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에 초등학교적응력과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에 초등학교적응력과 가족지지,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초등학교적응력과 가족지지,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의 경우보다 여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적응

중 학습활동, 교우관계와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 96).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등이 매우 중요하며,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있어서는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교사관계만족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있어 학생의 성취목표와 교사로부터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초등학교적응력과 가족지지,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등도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에 요인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자녀관계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 요인에 대한 논문의 주요결과는 부모효능감, 부모방임,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나타났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성장에 따른 부모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부모효능감이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때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일본, 중국, 필리핀)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본 어머니가 중국, 필리핀 어머니보다 부모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낮았다(p. 129). 또한 다문화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케어 상태를 분석한 결과, 부모효능감이 다문화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능력을 향상시켜 자녀의 학습케어 형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144).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158).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 17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출신국과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부모효능감은 다문화자녀의 학습케어 형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부모-자녀의 관계에 있어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청소년의 가족환경과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사회적응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관련된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개인차와 개인 내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우울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변화에 있어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서 가족지지가 영향을 주었고, 개인 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는 개인요인으로 본인의 한국어 능력, 성취동기, 자아탄력성, 한국문화 수용 수준, 환경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나타났다(p. 222).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증가하다가 중학교 1학년부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314).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외국출신부모의 한국어 실력,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위축, 학업중단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269).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과 학령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공통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 여학생의 경우 부모감독과 거주지 인식이 영향을 미쳤고, 학령기별 영향에서는 중학생 집단의 모의 교육수준, 교우관계, 교사관계, 거주지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345).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한 학생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낮았고,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한 학생은 학교피해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297).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관련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중 남학생일수록 비행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고, 이전 비행경험이 비행참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학교수업에 성실히 임할수록 비행가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329).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이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적 요소로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성취동기, 자아탄력성이 중요하며, 가족의 지지와 부모효능감, 그리고 학교의 친구 및 교사의 관계 및 지지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업중단, 학교폭력, 비행참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사회적 지지와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나타내고 있다.

(4) 진로 및 지원정책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취동기, 진로의식, 우울, 모의 한국어 능력, 교사의 지지, 비행, 학교 밖 어른 유무가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교사의 지지와 부모의 지지, 여학생의 경우 학교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 유무, 학업성취가 진로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 388).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대하여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성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403).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학업중단 의도를 시간에 따라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방임에서 우울로 시간에 따라 변화가 나타났으며, 국가별로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를 살펴본 결과, 중국의 경우, 부모요인이 학업중단 의도를 가장 높게 예측하였으며, 필리핀의 경우는 부모의 방임, 일본은 청소년 개인의 우울이 학업중단 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p. 363).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정책 관련 연구의 주요 결과에서 다문화 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다문화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정책의 내용면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지원받은 내용은 ‘방과후 수업료 지원’,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급식비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지원정책은 ‘문화공연’, ‘놀이공원 방문’,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정책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어려운 가족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419). 또한 우리나라 정부 지원정책이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정책은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55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이해하려면 개인 내적인 요인인 성취동기, 진로의식,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요인인 부모의지지, 그리고 사회환경적 요인인 학교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 유무, 교사지지 등의 총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은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요인을 미치므로, 수요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5) 문화적응 및 정체성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및 정체성과 관련된 논문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 및 외국문화 수용태도에 따른 유형화 결과, 한국문화 친밀형, 외국문화 친밀형, 이중문화 소외형의 세 가지 문화적응 유형으로 분류되었다(p. 494). 이 유형별로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는 한국문화 친밀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중문화 소외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이중문화 소외형이 가장 높고, 한국문화 친밀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495).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이중문화 특성을 반영하여 우울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강할수록 우울이 감소하였으며,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강할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하였다(p. 514).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교사가 주는 지지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사회적지지를 통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p. 517).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 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각한 다문화수용성이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동시효과가 나타났으며, 우울, 사회적 위축과 같은 정서적 변인과 성취동기, 학업 성적 만족도와 같은 인지적인 변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531). 다문화청소년과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모와 자녀 모두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고,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 서로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적지지 중 친구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p. 584).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과 변화 형성된 정체성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하여 국가정체성, 문화선호, 외국문화선호를 반영하여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의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양상이 다르고,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에 대한 높은 선호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 437). 그리고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요인의 관계에 있어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태도의 변화궤적에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통합, 동화, 주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p. 472),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중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이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p. 474).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에 친밀한 유형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교사의 지지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문화수용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문화적응에 유리하며,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에 심리·사회적 요인에도 긍정적이지만, 성취동기와 학업 성적 만족도와 같은 인지적인 변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하며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4) 시사점⁹⁾

최근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청소년 관련 연구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적 측면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어려움을 탐색하고 성공적인 한국사회의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은 다문화청소년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은 앞에서 분석한 주요결과의 내용과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에 수록된 연구물의 연구결론 및 제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조직 및 인프라, 역량 및 전문성 제고, 법 및 제도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다문화청소년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 그리고 친구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자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의 발달특성에 따른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모교육의 내용으로는 성장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자녀교육,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문화이해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9)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의 시사점은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에 수록된 연구물의 결과 대한 분석과 결론 및 제언을 기초하여 제시하였음.

부모효능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집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별적 상담, 멘토링 등 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의 부모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주말이나 야간시간에 실시하여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시장소에 있어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산업체에서도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부모가 다문화청소년이 심리적 정서적 혼란과 사회적 위축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방향을 찾아 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여야 한다.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있어서는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적응, 학습 적응 및 성취 등을 증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이 학급 내에서 차별이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학급차원의 또래 중재 및 또래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이 사회적지지를 지각하고 스스로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하며, 다문화청소년 개인 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의 친구, 교사와 다문화청소년 간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문화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학교생활부적응,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화적 감수성 및 수용성 높이는 교육, 이중문화수용능력 향상 프로그램, 문화적응을 도울 있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적극 개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문화수용성 함양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친구와 교사의 사회적지지의 일환으로 학교교육 안에서 공동체의식교육, 인권의식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조직 및 인프라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적 조직 및 인프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긍정적 역할 모델 및 친사회적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지역자치단체 차원의 심리상담 및 구체적인 진로·직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단체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멘토링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의 멘토링 사업은 청소년들의 학교 안과

밖에서 어려움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멘토링 사업의 학습적, 관계적 지지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청소년이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가족 및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에 있어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진로 요구를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의 진로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며 다문화청소년의 성장에 따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가정에서의 생활과 학교생활에 대한 진로 및 교육적 관리는 한시적이고 단편적 관리가 아닌 학생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이동, 학교 급간 이동에 상관없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교육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아울러,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지역사회의 복지관 등이 가정,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3) 전문성 및 역량 제고

다문화청소년에게 가정과 학교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통해 학교에서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 환경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지 집단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부모 역량 및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다문화가정 부모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있어서 교육과 정서적 지원의 조력자로서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이 사회적 위축과 우울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발달에 따른 부모의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부모의 문화적응도 중요하지만, 부모효능감, 부모의 한국어 역량강화, 자녀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있어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에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는 다문화청소년 관점에서의 교수법 지원 및 실천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다문화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여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하며, 일반 학생과 다문화학생간의 협동 수업 설계가 요구된다. 예컨대,

교사는 일반 학생과 다문화학생 간의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모임, 모듈 활동 등을 통해 차별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간의 다름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다문화청소년과 학교 안에서 끊임없이 교류하는 교사는 청소년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설계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해서는 조기 식별 및 개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밖의 지역사회 다문화상담을 위한 담당자 및 센터에서는 실무자에게 다문화청소년들의 이해하고 다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기반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성 함양에 노력해야 한다.

(4) 법 및 기타 정책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법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법과 정책은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지원 및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한국시민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지역사회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다문화 관련 제도와 정책이 다문화가정을 특별집단으로 취급하고, 사회적인 약자라는 관점에 근거하여 분리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양성할 수 있으므로 통합성, 형평성,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학교 안과 밖에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청소년을 위해 학교와 사회가 다문화적 공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가치를 지지하는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다문화청소년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부모의 언어적, 사회문화적 차이, 가족자원,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적응정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집단을 구분하고 각 개별화된 집단에서의 진로 발달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다문화청소년에게 맞춤형되어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과 법에는 나름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다름을 대하는 태도이자 철학적 방법으로 단순히 지식의 지원이나 일회성 교육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결핍과 부족한 차원의 지원, 언어적·문화적 결핍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다문화적 특성을 강점으로 인식하고, 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 V 장

결 론

1. 연구의 성과 및 기여도
2. 연구의 한계
3. 향후 추진방안

제 V 장 결 론¹⁰⁾

1. 연구의 성과 및 기여도

지금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시리즈의 성과와 사회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성과와 기여도는 이론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이론적 측면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유일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를 구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포함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패널조사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이 주 관심대상이 아니고 가족의 일부로 조사하는 실태조사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다문화청소년 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국가정책 등의 영향을 모두 포괄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종단적으로 개별 청소년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 연구의 초기만 해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결과들이 양산되었고, 이들에 대한 객관적 시각의 연구들은 크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다문화청소년집단과 비(非)다문화집단간의 차이는 ‘다문화’요인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계층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다문화청소년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그 간 축적된 자료를 통해 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다수의 성과물이 도출되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10) 5장은 양계민이 집필함.

점을 들 수 있다.

이론적 측면의 성과 및 기여도

- 국내 유일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 구축
- 국내 다문화청소년 연구의 전환점 제공
- 패널 학술대회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성과물 도출에 기여

다음으로 현실적 측면의 성과 및 기여도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감소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그 동안 소수의 질적연구나 한정된 변인을 중심으로 한 양적연구에서 벗어나 2011년 당시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의 거의 40%를 표집한 후 비(非)다문화청소년집단과의 객관적 비교를 통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름을 제시한 결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과거에 비해 다문화청소년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감소하였으며,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모든 다문화청소년들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지양하고 가능한 통합적 지원 속에서 비(非)다문화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균형화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결과, 현장전문가들과 교사 등 다문화청소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으로부터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그러한 공감들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다문화청소년들을 무조건적으로 부족하고 열등한 집단으로 보는 고정관념적 시각에서 전환하여 일반적인 청소년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간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은 다문화청소년의 부족한 점에 초점을 두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본 연구의 함의에 근거하여 일방적 선별적 지원을 지양하고, 가능한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통합적 사업운동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¹¹⁾.

11)교육부의 2017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의 근거로 본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패널조사를 통해 연구성과가 발표되고, 패널 학술대회를 하고, 국회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결과 사회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 측면의 성과 및 기여도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 감소에 기여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균형화에 기여
-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에 영향
- 국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2. 연구의 한계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시리즈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성과와 사회적 기여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그 중 첫 번째는 비교집단으로써 비(非)다문화집단의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으로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나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의 변인과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변인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일부 학교적응과 다문화수용성,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의 공통문항이 있고, 조사의 시점에도 차이가 있어서 두 집단을 비교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결과들이 다문화청소년만의 특성인지 일반적인 청소년의 특성인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는 본 연구에 포함된 다문화청소년은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대다수는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이기 때문에 다수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정보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 자녀들의 경우 단기거주 후 본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락율이 대거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학교가 아닌 경우 표집틀로 사용할만한 적절한 모집단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패널을 구축하고 종단적으로 추적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한국사회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와 향후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조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본 패널의 경우 모집단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가중치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물론 본 연구의 경우 당시 모집단의 약 40%를 표집한 연구이기에 표본의 편중문제는 크게 염려할 수준이 아니고, 일반적인 패널연구들과 다르게 실태에 대한 빈도를 조사하는 연구가 아닌 변인을 중심으로 하는 척도를 사용하는 연구이기에 가중치의 문제가 자료의 타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통계구축에서 필요로 하는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정확한 통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 계

- 비교집단으로써 비(非)다문화집단의 자료 부재
- 거의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만이 포함되었다는 한계
- 모집단 정보의 부재로 인한 가중치 부여의 어려움

3. 향후 추진방안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고 유지해 왔다. 그 결과 국내 유일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자료이며,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다문화청소년 연구의 전환점을 제공하였고, 패널 학술대회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성과물 도출에 기여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 감소에 기여하였다는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균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집단으로써 기준이 되는 비(非)다문화집단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두 집단 비교에서 한계를 지니며, 사회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정보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집단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가중치 부여의 어려움을 지닌다는 한계도 있다.

올 해는 본 연구의 마지막 해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총정리하고, 2018년에는 새로운 연구가 시작될 예정이다. 새로운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지닌 풍부한 패널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청소년집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본 연구의 한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의 연구추진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2018년도부터는 새로운 패널(초등학교 4학년)을 구축하여 현재의 패널과 비교분석한다.

둘째,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과 같은 다양한 집단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비교집단으로써 비(非)다문화청소년을 함께 패널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2011년부터 구축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적함으로써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다섯째, 보다 정확한 모집단 정보에 기초한 패널을 구축한다.

향후 추진방안

- 새로운 초등학교 4학년 패널 구축
-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하는 패널구축방안 모색
- 비교집단으로써 비(非)다문화청소년 패널구축방안 모색
- 기존 패널추적을 통해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새로운 패널의 모집단 현황 파악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유임, 김병석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애착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정적 대처기제의 중재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1), 19-42.
- 강지은 (2014). 부, 모, 교사애착이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은폐 및 자기 낙인에 미치는 영향 :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의 비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현, 여태철, 김재철, 김지현, 임진영 (2013).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성 비교. 교육문화연구, 19(2), 31-62.
- 고명주 (2016). 다문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2016).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세종: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팀.
- 권구택 (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보근 (2014).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문화 예비학교와 정규 학교에서의 적응 사례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순희 (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상담 지도 사례. 국어교육학연구, 29, 127-174.
- 권해수 (2011). 농촌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청소년기 경험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8, 35-72.
- 김갑성 (2008).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58-95.
- 김건숙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또래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신뢰감의 매개효과. 전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교정, 정규식 (2008). 다문화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1), 272-285.
- 김기현, 이재희, 홍혜미 (2013). 결혼 이주 가정 및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

- 탐색과 형성. *사회복지연구*, 44(1), 165-192.
- 김기호 (2014). 이주배경 청소년의 부적응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 현상학 방법의 행동과학적 변환을 통한 접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영 (2013).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간의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김희영 (2015).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부모와의 관계, 대처전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0(2), 367-385.
- 김민아, 이재희, 라미영, 김기현 (2014). 서비스 제공자가 인식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 어려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9), 147-175.
- 김민지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규학교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 다문화 예비학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운, 신재현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 기능적 특성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3), 195-202.
- 김석기 (2008).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생활세계 재구성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준 (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58(3), 6-41.
- 김선정 (2010).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 및 다문화교육의 추진 방향. *외국어교육연구*, 24(1), 21-46.
- 김수미, 정경은 (2013). 다문화청소년의 낙인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34, 27-49.
- 김수진, 홍창희 (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과 언어문제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195-211.
- 김수희, 전성희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다문화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아동가족치료연구*, 10, 53-67.
-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 김순복 (2015).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교사와의 관계성이 학교생활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한일장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은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

- 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김수인 (2011). 여성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 *교육심리연구*, 25(4), 853-873.
- 김연이 (2011). 일반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봉 (2014).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역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인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영신, 신철균, 김현진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25(2), 161-185.
- 김영은 (2014).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경험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 *윤리교육연구*, 33, 53-81.
- 김예성, 오승환 (2016).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8(3), 75-98.
- 김은경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Ⅰ) :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1).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민 (2014).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문화 대안학교 학습경험 탐색.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정민, 공보금, 강제욱, 문정준, 전동욱, 강은찬, 주현빈, 이윤호, 정도운 (2015). 다문화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정신 건강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6(4), 279-287.
- 김종백, 탁현주 (2011). 교사의 다문화 교육인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10), 161-185.
- 김종선 (201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 지혜은 (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16, 62-99.

- 김지혜 (2012). 중고등학생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연구. **한국글로벌문화학회지**, 2(2), 72-100.
- 김태미, 최인려 (201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3), 69-80.
- 김현식 (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가족유형에 따른 일탈행위의 차이 분석. **한국사회학**, 50(1), 41-74.
- 김현식, 김두섭 (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자살행위. **한국사회학**, 48(2), 35-66.
- 김혜미, 문혜진 (20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한국인 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사회복지학**, 65(4), 7-31.
- 김혜정 (2016).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영 (201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주, 한미아, 박종, 류소연, 최성우 (2015). 북한가정,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 **보건행정학회지**, 25(1), 22-30.
- 김홍주, 박길태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특징. **사회과학연구**, 49(1), 93-128.
- 남부현, 김연이 (2011).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다문화교육**, 2, 19-58.
- 남수정 (2015). 일반 청소년들과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 관련 경험 차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1), 1-12.
- 남영옥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37-47.
- 남윤주, 이숙 (2009).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3), 357-367.
- 남효진 (2007).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정체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도남희 (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일상생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Comparative Korean Studies**, 19(1), 161-194.
- 류진아 (2011). 농어촌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 유형과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2), 5-27.
- 문선영 (2015).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의 방임과 비행 간 관계 비교 연구 : 학교생활부적응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가영 (2009). 교육 소외 경험에 대한 트랜스내셔널 비교연구: 이주노동자 자녀와 한국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4), 225-252.
- 박미정 (2016). 사회적지지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0(2), 53-68.
- 박봉수 (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 한국사회 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봉수, 김영순, 최승은 (2013).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부모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1, 331-355.
- 박상현 (2014). 중도입국청소년의 자기인식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웅, 우현정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847-865.
- 박선웅, 우현정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인 되기: 중도입국 학생의 적응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사회 이론**, 44, 211-258.
- 박술지 (2010).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경, 성경희, 조영달 (2008). 초·중등 교사의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태도. **시민교육연구**, 40(3), 1-28.
- 박은애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연구: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일 (2013). 다문화 보호청소년과 일반 보호청소년의 환경체계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남지숙 (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21(2), 129-152.

- 박진우, 장재홍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심리적인 요인. **청소년학연구**, 21(4), 133-154.
- 박현주, 오희철, 이자경, 설동훈 (2010). 몽골이주노동자 미성년 자녀들의 건강상태와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정보통계학회지**, 35(1), 73-86.
- 박혜연 (2016). **다문화 대안학교 청소년의 진로선택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준 (2008).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적응. **가족과 문화**, 20, 99-129.
- 박희훈, 오성배 (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35-57.
- 배은주 (2007). 차별과 동화: 초등학교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생활. **교육비평**, 22, 214-234.
- 배장오, 진서현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육성취욕구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421-434.
- 백승대, 안태준 (2015). 대구와 경북 지역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국민정체성 비교 연구. **지역사회연구**, 23(3), 27-47.
- 백주희 (2016). **다문화청소년의 건강위험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숙, 김진, 유영하 (2013). 전남지역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 인구배경학적 요인, 개인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1(4), 157-170.
- 변은주, 김홍석 (2012).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사회적지지 및 가족기능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20(1), 129-139.
- 서경림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거주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보준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서은숙 (2016). 중도입국 (이민) 청소년 다문화교육. **윤리연구**, 106, 275-304.

- 서진희 (201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비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희정, 하춘광 (2015).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가족생활적응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학교사회복지*, 31, 1-35.
- 선남이 (2013).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신미정 (2014). 다문화가정 부모교육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의 관계 : 경기남부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 부모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정, 이봉민 (2015).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참여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12(1), 1-24.
- 신예진 (2017).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재현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신재현 (2017). 통합교육 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활동 및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통합교육연구*, 12(1), 53-74.
- 심우엽 (2009). 다문화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22(4), 27-47.
- 아영아 (2016). 학대적 양육태도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관계에서 지역사회 지원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8(4), 137-162.
- 안은미 (2006).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인영, 서지영, 이동윤, 이소진, 차보석, 이철순, 김봉조, 박철수, 최재원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한국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 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7(4), 306-312.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연구보고 11-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 (연구보고 12-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박주희 (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총괄보고서 (연구보

- 고 13-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서 14-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6).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V: 총괄보고서 (연구보고서 16-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순미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59-576.
- 염효진 (2015). 모-자 정서적 상호작용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화 (201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9(9), 83-97.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성배 (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0(3), 305-334.
- 오성배, 서덕희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 오승환, 좌현숙 (2015).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학교사회복지, 32, 385-412.
- 오연경 (2008). 다문화가족 상담을 위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역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은영 (2015).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한 학교적응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아, 김영희 (2015). 부모의 갈등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인식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남녀 청소년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6), 205-231.
- 유비, 김기현 (2015). 한국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한국인 부모가정)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7(1), 5-29.
- 유소영 (2013).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다문화 중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인영, 이정애 (2013). 다문화 가족 환경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정도.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0(5), 699-707.
- 유지희, 황숙연 (2016).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경험과 관련요인: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1), 115-146.
- 윤성훈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관계 스트레스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글로벌문화학회지**, 4(2), 23-43.
- 윤아름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선경 (2009).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이덕희 (2016). 다문화청소년들의 스트레스대처,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태도 간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3), 760-770.
- 이동찬, 나병현 (2007).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초등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탐색. **한국초등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7(1), 1-18.
- 이민경, 김경근 (2009). 이주 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전략. **교육사회학연구**, 19, 107-132.
- 이봉숙, 김지수, 김기숙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개인적, 심리적, 건강행위와주관적 건강상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7(1), 64-75.
- 이성령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중학교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질적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현 (2016). 다문화가정청소년의 건강행태와 건강상태와의 관련성 : 일반가정청소년과의 비교.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애련 (2015). 한국의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부적응 및 폭력문제 해결방안에 일본의 다문화정책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2), 111-142.
- 이영주 (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 이영주 (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3(1), 79-101.
- 이영주 (200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2), 103-119.
- 이유경, 류재윤, 방홍복 (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129-154.
- 이윤정, 이정임, 유희, 정재은 (2012).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4), 149-167.
- 이윤희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애착,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 (201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관계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인식과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2010). 부모-자녀의사소통양식, 가족응집력,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과 일문화가정의 비교.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석 (2014). 다문화 가정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시민성 탐색. **시민교육연구**, 46(4), 79-105.
- 이현주, 강현아 (2011).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유형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2(4), 147-166.
- 이혜림 (2016). 다문화가정청소년과 일반가정청소년의 건강행태 비교.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우영 (2016).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에 관한 연구 : 학교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장덕희, 신호선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17(3), 123-147.
- 전경숙 (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 167-185.
- 전경숙, 송민정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8(11), 305-330.
- 전경숙, 정기선, 이지혜 (2007).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전영실, 신동준, 박상희, 김일수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32.
- 전영희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2), 277-293.
- 전푸르나 (2010).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가영 (2008). 제한 몽골 이주 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인정의 정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경 (2013).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역량지각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정문경 (2015).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11), 137-162.
- 정일선 (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대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지윤, 문성호 (201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8(8), 265-289.
- 정희정, 김소연 (2014).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 상담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4), 831-853.
- 조경서, 유준호, 오승아 (2007).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양육과 교육실태. 유아교육학논집, 11(3), 5-25.
- 조남예 (2014).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 :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봉환 (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흥미와 진로발달. 진로교육연구, 24(2), 219-245.
- 조혜영 (2009).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2(1), 263-295.
- 조혜영, 서덕희, 권순희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8, 105-134.
- 좌동훈 (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천호성, 박계숙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다문화*, 2(2), 416-444.
- 천희영, 이미란 (2015).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의 유형화. *한국영유아보육학*, 95, 1-24.
- 최선애, 김혜원 (2016).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성과에 관한 연구. *교육정책연구*, 3, 100-142.
- 최성보 (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4(2), 105-130.
- 최예림 (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옥주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부모관계와 대처전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충주캠퍼스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운선 (2012). 한·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민족 정체감, 차별경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7(2), 49-71.
- 최윤경 (2012). 다문화아동 발달 실태 및 유형화. *육아정책포럼*, 30(5·6월호), 27-39.
- 최윤미, 임성택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5(2), 15-26.
- 최은미 (2007) 이주아동의 학교 경험에 관한 연구: 문화기술지 방법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은 (201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유아의 자아개념과 보육시설적응 비교. 충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효인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보호요인의 효과: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종교생활 및 다문화교육.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학술대회 자료집 17-S3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토론자료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성희 (2015).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자치부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서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실 사회통합지원과.
- 홍범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실태와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정미 (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윤미 (201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정서·행동특성 비교.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은, 이훈희 (2013). 학교생활에 대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식유형 분석. 한국가족복지
학, 41(단일호), 225-249.
- Jiang, hailan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과 개인, 가족, 학교 요인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y tracing their development process and provide basic data which can help them strengthen their competency and accelerate social integration with a goal of bringing policy alternatives. For this, a longitudinal study was performed on multicultural youth groups from 2011 (4th graders at that time) to 2016. In 2017 as well, data were collected. The purposes of the 2017 study are as follows: i) to summarize the past multicultural youth longitudinal study processes and results, ii) to investigate multicultural youth development processes by analyzing longitudinal changes in the data accumulated for the past six years and examine the factors and policies affecting their development, iii) to improve researchers' interest in multicultural youth and derive diverse studies through academic conferences, iv) to set general multicultural youth policy directions and missions after analyzing the past results and current related policies by government bureau. For a continued study, furthermore, the organization of the 2017 panel data was also included in this study. The study results found the followings: First, according to the longitudinal changes of panel data,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trajectory of change between general and multicultural adolescents. Second, in term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youth, gender,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and monthly income were obtained. Third, regarding the influence of policy support, while learning support didn'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youth, cultural and physical suppor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In terms of policy analysis, laws, basic plans and each bureau's policies were analyzed. In addition, SWOT was conducted on Korean multicultural youth policy. After analyzing whether or not the suggested policies were actually implemented, this study proposed multicultural youth policy promotion strategies and projects. In terms of promotion, the following four strategies were suggested: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youth competency, strengthening support group competency, formation of multicore-friendly environments,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 youth promotion system. Under such strategies, in addition, a total of 11 projects were mentioned. Then, the roadmap for each project was introduced.

Keywords: Multicultural Youth, Longitudinal Study, Multicultural Youth Support Policy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7-R03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강영배
-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박남수·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혁진
- 17-R08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이윤주·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이윤주·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문호영·조남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최인재·염유식·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강경균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성윤숙·최홍일·유성렬·김강호
- 17-R15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 17-R15-1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김희진
- 17-R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하형석·최용환·정은진·정윤미·한지형
- 17-R16-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박상현·한지형
- 17-R16-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하형석·고강혁·정윤미
- 17-R16-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정은진·최승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홍영탄·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Ainley, J·Losito, B·Agrusti, G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해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해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수 시 과 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탁과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김성식 · 김재우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옥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 · 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현 · 하형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 · 하형석 · 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 · 이유진 · 정은진 · 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 · 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 · 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 (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 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Ⅰ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보고 17-R1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V: 총괄보고서

인 쇄 2017년 12월 22일

발 행 2017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64-6 94330

979-11-5654-145-5 (세트)

연구보고 17-R1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1646
ISBN 979-11-5654-164-6
ISBN 979-11-5654-145-5 (세트)